

정책연구

2005-06

#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정인수 · 김기민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론 .....	(정인수) ..... 1
제2장 청년층 실업실태와 특징 .....	(정인수) ..... 3
제1절 청년층 실업률 추이 .....	3
제2절 청년층 유희화율 .....	5
제3절 청년층 취업난 현황 .....	5
제4절 청년층 실업률의 국제비교 .....	9
제3장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분석 .....	(정인수) ... 10
제1절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	10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13
1. 첫 취업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	13
2.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	14
제3절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 .....	15
1.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 과소 .....	15
2.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 .....	17

제4절 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부족 등	
노동시장인프라 문제 .....	20
1. 고용안정 서비스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 .....	20
2. 직업훈련 요구 .....	23
3. 고용안정인프라 예산의 선진국과의 비교 및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문제점 .....	24
 제4장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결과	
..... (정인수 · 김기민) ...	28
제1절 개요 .....	28
1. 조사의 개요 .....	28
2. 조사 표본의 특성 .....	29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	33
1. 구직현황 .....	33
2. 희망직업에 대하여 .....	42
3.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 .....	51
4. 정부 청년실업대책 .....	58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	62
6. 고용안정센터 .....	67
제3절 졸업예정자 요약 및 시사점 .....	71
 제5장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	
..... (정인수 · 김기민) ...	77
제1절 개요 .....	77
1. 조사의 개요 .....	77
2. 조사 표본의 특성 .....	78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	83

1. 구직현황 .....	84
2. 희망 직업에 대하여 .....	96
3. 직업훈련 및 경력경험 .....	108
4. 정부 청년실업대책 .....	120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	125
6. 고용안정센터 .....	129
제3절 졸업자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	132
<b>제6장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b> .....	(정인수) ... 139
제1절 선진국예산 비교분석 .....	139
1. 실업대책 예산 전체 비교 .....	139
2.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비교 .....	139
제2절 청년층 예산 분석 및 시사점 .....	142
<b>제7장 대상별 정책과제</b> .....	(정인수) ... 146
제1절 정책대상의 범위와 구분 .....	146
제2절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방향 .....	148
제3절 정책 과제(대상별 공통대책) .....	149
1.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 .....	150
2.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	151
3. 청년층 직업능력 개발 .....	155
4.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및 인력개발 .....	156
5. 직업체험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이행 원활화 대책 .....	158
6. 지역차원의 청년층 대책강화 .....	159
7. 정부 청년층 실업대책의 현실화와 홍보 .....	160
8. 청년층 눈높이 조절을 위한 청년층 취업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언론홍보 .....	160

제4절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청년 취업애로 계층 대책 .....	161
참고문헌 .....	164
부 록 .....	167

## 표 목 차

<표 2- 1>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	3
<표 2- 2>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	4
<표 2- 3> 청년층(15~29세)의 유희화율 추이 .....	5
<표 2- 4>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전체) .....	6
<표 2- 5>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고졸 이하) .....	7
<표 2- 6>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대졸 이상) .....	7
<표 2- 7> 학교를 마친 청년 취업애로층의 학력별 구직행태 차이(2004년 10월) .....	8
<표 2- 8> 청년층 취업애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희망 여부 및 미구직 사유 .....	9
<표 2- 9> 청년(15~24세) 실업률의 국제비교(2003년) .....	9
<표 3- 1> 대졸인력 공급 추이 .....	10
<표 3- 2> 주요기업들의 채용추이 .....	11
<표 3- 3> 청년 취업자수 및 청년 취업자 비율 추이 .....	12
<표 3- 4>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 .....	12
<표 3- 5>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	13
<표 3- 6>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별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	14
<표 3- 7> 일자리 불일치 .....	15
<표 3- 8> 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2003~2004년) .....	16
<표 3- 9> 청년 실업자의 미취업 사유 .....	17
<표 3-10> 사업체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	18
<표 3-11> 외국인 인력 체류 현황 .....	20
<표 3-12> 학교를 마친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취업 경로 .....	21

<표 3-13> 학교를 마친 청년층 실업자의 구직 경로 .....	21
<표 3-14> 부산지역 대졸 예정자 하향 취업의사 및 비정규직 취업의사 여부 .....	22
<표 3-15> 부산지역 대졸예정자 대상 취업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 .....	22
<표 3-16>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 (대학취업보도실 방문자) .....	23
<표 3-17>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 (고용안정센터 방문자) .....	23
<표 3-1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	24
<표 3-19>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GDP 대비 .....	25
<표 3-20> 선진국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예산/GDP 비율(2002년) ...	25
<표 3-21>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인력의 비교 .....	26
<표 4- 1> 대상별 실태조사 응답 수 .....	29
<표 4- 2> 실태조사의 지역별 응답 수 .....	30
<표 4- 3>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전공계열 .....	31
<표 4- 4>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계열 .....	32
<표 4- 5>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전공계열 .....	33
<표 4- 6> 대상학교별 · 성별 구직활동의 여부 .....	34
<표 4- 7> 대상학교별 주요 구직경로 .....	35
<표 4- 8>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	36
<표 4- 9>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빈도 .....	37
<표 4-10> 이력서 제출 횟수에 대한 응답수 .....	38
<표 4-11> 구직정보 수집 시 어려움 점 .....	39
<표 4-12> 실태조사에서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에 대한 응답수 .....	40
<표 4-13> 훈련의 적합성에 대한 상담 여부 및 취업 가능성 .....	41
<표 4-14> 대상학교별 토익시험 여부 및 점수 분포 .....	41

<표 4-15> 대상학교별 취업희망업종 .....	42
<표 4-16> 성별 취업희망업종 .....	43
<표 4-17> 대학학교별 취업희망업체 .....	44
<표 4-18> 성별에 따른 취업희망업체 .....	44
<표 4-19> 대상학교별 취업희망지역 .....	45
<표 4-20> 대상학교별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희망지역 .....	46
<표 4-21> 성별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희망지역 .....	46
<표 4-22>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	47
<표 4-23> 희망최소연봉 .....	48
<표 4-24> 근속연수 1년 이하 기업규모별·학력별 연봉 .....	49
<표 4-25> 업체 선택 기준 .....	49
<표 4-26>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희망의사에 대한 긍정 비율 .....	50
<표 4-27> 제약에 따른 취업 희망 의사에 부정을 나타낸 경우의 이유 .....	51
<표 4-28>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경험 여부 .....	52
<표 4-29>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	52
<표 4-30>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	53
<표 4-31> 재학/휴학 중의 직업체험(취업포함) .....	54
<표 4-32> 직업 체험을 한 곳 .....	55
<표 4-33>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가 참여해 본 분야(대상학교별) ...	56
<표 4-34>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가 참여해 본 분야(성별) .....	56
<표 4-35> 직업체험을 한 응답자들의 전공과의 부합성 .....	57
<표 4-36> 직장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5점 척도 평균) .....	58
<표 4-37>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	59
<표 4-38> 청년실업대책 인지·참여·희망에 대한 비율 .....	60
<표 4-39> 정부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 효과 .....	61



<표 4-40> 정부 청년실업대책 문제점 .....	62
<표 4-41> 대상학교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63
<표 4-42>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성별) .....	64
<표 4-43>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	65
<표 4-44>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의 월평균 소득 .....	66
<표 4-45>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에 대한 $\chi^2$ 검정 .....	67
<표 4-46> 대상학교별·성별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 .....	68
<표 4-47>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	68
<표 4-48> 고용안정센터 내의 자료정리현황에 대한 인상 .....	69
<표 4-49> 고용안정센터 방문 후 도움 정도 .....	70
<표 4-50> 고용안정센터를 알면서도 가지 않은 이유 .....	70
<표 5- 1> 설문장소에 따른 학력별·성별 응답수 .....	78
<표 5- 2> 학력에 따른 성별 비율 .....	79
<표 5- 3> 실태조사의 지역에 따른 학력별·성별 응답수 .....	80
<표 5- 4> 대졸 이상 전공계열 .....	81
<표 5- 5> 전문대졸 전공계열 .....	82
<표 5-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 .....	83
<표 5- 7> 학력별·성별·현재상태 구직활동 비율 .....	84
<표 5- 8> 학력별·구직활동여부별 지난 1주일간의 생활 .....	85
<표 5- 9> 학력별·구직활동여부별 졸업 후 실업기간 .....	86
<표 5-10> 학력별 주요 구직경로 .....	88
<표 5-11>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	89
<표 5-12>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빈도 .....	90
<표 5-13> 중졸 이하의 경우 전체 월평균과의 차이 검정 .....	91
<표 5-14> 이력서 제출 횟수 .....	91
<표 5-15>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 .....	92
<표 5-16>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	93
<표 5-17> 학력별 토익시험 여부 및 점수 분포 .....	94

<표 5-18> 실업기간 중 취업제의 .....	95
<표 5-19> 취업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 .....	95
<표 5-20> 취업이 안 되는 이유 .....	96
<표 5-21> 학력별 취업희망업종 .....	97
<표 5-22> 성별 취업희망업종 .....	98
<표 5-23> 학력별 취업희망업체 .....	99
<표 5-24> 성별 취업희망업체 .....	99
<표 5-25> 학력별 취업희망지역 .....	100
<표 5-26>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학력별 취업희망지역 .....	101
<표 5-27> 학력별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	102
<표 5-28> 성별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	102
<표 5-29> 학력별 희망최소연봉에 대한 응답수 .....	104
<표 5-30> 성별 희망최소연봉에 대한 응답수 .....	104
<표 5-31> 학력별 업체선택기준 .....	105
<표 5-32> 성별 업체선택 기준 .....	106
<표 5-33>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희망의사에 대한 긍정비율 .....	107
<표 5-34>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이유 .....	107
<표 5-35>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경험 여부 .....	108
<표 5-36>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	109
<표 5-37>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	110
<표 5-38> 직업체험(취업포함) .....	111
<표 5-39> 직업체험을 한 곳 .....	112
<표 5-40> 학력별·성별 직장체험 참여 분야 .....	113
<표 5-41> 직업체험의 전공과의 부합성 .....	114
<표 5-42> 직장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5점 척도) .....	114
<표 5-43> 첫 일자리(직장) 업종 .....	115
<표 5-44> 첫 일자리(직장) 고용형태 .....	116

<표 5-45> 첫 일자리(직장) 일의 형태 .....	117
<표 5-46> 첫 일자리(직장) 월급 .....	117
<표 5-47> 첫 일자리(직장) 취업기간 .....	118
<표 5-48> 첫 일자리(직장)를 그만둔 주된 사유 .....	118
<표 5-49> 최근 일자리(직장) 구직경로 .....	119
<표 5-50> 최근 일자리의 전공과의 일치여부 .....	120
<표 5-51>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	121
<표 5-52> 청년실업대책 인지·참여·희망에 대한 비율 .....	122
<표 5-53> 정부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의 효과 .....	123
<표 5-54>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	124
<표 5-55> 취업의사가 없는 이유 .....	125
<표 5-56>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	126
<표 5-57>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생활비 마련 방법 .....	127
<표 5-58>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평균 .....	128
<표 5-59>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에 대한 $\chi^2$ 검정 .....	129
<표 5-60> 학력별·성별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 .....	130
<표 5-61>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	131
<표 5-62> 고용안정센터 내의 자료정리 정도 .....	131
<표 5-63> 고용안정센터 방문 후의 효과 .....	132
<표 6- 1> 선진국의 실업예산/GDP 비율(2002년) .....	140
<표 6- 2> 실업률을 표준화한 실업예산/GDP 비율(2002년) .....	141
<표 6- 3>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비교(2002년) .....	141
<표 6- 4> 한국의 실업예산/GDP 비율 추이 .....	142
<표 6- 5> 청년실업대책 예산(2004.10.5 집계기준) .....	144
<표 7- 1>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안정 서비스 인력의 비교 .....	151
<표 7- 2> 선진국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예산/GDP 비율(2002년) ·	152

## 그림목차

[그림 2-1] 청년층 실업률 추이 .....	4
[그림 3-1]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비중 .....	16
[그림 3-2] 직종별 부족인원 .....	19
[그림 3-3] 생산관련직 부족인원 및 단순기능 외국인력 추이 .....	19
[그림 7-1] 청년 종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체계도 .....	154

## 요 약

### 1. 연구목적

청년실업문제는 그 나이 또래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학력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교육시스템적 측면의 장기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본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에 대한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특히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이 아주 중요한 정책현안이라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문제점, 고용안정인프라, 실태조사 결과와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 가. 청년층 실업현황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였으나 2003년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7.7%로 2%포인트나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4년 3/4분기 현재 7.2%의 실업률로서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높다.

청년실업자의 62%(2004년, 3/4분기)는 고졸 이하인데, 대졸자들은 졸업 시점에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직업탐색기간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되는 데 비하여, 고졸 이하의 취업, 실업, 비경활 사이를 오가는 직업 비정착자가 많

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청년층 취업자수의 변동을 보면,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은 2003년 460만 7천명으로서 2002년 대비 1년간 19만 2천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2004년 3/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4만 2천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청년층 유휴화율\*을 보면, 2003년 들어 상승하여 2004년 3/4분기 현재 17.6%로서 고졸보다 대졸이 4.3%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졸의 체감실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을 국제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대비 2.7배로서 OECD 평균 1.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청년층 실업의 원인은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음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요인들을 살펴본다. 구조적 요인은 크게 나누어 첫째,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셋째,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 1)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1995~2003년간 대졸자수는 18만명(55.6%)이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을 보면,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

\* 유휴화율은 실업률로 포착할 수 없는 청년층의 체감실업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실업자수+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수)/생산가능인구수]로 계산된다.

를 원하는 주요기업(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최근 5년 동안 32만 6천개나 줄어들어 대학졸업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청년취업난으로 청년일자리 총수는 1996년의 542만개에서 2002년 461만개로 6년 사이에 81만여 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 비율도 1996년의 26%에서 2003년도 20.8%로 5.2%포인트 하락하였고,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의 46.2%로부터 2003년 44.4%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청년층의 피해가 다른 연령층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로서 학교졸업 후 취업이 너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나타난다.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문제도 이행기간이 길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기업의 인력수요 패턴은 급변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불일치와 하향취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20%가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하며, 자신의 전공계열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9%에 이르고 있다. 하향취업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전공별 일자리 불일치는 대졸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가 너무 적다.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수를 보면, 중견기업 규모라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자 규모가 전체의 22.0%에 불과하여 금융위기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요 대기업에서 격감된 노동수요를 대체할 중견기업의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규모간 임금격차도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사업장은 1989년 74.2%, 1999년 68.1%, 2004년 1~10월은 61.2%로 크게 악화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기피의 요인이 되고 있다.

### 4) 고용안정인프라 부족문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0.31%로서 OECD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적어도 OECD 평균이나 스페인 수준만큼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취업알선 부문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0.05%로서 5개국 평균인 0.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소수의 인원과 과다한 업무량을 들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공고용안정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도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9,572명으로 외국에 비해 많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적용 확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청년실업대책의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을 분석하면, 고용보험업무가 42.1%, 직업능력개발업무 10.0%, 기타 행정업무 1.8%, 그리고 취업지원 46.2%로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이 절반에 미달하며, 취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603명으로 전체 인력의 25.2%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안정센터당 3~5명의 인력만 취업알선에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직업상담원은 본연의 업무인 취업지원보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업무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년 1월부터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고용안정센터는 지역의 종합적 취업센터라기보다 노동행정기구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조직 및 인력관리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행정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보면, 현재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전달체계는 ‘노동부 본부(노동시장기구과) → 고용안정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0여 명에 불과한 노동부의 노동시장기구과가 전국의 고용안정조직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 System)을 담당하고 있어 중앙의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이 취약하다.

넷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사이의 부조화 및 문화적 갈등이 심각하다. 직업상담원이 전문적 직업상담업무보다는 노동부 일반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비중이 높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신분 종속관계로 인하여 정규공무원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2004년부터 민간인 직업상담원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7세까지 자동갱신되도록 하여 신분의 불안정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지만, 승진·재계약·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안정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이 부족하다. 수요자 특성별 심층서비스가 미흡한데, 고용보험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구인·구직알선 및 단순한 상담서비스 등은 제공되고 있으나 심층상담, 진로지도 등의 맞춤형서비스(tailored service)는 부족하다. 심층상담프로그램, 계층별(여성, 장기실업자, 청소년, 자영업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고용정보의 모니터링(monitoring), 구인처 개척,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며, 구직자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청소년, 중장년층 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불충분하여 고용안정센터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일곱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결여, 즉 노동시장 관련 정보가 중앙부처 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이 낮고,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내에서도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정보전산망, 직업지도시스템, 터치스크린이 개발되어 있으나 상호 별도의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으로 정보의 교류가 곤란하며, 공공과 민간부문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이의 정보연계가 불완전하다.

#### 다. 실태조사 결과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의 졸업예정자(4년제 대학, 전문대, 실업계고 비진학자, 인문계고 비진학자)와 졸업자(고용안정센터, 채용박람회,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졸업예정자는 3,505개를, 졸업자는 1,796개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

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졸업예정자들은 23% 정도 선호하였고, 그 중 대졸예정자는 20% 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자는 32% 정도 선호하고, 그 중 대졸자는 30% 정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될 경우에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수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졸업예정자는 37%가, 졸업자는 26%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셋째, 하향·비정규·비적성의 직장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졸업예정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라 답한 응답자가 64.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진학 및 유학’에 20.4%가 응답하였다. 졸업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에 취업’에 73.7%가 응답하였다.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는 실망실업자는 5.3%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경험에 대해 졸업자를 조사한 것을 보면, 대졸자는 취업경험이 37.8%로 전문대 이하와 달리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하는 70%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무직이며, 이 직을 준비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취업경험은 평균 1회 정도이며, 임금수준은 50~100만원이 5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섯째, 실업기간에 대해 졸업자의 경우를 보면, 전체 평균 7개월이고, 중졸 이하는 8개월(1~2개월이 45%, 25~36개월이 11.1%임)로 나타났다.

여섯째, 구직시 어려운 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졸 및 전문대졸은 ‘정보가 흩어져 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졸(실업계, 인문계)의 경우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곱째, 구직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졸업예정자는 연고(40.5%),

인터넷(23.5%) 순으로 나타났고, 졸업자는 인터넷(39.9%), 연고(2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졸업자에게 최근 구한 직업의 구직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는 연고가 37.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여덟째, 구직경로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채용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졸업예정자는 ‘사설 온라인(42.3%)’, ‘모교의 취업사이트(14.6%)’ 순으로, 졸업자는 ‘사설 온라인(54%)’,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25%)’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의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실태를 알아보면, 대졸이 21.4%, 전문대졸이 32.6%, 실업계 고졸이 25.7%, 인문계 고졸이 24.4%이고, 중졸 이하가 2.9%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아홉째, 고용안정센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방문을 해보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졸예정자는 42% 정도가 고용안정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는 사람 중 29%가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고, 대졸자의 경우는 65.8%가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방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의 경우 ‘직업훈련’ 때문에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위치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째,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졸업자는 57%이고, 졸업예정자는 75.7%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컴퓨터, 어학 등 일반사무 소양 정도에 치중되었다.

열한째, 직장체험 경험은 51%가 없다고 하였다. 직장체험은 서비스, 아르바이트 위주로 나타났다.

열두째, 졸업 후 이력서 제출 횟수는 평균 13.1회로 나타났고, 빈도수는 1~5회가 56.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이력서 제출 횟수가 평균 4.3회로서 다른 학력소지자와의 격

차가 크게 났다.

열셋째, 졸업자에 대해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0.3%,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가 17.9%, ‘취업정보 부족’이 15.7%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졸 이하자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0.5%, ‘취업정보 부족’이 27%로 고용안정인프라와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기관의 집중, 특단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열넷째, 희망임금에 대해서는 졸업자가 1,800만원이고, 졸업예정자는 1,988만원이다. 졸업자는 대졸자가 1,968만원, 전문대졸이 1,660만원, 실업계고졸이 1,747만원, 인문계고졸이 1,703만원이고, 중졸 이하가 1,542만원이다. 졸업예정자는 대학이 2,095만원, 전문대 1,858만원, 실업계고교 1,919만원이고, 인문계고교 2,198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임금구조조사를 통해 근속연수 1년 이하이며 10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의 연봉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상~1,650만원 미만 수준으로, 대졸 이상은 1,637만원, 전문대졸은 1,273만원, 중졸 이하는 1,251만원이다. 따라서 졸업자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은 300만~500만원의 차이가 나며, 대졸자는 20.2%, 전문대졸은 30.4%, 고졸은 39.6%의 격차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열다섯째, 희망취업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수도권·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지가 수도권·서울 이외인 경우에도 졸업예정자는 수도권·서울지역을 고집하고 있으나, 졸업자는 ‘자신의 최종학교지역 및 인근지역’이 52.2%, ‘수도권·서울지역’이 3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열여섯째, 희망 업종은 졸업자의 경우는 21%가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였고, 16.5%가 제조업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는 부동산·교육 등 기타서비스업에 48.3%로 가장 많

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 14.1%가 응답하였다. 제조업에는 4.1%만 희망하였다.

열일곱째,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중졸 이하는 ‘까다로운 자격조건 완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열여덟째,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보면,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3개 정도(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11%,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9.4%,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9.8%)에만 인지도에 대해 10%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졸업자는 졸업예정자보다 더 낮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열아홉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 ‘취업과 실무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한 졸업예정자는 40.7%, 졸업자는 38.8%로 나타나, 참여율은 저조하나 참여 후 반응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스물째, 가족의존도는 없다고 나타났다. 구직활동여부별 가족소득수준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모두에  $\chi^2$  검정을 해본 결과,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구직활동여부에 따라 가족소득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3. 결론 및 시사점

#### 가. 정책대상 범위

정책대상 범위는 중위의 취업애로계층 66만명으로 해야 한다. 즉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을 중위의 취업애로 대상(2004년 10월 현재 66만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구직을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므로, 적어도 1장의 청년실업현황에서 살펴본 중위의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까지(66만명)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가족의존도와 구직활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나므로, 가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청년층을 취업애로 계층으로 정책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5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월평균 '267만원'이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chi^2$  검정결과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구분대상

청년층 대상별 정책과제의 대상구분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그리고 인문계 고졸자 및 고 중퇴를 포함한 중졸 이하자로 4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책대상으로 성별 구분은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남녀별 분석내용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보고하였는데, 희망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녀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비적성·하향·중소기업 생산직·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에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은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각각 80%, 65%의 응답을 한 반면,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 출신은 40%대의 응답을 하여 차이가 났다.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 전공, 직업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의 경우, 실업계는 전공과 현장경험이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인문계 및 중졸 이하는 전공이나

직업훈련,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력 및 전공과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졸 이하자는 이력서 제출 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히 낮고,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이유도 직업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취업이 안 되는 이유로 '취업정보 부족'에 다른 학력과 달리 높은 응답을 보여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중졸 이하자는 정부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상범위에 들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다.

#### 다. 정책과제(대상별 공통과제)

대상별 공통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고용안정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는 대졸자를 위한 취업정보 및 구인정보집적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각급 학교 취업보도실을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결,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 중소기업의 정보를 집적 및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Clean 사업실시 확대)하며, 중소기업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해외 직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실업통계 및 청년실업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에 대한 홍보(수도권·서울지역만 고집, 제조업 기피, 희망임금 격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와 중졸 이하 정책과제

첫째, 인문계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공공직업훈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부천지역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불가능한 기계·광학·정밀기계의 조작용이 부족한 실정이고(15%), 부



산지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역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 훈련센터를 설립 및 지원하여 비진학자 및 중퇴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중졸 이하자에 대한 직업상담기능 강화, 취업팩키지 지원,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범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졸 이하자에 대하여도 직장체험, 인턴제 등 정부정책에 참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고용안정센터 위크넷에 비진학 고졸포함 중졸 이하 section을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NGO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애틀의 경우,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청년층 직업)의 활성화를 NGO가 국가지원 펀드(United States Fund)를 지원받아, 항만 및 공항의 건설공사나 서비스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 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구직토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중퇴 청년실업자를 취직시키고 동시에 항만 및 공항의 단순 및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였다. 여섯째, 동행면접의 강화와 예산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 동행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된다.

## 제 1 장 서 론

청년실업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온 오래된 과제이다.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여 금융위기 이전인 1997년의 5.7%에 근접한 적이 있으나, 2003년의 경기불황 이후 2004년도에도 연간 청년실업률이 7.9%, 실업자수 39만명에 달하고 있어서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직준비 중이라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취업애로 계층은 70만명에 달하여 14%가 넘는 청년들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률을 국제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7배로서 OECD 평균 1.9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대책에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청년층 중 대졸 나이 또래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학력 과잉공급이라는 학력별 수급불균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본 연구과제는 비록 청년실업해소가 중장기적 과제인 까닭에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기 힘든 점은 인정하지만, 그동안의 청년실업대책이 청년층 내에 대상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그 세부적 정책면에서 간과한 점이 많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실태조사를 대상별로, 그리고 전국적

## 2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으로 실시하여 실업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고, 대상별 차이에 따른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내용은 먼저, 제2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실업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실업실태 구조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4장 및 5장에서는 대학, 전문대학 및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업 애로점과 선호도를 포함한 청년층 대상별 취업 애로실태와 취업지원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을 선진국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면에서 청년실업대책을 분석해 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 정책대상의 범위와 구분, 청년층 실업대책 방향, 대상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과제에서는 고졸 이하 청년실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졸 이하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애로 정도가 다른 대상에 비하여 특별히 차이가 나는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정책과제를 새로운 절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 청년층 실업상태와 특징

#### 제1절 청년층 실업률 추이

청년층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2002년에 6.6%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2003년 7.7%로 1997년보다 2%포인트나 다시 상승하였으며, 2004년 3/4분기 현재 7.2%의 실업률을 보임으로써 작년 동기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청년층의 학력별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4		3/4
전 체	560(2.6)	1490(7.0)	1374(6.3)	913(4.1)	845(3.8)	708(3.1)	756(3.3)	777(3.4)	787(3.4)
청년층	322(5.7)	655(12.2)	574(10.9)	402(7.6)	388(7.5)	341(6.6)	350(7.0)	383(7.7)	355(7.2)
고졸 이하	232(6.1)	487(15.1)	425(13.6)	281(8.9)	261(8.6)	218(7.5)	225(7.9)	239(8.4)	219(8.2)
대졸 이상	90(5.6)	168(10.0)	149(8.7)	121(6.6)	127(6.6)	123(6.1)	125(5.8)	143(6.7)	135(6.0)
경제성장률	4.7	-6.9	9.5	8.5	3.8	7.0	2.4	3.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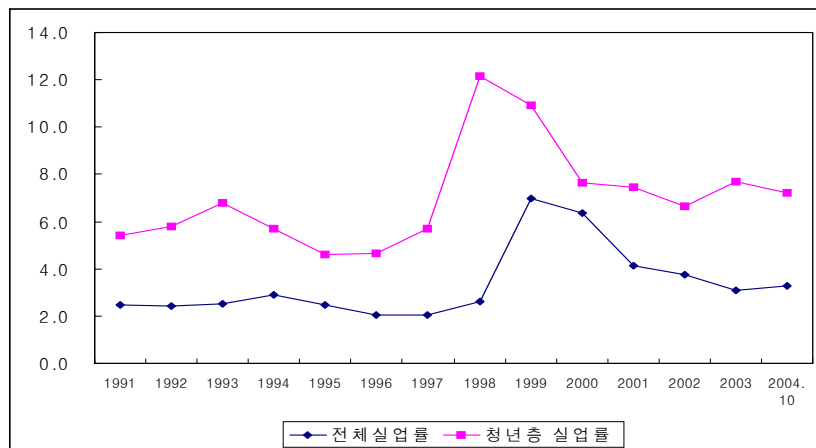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4 청년층의 실업상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고졸 이하 실업자수는 21만 9천명으로서 전체 청년층 실업자수 35만 5천명의 62%(2004년, 3/4분기)를 차지하여 고졸 이하 학력의 실업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특징을 보면, 대졸은 졸업 시점에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직업탐색기간이 예전보다 오래 소요되는 데 비하여, 고졸 이하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사이를 오가는 직업 비정착자가 많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 2-2>에서 청년층 취업자수의 변동을 보면, 15~29세 사이의 청

[그림 2-1] 청년층 실업률 추이



<표 2-2>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단위: 천명, %)

	2003. 3/4분기	2004. 3/4분기	전년동기대비		2003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22,295	22,647	353	1.6	22,139	-30	-0.1
15~29세	<b>4,633</b>	<b>4,592</b>	-41	-0.9	<b>4,607</b>	-192	-4.2
30~39세	6,159	6,157	-2	0.0	6,186	-26	-0.4
40~49세	6,044	6,210	167	2.8	6,031	175	3.0
50~59세	3,212	3,357	145	4.5	3,173	75	2.4
60세이상	2,247	2,331	85	3.8	2,142	-62	-2.8

주: 2002년 15~29세 취업자수는 4,799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년층은 2003년 460만 7천명으로서 2002년 대비 1년간 19만 2천명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2004년 3/4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2절 청년층 유휴화율

다음으로 청년층 유휴화율<sup>1)</sup>을 살펴보면, 2003년에 들어 상승하여 2004년 3/4분기 현재 17.6%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층의 20% 가량이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유휴화율에서는 고졸보다 대졸이 4.3%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졸의 체감실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청년층(15~29세)의 유휴화율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4
							3/4		
전 체	16.6	20.7	20.5	18.3	18.2	16.9	17.5	17.8	<b>17.6</b>
고졸 이하	16.1	19.7	19.6	17.5	17.3	15.9	16.4	16.9	<b>16.4</b>
대졸 이상	18.9	25	24	21.4	21.3	20.2	20.8	20.9	<b>20.7</b>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계산.

### 제3절 청년층 취업난 현황

청년층 취업난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을 실업자만이 아닌 실질적인 실업자로 분류가 가능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1) 유휴화율은 실업률로 포착할 수 없는 청년층의 체감실업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실업자수+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수)/생산가능인구수]×100으로 계산.

6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2-4>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전체)

(단위: 천명, %)

	전 체		졸업 및 중퇴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취업자	4,554.7	45.2	3,954.7	69.9
실업자(A)	354.5	3.2	288.4	5.4
비경제활동인구	5,176.7	51.3	1,327.6	24.7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B)	306.4	3.0	254.6	4.7
유휴 비경제활동인구(C)	242.3	2.4	178.5	3.3
기타 비경제활동인구(가사·육아 등)	1,027.0	10.2	894.5	16.7
재학 비경제활동인구	3,600.9	35.7	0.0	0.0
생산가능인구	10,085.9	100.0	5,370.7	100.0
중위 취업애로층=A+B	660.9	6.6	543.0	10.1
광위 취업애로층=A+B+C	903.2	9.0	721.5	1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산입할 경우(중위 취업애로계층)에는 66만명으로 나타나, 실업자수 35만명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한 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비경제활동인구까지 취업애로계층으로 산입한 광의의 취업애로계층은 90만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66만명에서 90만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심각함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5>와 <표 2-6>에서 보듯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을 고졸과 대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가 11만명 정도로서 중위 취업애로계층이 34만명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문대 포함 대졸 이상의 경우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수가 19만명이고 중위 취업애로계층이 32만명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수 통계로 잡히는 12만명의 거의 두 배가 넘는 실질적 실업자가 더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정책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나타난 실업자 숫자보다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실질적 취업애로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위 취업애로계층을 청년실업 정책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도

학력별로 고졸이 절반을 차지하므로 고졸 이하에 대한 배려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2-5〉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고졸 이하)

(단위: 천명, %)

	전 체		졸업 및 중퇴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취업자	2,411.8	33.3	1,684.2	63.5
실업자(A)	231.1	3.2	165.7	6.2
비경제활동인구	4,607.2	63.5	802.6	30.3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B)	109.9	1.5	59.3	2.2
유휴 비경제활동인구(C)	191.3	2.6	129.1	4.9
기타 비경제활동인구(가사·육아 등)	745.9	10.3	614.2	23.2
재학 비경제활동인구	3,560.1	49.1	0.0	0.0
생산가능인구	7,250.0	100.0	2,652.5	100.0
중위 취업애로층=A+B	340.9	4.7	225.0	8.5
광위 취업애로층=A+B+C	532.2	7.3	354.1	13.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표 2-6〉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대졸 이상)

(단위: 천명, %)

	전 체		졸업 및 중퇴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취업자	2,142.9	75.6	2,070.5	76.2
실업자(A)	123.5	4.4	122.7	4.5
비경제활동인구	5,695.5	20.1	525.1	19.3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B)	196.6	6.9	195.3	7.2
유휴 비경제활동인구(C)	51.0	1.8	49.5	1.8
기타 비경제활동인구(가사·육아 등)	281.1	9.9	280.3	10.3
재학 비경제활동인구	40.8	1.4	0.0	0.0
생산가능인구	2,835.9	100.0	2,718.2	100.0
중위 취업애로층=A+B	320.0	11.3	317.9	11.7
광위 취업애로층=A+B+C	371.0	13.1	367.4	1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8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2-7>에서 보듯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을 좀더 학력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자이면서도 실업자로 분류되는 숫자가 16만 5천명으로서 그 비중(6.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대졸의 경우 역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수가 10만 9천명으로서(비중 8.2%) 실업자수로는 잡히지 않지만 취업준비 중인 취업애로 계층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수’는 61만명(비중 23%)으로 다른 학력의 기타 비경제활동인구수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렇게 높게 나타나게 된 원인 및 청년실업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7> 학교를 마친 청년 취업애로층의 학력별 구직행태 차이(2004년 10월)  
(단위: 천명, %)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취업자	1,684.2 (63.5)	1,077.1 (76.4)	944.6 (76.1)	48.8 (73.3)
실업자	165.7 (6.2)	68.5 (4.9)	51.0 (4.1)	3.2 (4.8)
취업준비 비경활	59.3 (2.2)	79.8 (5.7)	109.9 (8.9)	5.6 (8.4)
유휴 비경활	129.1 (4.9)	33.6 (2.4)	15.1 (1.2)	0.7 (1.1)
기타 비경활	614.2 (23.2)	151.2 (10.7)	120.9 (9.7)	8.2 (12.4)
생산가능인구	2,652.5 (100.0)	1,410.2 (100.0)	1,241.5 (100.0)	66.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취업애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미구직 사유로는 ‘근로조건 불만족’이 29.7%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실망실업을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등의 숙련 불일치가 24.8%를 차지하였고,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라는 취업 기회의 부족에 따른 실망실업이 23.2%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애로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경우에도 ‘직전 주 취업희망’한 경우가 10.7%로서 실업자로 분류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청년층 취업애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희망 여부 및 미구직 사유  
(단위: 천명, %)

		취업준비 비경황	유휴 비경황	취업애로 비경황
전 체		254.58	178.54	433.11
직전 주 취업희망		24.91 [9.8]	21.57 [12.1]	46.48 [10.7]
미구직 사유	전공경력 불일치	6.89 (27.6)	1.19 (5.5)	8.07 (17.4)
	근로조건 불만족	7.45 (29.9)	6.37 (29.5)	13.81 (29.7)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0.79 (3.2)	2.42 (11.2)	3.21 (6.9)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2.52 (10.1)	0.94 (4.3)	3.45 (7.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4.49 (18.0)	6.28 (29.1)	10.76 (23.2)
	기타	2.79 (11.2)	4.38 (20.3)	7.17 (15.4)

주: [ ]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며, ( )안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음에도 구직하지 않은 사유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 제4절 청년층 실업률의 국제비교

청년층 실업률을 국제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대비 2.7배로서 OECD 평균 1.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청년(15~24세) 실업률의 국제비교(2003년)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전체실업(A)	3.5	6.1	5.4	9.3	9.4	4.9	6.9
청년실업(B)	9.6	12.4	10.2	20.2	10.6	11.5	13.3
<b>B/A</b>	<b>2.7</b>	2.0	1.9	2.2	1.1	2.3	1.9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제 3 장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분석

#### 제1절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대졸자수는 18만명이, 즉 55.9%가 증가하여 대졸인력의 공급이 급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대졸인력 공급 추이

		1985	1995	2003
대졸자수 (전문대 포함)		215천명	324천명	505천명
대학 진학률	일반계	58.8%	72.8%	90.1%
	실업계	13.3%	19.2%	57.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현재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주요기업(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1996년보다 23만여 개로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대졸자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주요 기업들의 고용추이를 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취업자수의 31%로서 1996년의 41.4%와 비교하여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또한, 신규채용자

중 청년의 비중도 1996년의 77.9%에서 2004년 현재 67.8%로 10%포인트 감소하여 청년층 채용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경력자 채용비중을 보면, 2004년 현재 79.0%로서 1996년의 39.6%에서 약 40%포인트 증가하여 경력직 채용이 계속 확대되고 일반화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경우, 졸업 후 곧바로 주요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기업이 아닌 업체에 취업한 후 능력을 배양한 다음 주요기업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 주요기업들의 채용추이

(단위: 천명,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취업자수(A)	1,542	1,581	1,469	1,338	1,320	1,264	1,246	1,272	1,310
청년 취업자수(B)	638	643	562	467	445	399	372	369	406
비중(B/A)	(41.4)	(40.6)	(38.2)	(34.9)	(33.7)	(31.6)	(29.9)	(29.0)	(31.0)
신규 채용자수(C)	181	166	146	231	257	156	157	147	72
청년 신규 채용자수(D)	141	125	93	157	183	107	106	105	49
비중(D/C)	(77.9)	(75.5)	(63.6)	(67.9)	(71.0)	(68.7)	(67.6)	(71.5)	(67.8)
경력자 채용비중	39.6	43.1	61.9	75.9	77.0	81.0	79.5	70.7	79.0

주: 1) 주요기업은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에 속한 기업임.

2) 근로자수 측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5일임.

3) 1998년 10월 임시직으로,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력자 채용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음에 주의.

자료: 고용보험전산망.

청년 취업난으로 청년 일자리 총수는 1996년의 542만개에서 2003년에는 461만개로 7년 사이에 81만여 개가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 비율도 1996년의 26%에서 2003년에는 20.8%로 5.2%포인트 하락하였다.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의 46.2%에서 2003년 현재 44.4%로 1.8%포인트 줄어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3-3 참조).

12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3-3〉 청년 취업자수 및 청년 취업자 비율 추이

	1996	2003	증감
청년 취업자수	5,421천명	4,606천명	△815천명
전체 취업자 중 청년비율	26.0%	20.8%	△5.2%p
청년취업자/청년인구 비율	46.2%	44.4%	△1.8%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모든 학력수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4〉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단위: %)

	전 체		청년층 임시일용직 비중			
	근로자수 (천명)	임시일용직 비중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6	1,910.2	8.2	11.6	15.1	8.3	3.9
1997	1,809.0	8.5	12.3	16.2	10.7	4.2
1998	1,730.1	9.7	13.3	17.4	8.1	8.4
1999	1,601.8	12.5	21.0	24.8	19.0	16.6
2000	1,622.7	13.5	22.5	29.1	17.5	15.2
2001	1,655.9	12.7	20.2	27.9	15.5	11.3
2002	1,629.7	13.2	21.6	30.8	17.0	10.8
2003	1,789.1	10.7	19.0	29.5	12.9	10.2
2004. 6	1826.4	10.1	18.4	26.8	14.1	11.9

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6월 현재 각각 49.5%, 49.6%로 비슷하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제2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1. 첫 취업 소요기간 평균 12개월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년 5월).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가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8.7%로 나타났다.

〈표 3-5〉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 기간 분포

(단위: 천명, %)

	졸업/중 퇴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3개월 미만	3~6개 월 미만	6월~1 년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2004. 5	5,174	5,011 (100.0)	2,811 (56.1)	568 (11.3)	423 (8.4)	538 (10.7)	235 (4.7)	436 (8.7)	11개월
2003. 5	5,179	4,968 (100.0)	2,678 (53.9)	547 (11.0)	412 (8.3)	556 (11.2)	277 (5.6)	498 (10.0)	12개월
2002. 6	5,439	5,008 (100.0)	2,666 (53.2)	644 (12.9)	418 (8.4)	552 (11.0)	267 (5.3)	461 (9.2)	11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2003. 5, 2004. 5.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따라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살펴보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3-6〉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별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단위: %)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졸업·중퇴 이전	32.7	16.4	30.6	20.2
3개월 미만	38.1	16.2	26.3	19.3
3~6개월 미만	43.3	18.8	24.3	13.6
6개월~1년 미만	43.4	16.2	24.2	16.2
1~2년 미만	42.7	16.1	24.0	17.2
2~3년 미만	40.8	20.3	21.8	17.1
3년 이상	49.2	20.2	21.0	9.6
전 체	39.6	17.1	25.9	17.4

주: 학교를 마친 청년 취업경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2004. 5.

## 2.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으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취업한 청년층에 대하여 본인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과 현재의 일자리를 비교할 때의 불일치 정도를 학력별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또한 자신의 전공계열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에 이르고 있다. 하향취업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전공별 일자리 불일치는 대졸자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정보화와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기업의 인력수요 패턴은 급변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은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첫 일자리 선택의 잘못된 잣은 이직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7〉 일자리 불일치

(단위: %)

		과잉	적정	과소
교육수준	고졸 이하	18.5	80.1	1.4
	전문대졸	25.0	74.2	0.9
	대졸	21.8	75.9	2.3
	전체	19.8	78.6	1.5
		과잉	적정	과소
기술 및 기능수준	고졸 이하	17.8	80.9	1.3
	전문대졸	22.7	76.0	1.2
	대졸	21.6	76.1	2.3
	전체	19.1	79.4	1.5
		불일치	적정	일치
전공·계열	고졸 이하	32.8	66.7	0.5
	전문대졸	30.1	68.0	1.9
	대졸	37.4	61.6	1.0
	전체	32.9	66.3	0.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가구조체조사』 5차년도(2002년) 조사 자료. 전공 및 계열은 3차년도(2000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 제3절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문제

#### 1.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고용규모 과소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수를 보면, 중견기업 규모라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장의 취업자 규모가 전체의 22.0%에 불과하여, 금융위기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요 대기업에서 격감된 노동수요를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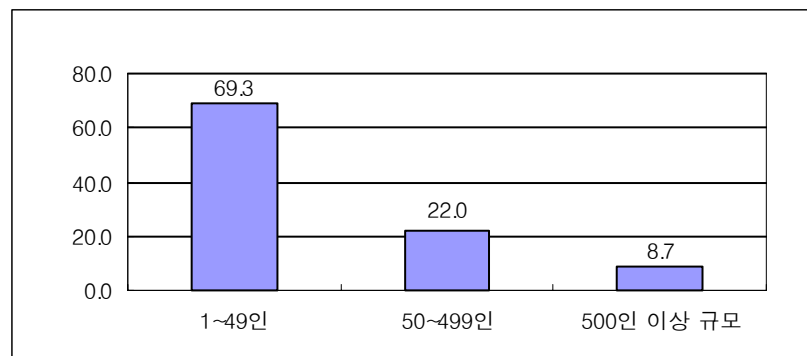
16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체할 중견기업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규모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사업장의 경우 2004년 1~10월은 61.2%에 불과하여 1989년 74.2%, 1999년 68.1%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법정외복리비, 근로시간,

[그림 3-1] 사업장 규모별 취업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2.

<표 3-8> 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2003~2004년)

(단위: %, 천원, 시간)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임금격차 <sup>1)</sup>	61.2	66.3	74.0	83.4	100.0(3,108)
법정외복리비 <sup>2)</sup>	68.5	71.7	78.6	88.4	100.0(161.3) <sup>3)</sup>
총근로시간수 <sup>2)</sup>	100.0	103.5	105.9	102.8	100.0(194.8) <sup>4)</sup>
산업재해율 <sup>2)</sup>	1.14	0.79	0.53	0.47	0.51

주: 1) 2004년 1~10월 1989년 10~29인의 임금수준 74.2%, 1999년 68.1%와 격차 심해짐.

2) 2003년.

3) 500~999인.

4) 월근로시간수.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각년도; 『기업체 노동비용』, 각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2003.

산업재해를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3-8 참조).

학교를 졸업한 실업자 중 취업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중이 9.3%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가 31.5%로 아주 높게 나타나며, ‘시험, 면접 후 대기’를 제외하면 거의 6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졸 이하의 경우 미취업사유로 ‘근로조건 불만족’에 44% 정도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고졸 학력 수준의 경우, 근로조건 및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표 3-9〉 청년 실업자의 미취업 사유

(단위: 천명, %)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실업자		288.38	165.72	68.47	54.19
취업제의를 받음		26.82 [9.3]	15.60 [9.4]	9.04 [13.2]	2.18 [4.0]
미취업 사유	전공, 경력 불일치	2.76 (10.3)	1.42 (9.1)	0.94 (10.4)	0.40 (18.2)
	근로조건 불만족	8.43 (31.5)	6.85 (43.9)	1.59 (17.6)	
	회사 장래성 없음	0.65 (2.4)		0.65 (7.2)	
	시험, 면접후 대기	11.05 (41.2)	6.59 (42.2)	4.06 (44.9)	0.41 (18.6)
	기타	3.93 (14.7)	0.74 (4.8)	1.81 (20.0)	1.38 (63.2)

주: [ ]안은 취업제의를 받은 실업자의 비중이며, ( )안은 취업제의를 받고서 취업하지 않은 사유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 2.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외국인 근로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13만 3천명, 2.66%로서 전체 부족인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함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이 나타나는 실업난 속의 인력난이라는 괴리현상이 병존하고 있다. 2003년의 부천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천시지역은 기계 장

18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비제조업, 광학 등 성장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망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정밀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생산기능직 부족률이 15%로서 기능인력 부족을 애로요인 중 1순위로 꼽고 있다(정인수·윤진호, 2003). 한편, 부산지역 노동수요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정인수 외, 2004).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은 3.93%, 부족인원 7만 5천명으로서 제조업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전산업 부족인원 13만 3천명의 56%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생산관련직 부족률은 5.2%, 단순 노무직 4.6%, 관리·전문·기술직 2.1%를 보여, 생산직 부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90년 이후의 인력부족률의 감소는 [그림 3-3]에서 보듯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메워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능직은 외국인 근로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생산인력의 자체 양성이 중요한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작용할 경우 양쪽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3-10〉 사업체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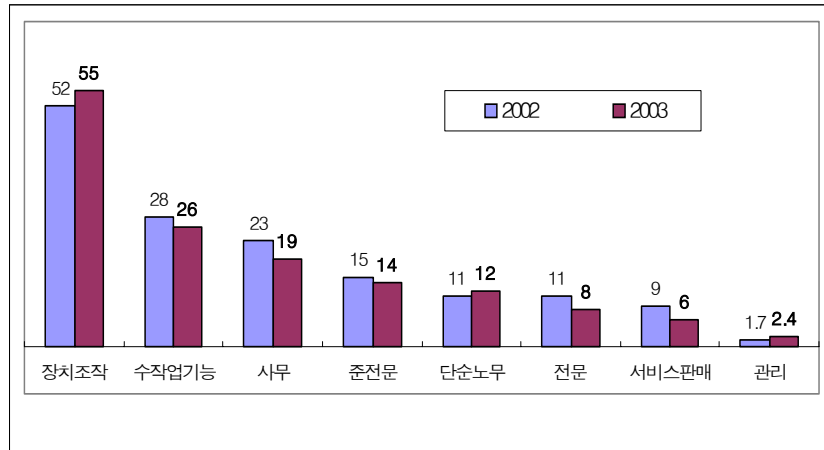
(단위:명, %)

		전규모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미만(소계)	300~499인	500인 이상
2003	부족인원 (구성비)	141,126 (100)	34,153 (24.2)	41,459 (29.4)	33,508 (23.7)	24,085 (17.1)	133,205 (94.4)	4,185 (3.0)	3,736 (2.6)
	부족률	2.18	3.59	2.74	2.28	2.22	2.66	1.16	0.34
2002	부족인원 (구성비)	149,556 (100)	40,902 (27.3)	44,879 (30.0)	33,505 (22.4)	19,866 (13.3)	139,152 (93.0)	3,096 (2.1)	7,308 (4.9)
	부족률	2.49	4.53	3.08	2.43	2.04	2.95	1.03	0.73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2003년 4월 기준 조사.

[그림 3-2] 직종별 부족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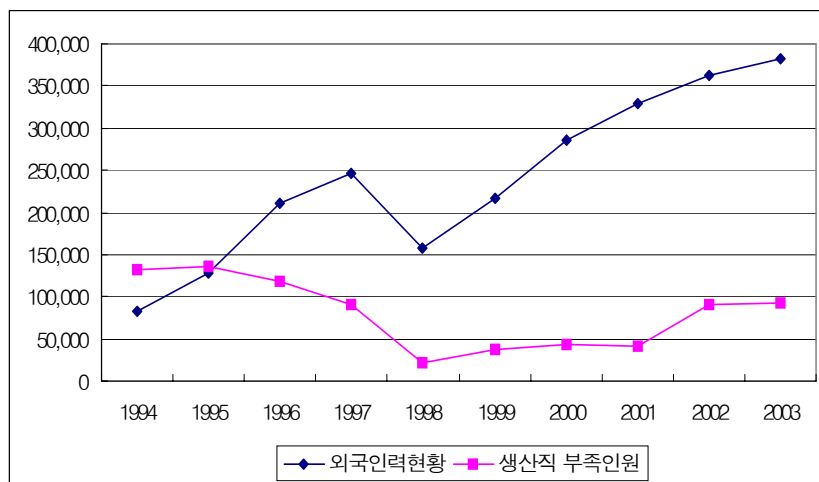
(단위: 천명)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2003.

[그림 3-3] 생산관련직 부족인원 및 단순기능 외국인력 추이

(단위: 명)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법무부 내부자료.

20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3-11〉 외국인 인력 체류 현황

(단위: 명, %)

	1995	2000	2004. 9
전 체	128,906 (100.0)	254,178 (100.0)	423,597 (100.0)
취업비자	8,228 (6.4)	15,496 (6.1)	209,390 (49.4)
비전문취업자 (고용허가제)	-	-	144,234 (34.1)
연수비자	38,812 (30.1)	75,321 (29.6)	32,708 (7.7)
불법체류자	81,866 (63.5)	163,361 (64.3)	181,499 (42.8)

주: 비전문취업자는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하여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 제4절 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부족 등 노동시장인프라 문제

### 1. 고용안정 서비스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

취업경험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연고를 통한 취업이 51.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신문·인터넷 등에 의한 경로가 26.3%를 보임에 비하여,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과 취업박람회 등의 경로를 통한 취업은 2%에 불과하여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자의 경우의 구직경로를 보더라도 연고가 21.7%, 신문·인터넷이 63.5%임에 비하여 공공직업알선이 0.9%로 가장 낮은 것은 고용안정인프라가 취약함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부산지역 14개 대학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결과(2003. 9)에 의하면<sup>2)</sup>, 구직경로로서 공공고용안정기관을 통한 구직은 1.4%에 불과하며, 취업

2) 정인수 외,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2004 참조.

〈표 3-12〉 학교를 마친 청년층 취업경험자의 취업 경로

(단위: %)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연고 취업	가족·친지 소개(추천)	27.6	35.2	24.8	15.8	5.1
	그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12.3	14.4	10.9	8.7	17.4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10.7	10.2	12.2	9.6	16.7
공개시험		13.0	4.4	12.5	31.1	38.9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		26.3	26.0	28.8	24.9	9.0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취업박람회		2.0	1.9	2.4	1.8	1.9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1.6	1.5	2.2	1.2	0.0
기타		6.5	6.4	6.0	6.9	1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4. 5.

〈표 3-13〉 학교를 마친 청년층 실업자의 구직 경로

(단위: %)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연고	학교, 학원 추천	1.8	1.7	0.5	3.6
	친구, 친지 소개	19.9	24.7	18.5	7.0
공공직업알선기관 등록		0.9	0.9	0.5	1.5
민간직업알선기관 등록		0.2	0.3	0.0	0.0
취직시험 응시		4.6	2.5	4.2	11.3
신문,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		63.5	60.0	67.9	68.4
사업체 방문		5.9	6.6	4.4	5.5
자영업 준비		3.3	3.3	3.9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 10.

촉진을 위해서 대학을 비롯한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로서 응답자들의 47.6%가 ‘채용박람회’라고 응답하는 등 고용안정서비스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대졸예정자들의 62%가 하향취업 의사를, 47%가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희망 연봉수준도 부산의 대학 중 A급 학교 출신은 1,800만원, B급은 1,500만원, C급은 1,200만원을

22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원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인프라만 구축되더라도 취업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결과(2003. 9, 40%는 고졸학력)의 경우에도 하향취업(72.4%), 비정규직 취업의사(62.7%)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청년구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경로는 6%에 불과하였다.

〈표 3-14〉 부산지역 대졸예정자 하향 취업의사 및 비정규직 취업의사 여부  
(단위: 명, %)

	하향 취업의사 여부	비정규직 취업의사 여부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예	<b>871 (61.9)</b>	<b>661 (46.9)</b>
아니오	535 (38.1)	749 (53.1)
전 체	1,406 (100.0)	1,410 (100.0)

〈표 3-15〉 부산지역 대졸예정자 취업촉진을 위하여 대학 및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개최해야 될 행사  
(단위: %)

행사 내용	전 체		
	순위(비율)	남 성 순위(비율)	여 성 순위(비율)
채용박람회	<b>1 (47.6)</b>	<b>1 (47.3)</b>	<b>1 (48.4)</b>
취업촉진프로그램	2 (23.0)	3 (20.5)	2 (25.7)
취업설명회	3 (18.3)	2 (22.6)	4 (12.7)
취업특강	4 (10.7)	4 (9.2)	3 (12.9)
기타	5 (0.4)	5 (0.4)	5 (0.3)
전 체	1,411 (100.0)	754 (100.0)	622 (100.0)

## 2. 직업훈련 요구

부산지역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청년구직자 실태조사결과(2003. 9)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취업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80%에 달하지만 직업훈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단지 27.1%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구직자들의 경우 직업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2.5%나 되지만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7.8%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원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7%)’,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28.8%)’라고 응답하였다.

부산지역 14개 대학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결과(2003. 9)에 의하면, 대졸예정자의 직업훈련 수강요구가 70%이지만 정작 직업훈련 수강경험은 어학, 컴퓨터 등 기초적 소양 정도에 불과하였다. <표 3-18>에서 보듯이, 직업훈련 관련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교육훈련 대상 직종의 다양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16>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대학취업보도실 방문자)

(단위:명, %)

	직업훈련 수강 희망 여부		직업훈련 수강 경험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수강한 적 있음	수강한 적 없음
빈도(비율)	<b>989(69.9)</b>	426(30.1)	<b>389(27.6)</b>	1,020(72.4)
전 체	1,415(100.0)		1,409(100.0)	

<표 3-17> 직업훈련 수강 희망 및 경험 여부(고용안정센터 방문자)

(단위:명, %)

	직업훈련 수강 희망 여부		직업훈련 수강 경험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수강한 적 있음	수강한 적 없음
빈도(비율)	<b>1,056(62.5)</b>	634(37.5)	<b>626(37.8)</b>	1,032(62.2)
전 체	1,690(100.0)		1,658(100.0)	
결측값의 개수	27		59	



〈표 3-1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순위(비율)	순위(비율)	순위(비율)
<b>교육훈련 대상 직종이 다양하게 개설될 필요가 있다</b>	<b>1 (47.7)</b>	<b>1 (45.8)</b>	<b>1 (50.0)</b>
교육훈련과정이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2 (25.7)	2 (28.7)	2 (21.9)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과과정이 있다	3 (20.7)	3 (21.4)	3 (20.0)
교육훈련 수강생들간의 수준차이가 크다	4 (3.2)	4 (2.1)	4 (4.4)
기타	5 (2.7)	5 (2.0)	5 (3.7)
전 체	921 (100.0)	513 (100.0)	406 (100.0)

### 3. 고용안정인프라 예산의 선진국과의 비교 및 공공고용안정 서비스의 문제점<sup>3)</sup>

공공고용안정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예산의 GDP 대비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0.31%로서 OECD 선진국 평균의 1/3에 불과하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적어도 OECD 평균이나 스페인 규모만큼이라도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고용안정서비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취업알선 부문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0.05%로서 5개국 평균인 0.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소수의 인원과 과다한 업무량을 들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공고용안정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수도 한국은 2004년 3월 현재 9,572명으로 외국에 비해 많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적용 확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

3) 고용안정인프라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는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2004)에서 상론하고 있으므로 참조.

〈표 3-19〉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 GDP 대비  
(단위 : %)

	1980	1990	1999	2000	2001
덴마크	0.43	1.09	1.79	1.58	-
핀란드	0.98	0.99	1.23	1.00	0.94
아일랜드	-	1.38	-	-	1.14
네덜란드	0.66	1.05	1.72	1.68	1.74
프랑스	-	0.81	1.38	1.31	1.29
독일	-	0.92	1.31	1.23	1.18
영국	0.56	0.59	0.36	0.37	0.36
미국	0.16	0.22	0.15	0.15	0.15
일본	-	0.12	0.29	0.29	0.28
한국	-	<b>0.25</b>	0.70	0.49	0.31
스페인	0.18	0.83	0.98	0.94	0.85
OECD 평균			0.99	0.90	0.82

주: OECD 평균은 1인당 GDP 1만달러 이상인 나라들 평균.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2001 Edition.

\_\_\_\_\_, *Employment Outlook*, 2004.

〈표 3-20〉 선진국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예산/GDP 비율(2002년)  
(단위 :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평균
취업알선	0.05	0.17	0.23	0.18	0.04	0.18	0.16
GDP(경상가격) (화폐단위는 주 참조)	684,263	1,044	4,128	10,025	10,487	498,102	

주: 1)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

2) 단위 : 유럽 10억유로, 미국 10억달러, 일본 10억엔, 한국 10억원.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청년실업대책의 추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고용안정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을 분석하면, 고용보험업무

가 42.1%, 직업능력개발업무 10.0%, 기타 행정업무 1.8%, 그리고 취업 지원 46.2%로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이 절반에 미달하며, 취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603명으로 전체 인력의 25.2%에 불과하다. 이는 하나의 고용안정센터당 3~5명의 인력만 취업알선에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상담원은 본연의 업무인 취업지원보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업무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월부터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고용안정센터는 지역의 종합적 취업센터라기보다 노동행정기구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3-21〉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인력의 비교

	일본 (1997)	독일 (2001)	영국 (1997)	미국 (1997)	한국 (2004.3)
직원수(명)	15,324	85,840	35,992	70,682	2,393
경제활동인구(천명)	67,650	40,121	29,470	143,006	22,906
직원1인당 경제활동인구(명)	4,415	467	819	2,023	9,572

자료: ILO,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2001.

셋째, 조직 및 인력관리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행정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보면, 현재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 전달체계는 ‘노동부 본부(노동시장기구과) → 고용안정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10여 명의 직원이 있는 노동부의 노동시장기구과가 전국의 고용안정조직 및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 System)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앙의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사이의 부조화 및 문화적 갈등이 심각하다. 직업상담원이 전문적 직업상담업무보다는 노동부 일반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비중이 높아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신분 종속관계로 인하여 정규 공무원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2004년부터 민간인 직업상담원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57세까지 자동갱신되도록 함으로써 신분의 불안정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지만, 승진·계약·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안감이 잔존한다.

다섯째, 고용안정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기초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이 부족하다. 즉 수요자의 특성별 심층서비스가 미흡하다. 고용보험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구인·구직알선 및 단순한 상담서비스 등은 제공되고 있으나 심층상담, 진로지도 등의 맞춤형서비스(tailored service)는 부족한 실정이다. 심층상담프로그램, 계층별(여성, 장기실업자, 청소년, 자영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고용정보의 모니터링(monitoring), 새로운 일자리 개척,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며, 청소년, 중장년층 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가 불충분하여 고용안정센터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다.

일곱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 특히,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즉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가 중앙부처 또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시스템간의 호환성이 낮고 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내에서도 고용보험전산망, 고용정보전산망, 직업지도시스템, 터치스크린이 개발되어 있으나 별도의 운영체제 및 개발환경으로 정보의 교류가 곤란하며, 공공과 민간부문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이의 정보연계가 불완전한 실정이다.

## 제 4 장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개 요

##### 1. 조사의 개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100개 4년제 대학교, 75개 전문대학, 100개 인문계 고등학교와 100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부 각급 학교 수에서 무작위 추출<sup>4)</sup>하여 4년제 대학교에 학교당 15부, 전문대학 20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각 10부씩 각각 1,500부, 1,500부, 1,000부, 1,000부 합계 5,000부의 설문지를 각 학교에 보내어 개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청년층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이고,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 동안이었다. 5,000부 중 3,595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71.9%), 그 중 유효한 자료는 3,503개이며, 대상학교별 응답수는 <표 4-1>과 같다.

---

4) 전국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고등학교 수는 <부록 1>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초중고대학 주소록에 의거해 전국 4년제 대학교(211개), 전문대학(158개), 실업계 고등학교(755개), 인문계 고등학교(1,254개)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설문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

## 2. 조사 표본의 특성

### 가. 조사 표본의 학교 및 지역 분포

실태조사 유효 응답자는 3,503명이고, 4년제 대학교의 비율은 31%, 전문대학은 36.6%, 실업계 고등학교는 19.2%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13.2%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비율은 51.4%(1,799명), 여성의 비율은 48.6%(1,704명)이고, 각 대상별 성비는 반반이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1〉 대상별 실태조사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남성(비율)	여성(비율)
	응답수	비율		
<b>전 체</b>	<b>3,503</b>	<b>100.0</b>	<b>51.4</b>	<b>48.6</b>
4년제 대학교	1,087	31.0	50.6	49.4
전문대학	1,283	36.6	50.9	49.1
실업계 고등학교	672	19.2	50.3	49.7
인문계 고등학교	461	13.2	56.0	44.0

응답수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15.1%)’의 비중이 가장 높고, ‘울산지역(1.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응답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서울의 응답수가 높은 이유는 4년제 대학교의 분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전문대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응답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울산지역의 응답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우선, 울산지역이 제주도와 더불어 학교 수뿐 아니라 설문이 회수된 학교 수도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 광주 지역의 여성의 비율이 60%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5) 지역별·대상별 설문 회수된 학교의 분포는 <부록 2> 참조.

30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4-2〉 실태조사의 지역별 응답수

(단위:명, %)

	전 체		남성(비율)	여성(비율)
	응답수	비율		
전 체	3,474	100.0	51.4	48.6
경 기	<b>523</b>	<b>15.1</b>	<b>57.7</b>	<b>42.3</b>
서 울	509	14.7	46.0	54.0
경 북	382	11.0	59.9	40.1
강 원	258	7.4	45.3	54.7
충 남	231	6.6	55.8	44.2
부 산	207	6.0	<b>37.7</b>	<b>62.3</b>
전 북	186	5.4	47.8	52.2
경 남	186	5.4	56.5	43.5
대 구	173	5.0	52.0	48.0
전 남	161	4.6	59.6	40.4
충 북	149	4.3	51.7	48.3
대 전	146	4.2	43.8	56.2
광 주	131	3.8	<b>39.7</b>	<b>60.3</b>
인 천	114	3.3	55.3	44.7
제 주	78	2.2	57.7	42.3
울 산	40	1.2	42.5	57.5

나. 대상학교별 전공 및 기타 사항

1)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전공계열을 살펴본 결과, 공학계(2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인문학계(18%), 사회계(15%), 어문학계(1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학계(0.4%)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공별로 성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나타났다.

〈표 4-3〉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전공계열

(단위:명, %)

	전 체		남성(비율)	여성(비율)
	응답수	비율		
전 체	1,071	100.0	50.5	49.5
공학계	309	<b>28.9</b>	<b>71.2</b>	<b>28.8</b>
인문학계	190	<b>17.7</b>	53.2	46.8
사회계	158	<b>14.8</b>	<b>37.3</b>	<b>62.7</b>
어문학계	140	<b>13.1</b>	<b>30.0</b>	<b>70.0</b>
이학계	72	6.7	52.8	47.2
예술학계	56	5.2	<b>28.6</b>	<b>71.4</b>
사범계	45	4.2	42.2	57.8
기타	42	3.9	<b>61.9</b>	<b>38.1</b>
체육학계	22	2.1	50.0	50.0
가정학계	14	1.3	<b>14.3</b>	<b>85.7</b>
수산해양학계	11	1.0	45.5	54.5
의약학계	8	0.7	<b>0.0</b>	<b>100.0</b>
농림학계	4	0.4	50.0	50.0

##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공학계(41%)’가 가장 많고, ‘인문사회계(24%)’, ‘예술계(1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별로 성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32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4-4〉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계열

(단위:명, %)

	전 체		남성(비율)	여성(비율)
	응답수	비율		
전 체	1,264	100.0	51.0	49.0
공학계	521	<b>41.2</b>	<b>72.0</b>	28.0
인문사회계	301	<b>23.8</b>	34.9	<b>65.1</b>
예술계	152	<b>12.0</b>	30.9	<b>69.1</b>
기타	86	6.8	44.2	55.8
의약학계	70	5.5	34.3	<b>65.7</b>
체육계	34	2.7	<b>67.6</b>	32.4
이학계	32	2.5	50.0	50.0
어학계	24	1.9	33.3	<b>66.7</b>
농림학계	22	1.7	22.7	<b>77.3</b>
사범계	19	1.5	15.8	<b>84.2</b>
수산 및 해양계	3	0.2	33.3	<b>66.7</b>

3) 실업계 고등학교<sup>6)</sup>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답자의 전공계열 중 ‘상업(정보)계(52%)’의 비율이 가장 많고, ‘공업계(39%)’가 그 다음이며, ‘수산 및 해양계(0.3%)’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역시 전공에 따라 성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6)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공이 없어 보고 하지 않음.

〈표 4-5〉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전공계열

(단위:명, %)

	전 체		남성(비율)	여성(비율)
	응답수	비율		
전 체	664	100.0	50.3	49.7
상업(정보)계	344	<b>51.8</b>	20.1	<b>79.9</b>
공업계	256	<b>38.6</b>	<b>90.2</b>	9.8
농업계	42	6.3	<b>64.3</b>	35.7
예체능계	10	1.5	30.0	<b>70.0</b>
기타	10	1.5	40.0	<b>60.0</b>
수산 및 해양계	2	0.3	0.0	<b>100.0</b>

##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대상학교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구직현황, 희망직업,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과 정부 청년실업대책,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과 고용안정센터에 대해 실태분석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학력별로 나누어 실태분석을 하였고, 성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성별을 포함한 실태분석 내용을 보고한다.

### 1. 구직현황

#### 가. 구직활동 여부

전체 3,463명 중 1,796명(52%)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전문적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59%) 및 사회에 받을 디더야 하는 4년제 대학교(58%) 졸업

34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예정자의 구직활동여부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대상학교별로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구직활동이 많으나, 전문대학의 여학생이 특히 활발한 구직활동(58%)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전문대 전체 응답자 중 여성비율이 49%).

〈표 4-6〉 대상학교별 · 성별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전체	구직활동 해봄		남성	여성
	응답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3,463	1,796	51.9	51.7	48.3
4년제 대학교	1,078	621	57.6	52.0	48.0
전문대학	1,266	739	58.4	41.9	58.1
실업계 고등학교	664	370	55.7	53.0	47.0
인문계 고등학교	455	66	14.5	49.8	50.2

나. 구직경로

응답자들의 주요 구직경로는 ‘연고를 이용한 구직(40.5%)’,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서(23.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경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분화된 연고를 통한 구직경로를 하나의 분류로 통합하면 연고를 통한 구직경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학교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34%)’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직경로였고, ‘연고의 비중(28%)’이 다른 대상학교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연고를 통한’ 경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중 특히 ‘학교(학원)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26%)’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주요 구직경로로 ‘연고(61%)’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3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들도 이보다는 비중이 다소 낮지만 또한 경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도 또한 '연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0%),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23%)'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해서(0.5%)'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대상학교별 주요 구직경로

(단위: 명, %)

		전 체		4년제	전문	실업계	인문계
		응답수	비율	대학교	대학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 체		3,442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고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687	20.0	9.3	21.9	38.8	12.2
	친구나 선배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318	9.2	9.6	8.1	9.1	12.0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305	8.9	6.0	6.2	11.5	19.5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81	2.4	2.8	2.7	1.7	1.4
<b>연고를 통한 구직경로 합계</b>		<b>1,391</b>	<b>40.5</b>	<b>27.7</b>	<b>38.9</b>	<b>61.1</b>	<b>45.1</b>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		808	23.5	34.4	25.6	6.1	16.7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666	19.3	18.6	20.6	15.9	22.6
학교 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247	7.2	10.8	6.5	7.1	0.5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		114	3.3	2.1	3.0	3.8	6.3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64	1.9	0.6	1.3	4.2	3.2
공공/시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42	1.2	2.0	1.2	0.2	1.1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해		34	1.0	1.4	0.9	0.6	0.7
인력파견업체를 통하여		29	0.8	1.0	1.2	0.3	0.2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24	0.7	0.7	0.1	0.3	3.2
기타		23	0.7	0.8	0.7	0.5	0.5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1.2%)’는 낮게 나타나나 고용안정 센터 방문은 <표 4-7>을 참조할 때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에 대한 비율은 아직은 낮으나 인지, 방문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다.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의 응답자에 대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크루트, 잡코리아 등)(42%)’,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학교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크루트, 잡코리아 등)’를 50% 이상이 이용하고,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크루트, 잡코리아 등)’를 이용하긴 하지만, 대졸 위주의 인터넷 사이트의 채용정보로 인하여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표 4-8>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21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1,447	<b>42.3</b>	<b>51.1</b>	<b>51.3</b>	20.3	26.9
해당사항 없음	762	<b>22.3</b>	12.4	13.4	<b>38.8</b>	47.9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	501	<b>14.6</b>	<b>20.4</b>	11.5	<b>16.5</b>	6.7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289	8.4	7.5	11.5	6.3	5.1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213	6.2	3.2	6.3	9.6	8.6
기타	209	6.1	5.4	5.9	8.5	4.9

‘해당사항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15%)’를 이용하는 응답수가 사설온라인 채용정보업체 다음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학교의 취업정보실과 노동부 고용안정망의 연계 및 직업상담사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와 실업계 고졸들에 대한 취업정보실 구축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라. 구직정보 수집 빈도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빈도는 월 1~2회가 가장 많으며(35.6%) 정도이며, 평균 2.3회로 나타났다. 대상학교별로 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월 4회 이상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38.5%)이 가장 많고, 월평균 3.1회로 전체 응답자의 구직정보 수집 빈도의 월평균보다 1회 가량 많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월 1~2회 정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는 월 4회 이상으로 나타나며, 구직정보 수집 빈도는 월평균 2.2회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는 구직정보 수집 빈도가 월평균 약 1.5회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등

〈표 4-9〉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빈도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338	100.0	100.0	100.0	100.0	100.0
월 4회 이상	782	23.4	<b>38.5</b>	22.9	10.3	6.2
월 3~4회	556	16.7	14.9	18.7	16.7	14.8
월 1~2회	1,188	<b>35.6</b>	27.9	<b>39.1</b>	<b>43.2</b>	33.5
2~3개월에 1회 이하	812	24.3	18.7	19.3	29.8	<b>45.5</b>
<b>월평균(회)</b>		<b>2.3</b>	<b>3.1</b>	<b>2.2</b>	<b>1.7</b>	<b>1.4</b>

주: 설문문항 중 월 4회 이상일 경우, 주 몇 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하였음.

학교는 학교의 추천에 의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아래 단락 [바.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을 보면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보아, 구직정보를 어디서 수집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정보 수집 빈도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에 대한 일자리 기회의 제공과 구직정보 집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마. 이력서 제출 횟수

3~6개월 사이에 이력서를 제출한 횟수는 0~5회가 8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3~6개월간 평균 횟수는 4.5회로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3~6개월간 이력서를 낸 평균 횟수가 6.3회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3~6개월간 이력서를 4.3

〈표 4-10〉 이력서 제출 횟수에 대한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2,104	100.0	100.0	100.0	100.0	100.0
<b>0~5회</b>	<b>1,768</b>	<b>84.0</b>	<b>71.3</b>	<b>88.1</b>	<b>97.6</b>	<b>89.9</b>
<b>6~10회</b>	<b>224</b>	<b>10.6</b>	<b>17.0</b>	<b>9.3</b>	<b>2.2</b>	<b>7.9</b>
11~20회	74	3.5	7.7	1.6	0.3	2.2
21~30회	21	1.0	2.3	0.4	0.0	0.0
31~50회	10	0.5	1.1	0.2	0.0	0.0
51~100회	3	0.1	0.4	0.0	0.0	0.0
101회 이상	4	0.2	0.1	0.3	0.0	0.0
<b>평균</b>		<b>4.53</b>	<b>6.27</b>	<b>4.27</b>	<b>2.07</b>	<b>3.13</b>
최대값		350	121	350	11	19

주: 설문에 연속형 변수로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평균과 최대값을 구하였고, 편의를 위해 회를 구분하여 빈도를 표시함.

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3~6개월간 평균 횟수가 2~3회 정도로 나타났다.

#### 바.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이 42%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교(50.3%)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46.3%)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졸업예정자와 달리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따라서 정보 집적에 대한 공공기관 차원의 투자 및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고졸들의 경우 일자리 자체의 기회가 있는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가 어려움이라는 응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1〉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움 점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17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1,434	42.0	50.3	46.3	26.7	31.9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	1,055	30.9	22.6	26.0	43.2	46.9
어려움 없음	471	13.8	14.4	13.3	15.3	11.2
학교 취업정보실에 갔는데 정보가 없음	252	7.4	6.6	8.1	9.4	4.2
기타	205	6.0	6.1	6.3	5.3	5.8



사.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로는 ‘자격증 공부(2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학공부(24.8%)’나, ‘해외취업 준비중(0.7%)’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학교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최근 기업에서 채용시 영어점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어학공부(42%)’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의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에서 살펴보면,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1년내 취업 가능성이 5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4-13 참조)에 비하여 자기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수강계획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실제 취업에 대한 현실 적응도가 낮거나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표 4-12〉 실태조사에서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에 대한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35	100.0	100.0	100.0	100.0	100.0
<b>자격증 공부</b>	1,006	<b>29.3</b>	18.4	<b>36.0</b>	<b>35.1</b>	<b>28.1</b>
<b>어학공부</b>	851	24.8	<b>41.8</b>	19.4	11.1	18.8
전공공부	526	15.3	11.4	17.3	14.9	19.7
채용시험·면접시험 대비	494	14.4	18.8	14.3	12.6	6.4
별도의 자기개발계획 필요없음	184	5.4	1.9	2.8	12.9	10.3
<b>직업훈련수강(계획)</b>	172	5.0	3.2	5.3	6.5	6.6
기타	97	2.8	1.0	2.0	5.4	5.7
해외어학연수 준비중	82	2.4	3.1	2.4	0.6	3.4
해외취업 준비중	23	0.7	0.6	0.6	0.9	0.9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13〉 훈련의 적합성에 대한 상담 여부 및 취업 가능성

	훈련과정 이수 후 1년내 취업 가능성					훈련의 적합성 상담 여부	
	0%	25%	50%	75%	90%이상	상담 받았음	받지 않았음
빈도	9	139	382	135	68	193	524
비율	1.2	19.0	52.1	18.4	9.3	26.9	73.1
전체	733(100.0)					717(100.0)	
결측값의 개수	984					1,000	

자료: 정인수 외,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2004. 1.

〈표 4-14〉 대상학교별 토익시험 여부 및 점수 분포

(단위: 명, %)

	전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3,402	100.0	100.0	100.0	100.0	100.0
860점 이상	138	4.1	8.9	0.3	3.8	3.5
730점 이상~860점 미만	182	5.3	14.4	1.2	0.9	1.8
600점 이상~730점 미만	223	6.6	13.0	4.9	0.8	3.9
470점 이상~600점 미만	270	7.9	15.5	6.1	1.9	3.7
470점 미만	255	7.5	10.0	9.8	1.7	3.3
<b>토익시험 본적 없음</b>	<b>2,334</b>	<b>68.6</b>	<b>38.3</b>	<b>77.6</b>	<b>90.8</b>	<b>83.8</b>

주: 4년제 대졸예정자의 토익시험 점수 평균은 659에 불과.

## 2. 희망직업에 대하여

### 가. 취업희망업종

취업희망업종은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48%), ‘금융 및 보험업(14%)’ 등 서비스업에 비하여 제조업은 4%에 불과하여 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대상학교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도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에 60% 이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를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운수·통신업, 건설업에 각각 11% 정도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대상학교별 취업희망업종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49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1,665	<b>48.3</b>	50.4	50.4	35.1	56.8
금융 및 보험업	485	<b>14.1</b>	17.2	13.1	15.4	7.5
운수·통신업	263	7.6	8.7	7.9	5.8	6.8
건설업	257	7.5	5.1	6.4	12.0	9.4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	212	6.1	4.4	6.1	9.3	5.7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97	5.7	3.8	5.2	7.8	8.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78	5.2	5.7	6.1	4.2	2.6
광업·제조업	143	<b>4.1</b>	4.0	3.1	8.1	1.5
농림어업	49	<b>1.4</b>	0.7	1.7	2.4	1.1

〈표 4-16〉 성별 취업희망업종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49	100.0	100.0	100.0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1,665	48.3	36.6	<b>60.7</b>
금융 및 보험업	485	14.1	<b>11.5</b>	16.8
운수·통신업	263	7.6	<b>11.5</b>	3.5
건설업	257	7.5	<b>11.0</b>	3.7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	212	6.1	7.0	5.3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97	5.7	5.3	6.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78	5.2	9.2	0.8
광업·제조업	143	4.1	6.5	1.7
농림어업	49	1.4	1.3	1.5

## 나. 취업희망업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공무원(31.9%)’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기업(28.1%)’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공기업(33.6%)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기업(24.4%)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도 공기업(31.4%)을 가장 선호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44.2%)와 인문계 고등학교(39.4%) 졸업예정자들은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여성은 공무원(36%)을, 남성은 공기업(3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4-17〉 대학교별 취업희망업체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86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무원	1,112	31.9	24.0	29.5	<b>44.2</b>	<b>39.4</b>
공기업	980	28.1	<b>33.6</b>	<b>31.4</b>	20.3	17.4
사기업	538	15.4	<b>24.4</b>	12.0	10.0	11.8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345	9.9	9.0	10.7	9.9	9.8
기타	278	8.0	5.4	9.4	9.3	8.3
전문자영업자(변리사, CPA 등)	233	6.7	3.7	7.0	6.4	13.3

〈표 4-18〉 성별에 따른 취업희망업체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86	100.0	100.0	100.0
공무원	1,112	31.9	28.1	<b>36.0</b>
공기업	980	28.1	<b>31.0</b>	25.1
사기업	538	15.4	17.9	12.9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345	9.9	11.6	8.1
기타	278	8.0	5.2	<b>10.9</b>
전문자영업자(변리사, CPA 등)	233	6.7	6.4	7.0

#### 다. 취업희망지역

‘수도권·서울지역(54.7%)’을 취업희망지역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 다음으로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25.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대상학교별에 따라 우선순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다른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수도권·서울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며,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13.7%)’의 취업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경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지역(42.2%)’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34.6%)’에 대한 수요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여도 수도권·서울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58%로, 아주 강하게 수도권·서울에 취업을 희망함을 알 수 있다(표 4-20 참조).

성별에 따른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희망지역을 살펴보면, 여성(46.3%)이 남성(38.3%)에 비해 수도권·서울지역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해외로 취업하려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21 참조).

〈표 4-19〉 대상학교별 취업희망지역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93	100.0	100.0	100.0	100.0	100.0
<b>수도권·서울지역</b>	<b>1,911</b>	<b>54.7</b>	<b>54.8</b>	<b>51.2</b>	<b>53.2</b>	<b>66.4</b>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	85	25.6	27.4	29.7	23.2	13.7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563	16.1	14.4	16.7	19.7	13.2
해외	124	3.5	3.3	2.4	3.9	6.7

46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4-20〉 대상학교별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희망지역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2,322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서울지역	980	<b>42.2</b>	41.4	38.2	41.0	57.8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	803	<b>34.6</b>	39.0	37.9	30.8	<b>19.6</b>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461	19.9	17.0	21.2	24.7	15.5
해외	78	3.4	2.5	2.7	3.5	7.1

〈표 4-21〉 성별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희망지역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2,322	100.0	100.0	100.0
수도권·서울지역	980	42.2	<b>38.3</b>	<b>46.3</b>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	803	34.6	34.6	34.6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461	19.9	2.9	3.9
해외	78	3.4	<b>24.3</b>	15.2

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전체 응답수 중 ‘30~100인 미만(22.9%)’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30~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 적응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1,000인 이상(22%)’으로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대학교(27%)와 인문계

〈표 4-22〉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단위: 명, %)

	전 체		대상학교별				성별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 학교	인문계 고등 학교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인 미만	378	11.0	7.7	13.2	12.5	9.9	8.9	13.2
<b>30인 이상~100인 미만</b>	<b>790</b>	<b>22.9</b>	<b>19.6</b>	<b>27.1</b>	<b>22.3</b>	<b>19.8</b>	<b>22.0</b>	<b>23.9</b>
100인 이상~300인 미만	508	14.7	15.1	16.1	12.8	12.7	14.1	15.3
300인 이상~500인 미만	559	16.2	14.3	16.6	19.3	14.9	17.2	15.1
500인 이상~1,000인 미만	469	13.6	16.3	11.4	12.7	14.7	13.0	14.2
1,000인 이상	748	21.7	<b>27.0</b>	15.6	20.5	<b>27.9</b>	24.8	18.3

고등학교(27.9%) 졸업예정자들은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선호하였다. 전문대학(27.1%)과 실업계 고등학교(22.3%) 졸업예정자들은 30~100인 미만의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 취업하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의 집중, 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 및 육성이 정책적으로 청년실업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 마. 희망최소연봉 수준

희망최소연봉 수준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19.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 최소연봉은 1,988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



(19.9%, 23.7%)'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3,000만원 이상(26%)'을 최소희망연봉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취업반일지라도 진학에서 취업으로 진로를 바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 임금수준에 기초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표 4-24>에서 보듯이, 근속연수 1년 이하 기업규모별·학력별로 실제 연봉을 봤을 때 희망최소연봉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규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좋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졸업예정자들의 희망최소연봉과 실제 연봉의 차이를 보면 아직 현실감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23> 희망최소연봉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77	100.0	100.0	100.0	100.0	100.0
800만원 미만	52	1.5	0.4	0.8	4.1	2.4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98	2.8	1.5	1.7	6.5	3.7
1,0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07	6.0	3.1	6.8	8.6	6.6
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388	11.2	7.3	15.5	10.7	8.7
1,5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506	14.6	14.2	19.1	12.0	6.3
<b>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b>	<b>666</b>	<b>19.2</b>	<b>19.9</b>	<b>23.7</b>	<b>15.9</b>	<b>9.2</b>
2,000만원 이상~2,300만원 미만	524	15.1	17.9	14.8	12.5	12.9
2,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384	11.0	14.7	8.0	9.5	13.1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94	8.5	14.0	3.9	6.3	11.1
3,000만원 이상	358	10.3	7.0	5.6	14.0	<b>26.0</b>
<b>희망최소연봉 평균(만원)</b>		<b>1,988</b>	<b>2,095</b>	<b>1,858</b>	<b>1,919</b>	<b>2,198</b>

〈표 4-24〉 근속연수 1년 이하 기업규모별·학력별 연봉

(단위: 만원)

	고졸	초대졸	대졸 <sup>1)</sup>
30인 미만	1,208	1,227	1,416
30~100인 미만	1,176	1,248	1,471
100~300인 미만	1,251	1,273	1,637
300인 이상	1,238	1,286	1,688

주: 1) 대학원 졸업도 포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 통계』, 2003.

### 바. 업체 선택 기준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33.4%)’이 업체 선택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직업의 안정성(29.3%)’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공이 확실한 4년제 대학교(41.5%) 및 전문대학(32.1%) 졸업예정자들은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표 4-25〉 업체 선택 기준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77	100.0	100.0	100.0	100.0	100.0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	1,160	<b>33.4</b>	<b>41.5</b>	<b>32.1</b>	24.8	30.3
직업의 안정성	1,018	<b>29.3</b>	27.0	29.6	30.0	<b>32.7</b>
연봉수준	876	<b>25.2</b>	18.0	26.2	<b>33.2</b>	27.7
회사 발전전망	227	6.5	8.2	5.9	5.7	5.4
회사규모 및 인지도	141	4.1	4.1	4.5	4.5	2.2
복지혜택	55	1.6	1.2	1.7	1.8	1.7

‘연봉수준(33.2%)’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직업의 안정성(32.7%)’을 업체 선택 기준으로 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

본인의 희망업종·규모·전공에 맞추기 어려울 경우 비적성·하향·중소생산직·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자리에 37% 정도가 긍정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예상보다 눈높이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6 참조). 또한, ‘희망직종이 아닌 일자리(72.7%)’,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75.8%)’와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66.6%)’에도 강한 긍정을 보였다.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55.5%)’에도 높은 긍정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25.6%가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각각 37.3%, 51.5%를 수용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강한 의사표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26〉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희망의사에 대한 긍정 비율

(단위: %)

	전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희망직종이 아닌 일자리	72.7	69.4	72.6	80.6	69.4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66.6	56.2	72.6	72.7	65.1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75.8	68.1	82.8	77.2	71.8
<b>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b>	<b>37.2</b>	<b>25.6</b>	<b>37.3</b>	<b>51.5</b>	<b>42.6</b>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55.5	56.5	52.9	50.1	68.0

주: 위의 각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 대답을 한 비율.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64.3%)’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실업계(34.8%) 및 인문계(42.4%)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진학 및 유학’에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표 4-27 참조).

〈표 4-27〉 제약에 따른 취업 희망 의사에 부정을 나타낸 경우의 이유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28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	211	64.3	80.2	64.9	43.5	45.8
진학 및 유학	67	20.4	7.1	17.5	34.8	42.4
기타	14	4.3	3.2	4.1	6.5	5.1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 의사가 없음	12	3.7	3.2	6.2	4.3	0.0
결혼	11	3.4	3.2	3.1	6.5	1.7
군입대	9	2.7	2.4	2.1	4.3	3.4
자영업	4	1.2	0.8	2.1	0.0	1.7

### 3.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

#### 가.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해서 75% 정도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대상학교별로도 큰 차이 없이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4-28〉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66	100.0	100.0	100.0	100.0	100.0
<b>없음</b>	2,625	<b>75.7</b>	67.5	75.9	84.5	82.1
재학/휴학중 받았음	727	21.0	29.6	19.7	13.1	15.8
졸업/중퇴 후 받았음	60	1.7	1.5	2.3	1.5	1.1
재학/휴학중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54	1.6	1.5	2.1	0.9	1.1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 중 ‘사설학원(55.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상학교별로도 ‘사설학원’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많았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은 사람의 비율도 39.5%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9〉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828	100.0	100.0	100.0	100.0	100.0
<b>사설학원</b>	463	<b>55.9</b>	<b>62.4</b>	<b>55.2</b>	<b>46.0</b>	43.2
<b>공공직업훈련기관</b>	122	<b>14.7</b>	10.9	15.1	7.0	<b>39.5</b>
기타	79	9.5	8.3	11.0	15.0	2.5
비영리 민간단체	56	6.8	6.6	5.4	15.0	2.5
민간직업전문학교	55	6.6	4.6	5.4	15.0	9.9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 연수	53	6.4	7.2	8.0	2.0	2.5

직업교육 및 훈련은 대부분 '컴퓨터 분야(30%)', '어학 분야(23%)'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최근 기업에서 채용시 영어점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어학 분야(37.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IT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로 인하여 전문대학(32.1%)과 실업계(41.7%) 고등학교는 컴퓨터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서비스 분야(25.6%)'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직업교육과 직업체험을 혼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30〉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832	100.0	100.0	100.0	100.0	100.0
<b>컴퓨터 분야</b>	251	<b>30.2</b>	28.2	<b>32.1</b>	<b>41.7</b>	<b>17.1</b>
<b>어학 분야</b>	188	<b>22.6</b>	<b>37.6</b>	12.0	14.6	7.3
<b>서비스 분야</b>	99	<b>11.9</b>	6.3	13.4	15.5	<b>25.6</b>
기타	67	8.1	9.2	7.0	7.8	7.3
경영 및 사무 분야	62	7.5	9.2	8.0	3.9	2.4
예능 분야	51	6.1	5.2	7.7	5.8	4.9
전기·전자 분야	38	4.6	2.3	6.0	2.9	11.0
기계 분야	33	4.0	1.1	5.7	1.9	12.2
보건·의료 분야	26	3.1	0.6	5.0	3.9	6.1
운전 분야	13	1.6	0.0	2.7	1.0	4.9
금속 및 비금속 분야	4	0.5	0.3	0.3	1.0	1.2

#### 나. 직업체험 및 취업경험

전체 졸업예정자들의 51%가 재학/휴학중에 직업체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한 번'이라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들의 직업체험 비율이 다른 학교 졸업예정자들보다 다소 높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직업체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체험 평균은 약 한 번 정도이고, 전문직업인을 위한 학교도 아니고 연령 또한 어려 사회경험이 적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직업 체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재학/휴학 중의 직업체험(취업포함)

(단위: 명, %, 횟수)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49	100.0	100.0	100.0	100.0	100.0
<b>없음</b>	1,758	<b>51.0</b>	47.3	39.5	57.3	<b>81.8</b>
한 번	812	23.5	23.0	28.2	25.6	9.0
두 번	458	13.3	13.8	17.7	9.4	5.5
세 번	221	6.4	7.4	8.9	3.6	1.3
네 번 이상	200	5.8	8.5	5.7	4.0	2.4
<b>직업체험 평균</b>	<b>0.9</b>	<b>0.0</b>	<b>1.1</b>	<b>1.1</b>	<b>0.7</b>	<b>0.3</b>

직업체험을 한 응답 중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41.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지원 직장체험’은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18.9%)는 아주 높으나 전문대(6.9%)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낮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37.7%)’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이는 과외로 추측되고, 다음으로는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25.7%)’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38.2%)’의 비율이 높으며,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학교 자체 내에서 취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 실습’의 비율도 27.9%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

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따라 교과과정의 하나로 직업체험을 위해 실습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교의 현장 실습'이 34.9% 정도로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전문대 및 고졸예정 비진학자의 '정부지원 직장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2〉 직업 체험을 한 곳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52	100.0	100.0	100.0	100.0	100.0
<b>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b>	<b>679</b>	<b>41.1</b>	<b>37.7</b>	<b>38.2</b>	<b>49.5</b>	<b>63.0</b>
학교의 현장 실습	384	23.2	12.9	27.9	34.9	12.3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	363	22.0	25.7	24.0	11.6	13.6
<b>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b>	<b>168</b>	<b>10.2</b>	<b>18.9</b>	<b>6.9</b>	<b>1.8</b>	<b>8.6</b>
기업 인턴	58	3.5	4.8	3.1	2.2	2.5

직장체험을 한 응답 중 '서비스 및 영업분야(42.8%)'에 대한 참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학생들이 많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다음으로 사무분야(23.8%)가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사무분야(39.2%)'가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영업분야(36.2%)'였으며, 전문대(44.3%)와 인문계(59.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서비스 및 영업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서비스 및 영업분야(47.2%)'가 가장 높으나, '생산기능분야(25.8%)'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서비스 및 영업분야(48.3%)'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무분야(32.5%)'로 나타났다. 남성도 '서비스 및 영업분야(37.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생산기능분야(18.1%)'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



학교의 생산기능분야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3〉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가 참여해 본 분야(대상학교별)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33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 및 영업분야	699	<b>42.8</b>	<b>36.2</b>	<b>44.3</b>	<b>47.2</b>	<b>59.3</b>
사무분야	389	<b>23.8</b>	<b>39.2</b>	19.1	10.7	6.2
생산기능분야	201	12.3	3.3	14.2	<b>25.8</b>	11.1
단순노무분야	130	8.0	7.5	8.2	8.1	8.6
연구개발 및 기술분야	123	7.5	8.4	8.5	3.7	6.2
관리분야	91	5.6	5.5	5.7	4.4	8.6

〈표 4-34〉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가 참여해 본 분야(성별)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33	100.0	100.0	100.0
서비스 및 영업분야	699	<b>42.8</b>	<b>37.8</b>	<b>48.3</b>
사무분야	389	<b>23.8</b>	15.8	<b>32.5</b>
생산기능분야	201	12.3	<b>18.1</b>	6.0
단순노무분야	130	8.0	12.2	3.3
연구개발 및 기술분야	123	7.5	9.7	5.1
관리분야	91	5.6	6.3	4.7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들에게 전공과의 부합성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전공과 ‘다소 부합되는 편(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혀 무관함(20.6%)’이라는 응답이다. 특히, 전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4년제 대학교(34.9%)와 전문대학(32.4%)의 졸업예정자들은 전공과 ‘다소 부합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전혀 무관함’이 ‘다소 부합됨’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공은 아직 불확실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이해된다.

〈표 4-35〉 직장체험을 한 응답자들의 전공과의 부합성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57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잘 부합됨	259	15.6	14.7	17.5	12.8	13.8
<b>다소 부합되는 편</b>	<b>522</b>	<b>31.5</b>	<b>34.9</b>	<b>32.4</b>	<b>24.5</b>	<b>23.8</b>
그저 그렇다	221	13.3	10.6	12.7	20.8	12.5
다소 무관함	313	18.9	21.9	17.8	16.4	16.3
<b>전혀 무관함</b>	<b>342</b>	<b>20.6</b>	<b>17.8</b>	<b>19.5</b>	<b>25.5</b>	<b>33.8</b>

직장체험 경험이 직업선택이나 취업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에 전체 평균이 3.7 정도로 나타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3.2로 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 및 영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향후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와 ‘재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3점 정도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시나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라는 사항에는 다들 보통으로 생각하나, ‘서비스 및 영업분야’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3.5로 보통보다는 약간 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직장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5점 척도 평균)

	전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7	3.8	3.7	3.6	3.2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4	3.4	3.5	3.2	2.9
향후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3	3.3	3.3	3.1	3.0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3.1	3.1	3.1	2.8	3.0
임시나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	3.1	3.1	2.9	3.2	3.5

#### 4. 정부 청년실업대책

##### 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49.6%)’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부족(30.4%)’이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눈높이가 여전히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37〉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85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	1,730	49.6	47.3	54.5	45.4	47.7
일자리 부족	1,059	30.4	30.8	25.0	37.8	33.6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	401	11.5	11.5	12.6	10.0	10.6
일자리 정보 부족	219	6.3	8.2	5.5	4.8	6.1
기타	76	2.2	2.2	2.4	1.9	2.0

## 나. 청년실업대책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인지도, 참여여부 및 만족도, 참여희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순으로 약 10% 정도의 인지비율이 나타났고, ‘문화체험을 통한 고용창출’이 3% 정도로 인지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23.5%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참여만족도에 대해서는 참여한 응답자가 적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만족도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7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과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이는 설문지 제일 위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4-38〉 청년실업대책 인지·참여·희망에 대한 비율

(단위:명, %)

	인지		참여		참여 만족도	희망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b>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b>	<b>383</b>	<b>10.9</b>	<b>90</b>	<b>23.5</b>	<b>3.7</b>	<b>421</b>	<b>12.0</b>
고학력 미취업자 전문교육	195	5.6	14	7.2	3.6	298	8.5
문화체험을 통한 고용창출	109	3.1	10	9.2	3.3	267	7.6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142	4.1	7	4.9	3.9	287	8.2
무역 전문인력 교육	124	3.5	8	6.5	4.1	213	6.1
벤처인력 인큐베이터 사업	142	4.1	9	6.3	4.2	214	6.1
<b>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b>	<b>330</b>	<b>9.4</b>	<b>29</b>	<b>8.8</b>	<b>3.5</b>	<b>393</b>	<b>11.2</b>
<b>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b>	<b>343</b>	<b>9.8</b>	<b>19</b>	<b>5.5</b>	<b>3.6</b>	<b>274</b>	<b>7.8</b>
IT인력 해외취업연수	295	8.4	9	3.1	3.9	336	9.6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 육지원	144	4.1	6	4.2	4.0	200	5.7
<b>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 턴십 지원</b>	<b>284</b>	<b>8.1</b>	<b>17</b>	<b>6.0</b>	<b>3.7</b>	<b>442</b>	<b>12.6</b>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150	4.3	1	0.7	3.0	184	5.3
비진학 청소년 훈련	142	4.1	7	4.9	4.1	175	5.0
청소년 미취업자 등 직업훈련	267	7.6	17	6.4	3.9	3	<b>0.1</b>

#### 다. 체험 후의 효과

정부실업대책 체험 후 효과에 대하여는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40.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실무에만 도움이 된다 (29.7%)’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청년실업대책에 참여한 후 39.8%가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성은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응

답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여성은 ‘실무에만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체험자 수가 582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고 있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효과를 고려할 때 대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9〉 정부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 효과

(단위: 명, %)

	전 체		대상학교별				성별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5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237	40.7	37.1	39.8	52.8	35.3	44.9	36.9
실무에만 도움	173	29.7	36.2	30.8	17.9	21.6	20.7	37.9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안됨	98	16.8	12.9	20.4	11.3	31.4	19.9	14.1
취업에만 도움	74	12.7	13.8	9.0	17.9	11.8	14.5	11.1

#### 라.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이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단기 대책에만 치중’이 20%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23%로 다른 학교 졸업예정자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및 비진학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정부실업대책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40〉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2,622	100.0	100.0	100.0	100.0	100.0
<b>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b>	875	<b>33.4</b>	36.1	35.3	<b>27.3</b>	29.9
<b>단기 대책에만 치중</b>	532	<b>20.3</b>	26.2	20.0	11.3	19.2
일부 업종(IT분야)에 집중됨	317	12.1	11.4	10.6	14.4	14.5
까다로운 자격조건	307	11.7	5.0	11.8	<b>22.7</b>	12.5
홍보부족	301	11.5	11.5	11.2	12.1	11.0
받아도 성과가 없음	215	8.2	8.3	7.7	7.3	10.8
기타	75	2.9	1.4	3.5	4.9	2.0

##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 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3,505명의 전체 응답자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에 응답자수가 1,944명으로 55.5%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진학을 준비중(42.8%)’, ‘자격시험 준비중(15.0%)’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보아, 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진학 및 취업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진학(30.6%)’과 ‘자격시험 준비중(22.4%)’이 높게 나타났고, 실업계(57.5%) 및 인문계(76.8%) 고등학교는 아직 고등학생 상태이기 때문에 ‘진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대상학교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944	100.0	100.0	100.0	100.0	100.0
진학을 준비중	832	42.8	22.7	30.6	57.5	76.8
자격시험 준비중	291	15.0	18.5	22.4	5.2	7.1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	258	13.3	31.1	10.7	3.0	2.6
기타	196	10.1	8.9	14.0	13.1	2.6
예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	129	6.6	6.5	9.8	7.4	1.0
취직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111	5.7	3.7	4.3	9.5	7.1
군입대 대기	58	3.0	3.3	4.7	1.6	1.0
창업을 준비중	35	1.8	2.2	2.2	1.4	1.0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18	0.9	1.5	0.9	1.1	0.0
결혼준비중	7	0.4	0.9	0.3	0.0	0.0
신용불량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5	0.3	0.4	0.0	0.3	0.5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4	0.2	0.4	0.2	0.0	0.3



〈표 4-42〉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성별)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1,613</b>	<b>100.0</b>	<b>100.0</b>	<b>100.0</b>
진학을 준비중	739	45.8	47.9	43.4
자격시험 준비중	249	15.4	14.1	17.0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	210	13.0	10.8	<b>15.5</b>
기타	161	10.0	9.0	11.2
취직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88	5.5	5.1	5.8
예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	62	3.8	3.4	4.4
군입대 대기	55	3.4	<b>6.4</b>	0.0
창업을 준비중	27	1.7	2.3	0.9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12	0.7	0.5	1.1
결혼준비중	5	0.3	0.2	0.4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3	0.2	<b>0.3</b>	0.0
신용불량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2	0.1	0.0	0.3

## 나.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에 대한 질문에 월평균 생활비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구직여부에 따라 월평균 생활비를 조사해보니,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28만원으로 나타났고, 구직활동자는 29만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27만원으로 월평균 생활비와 비교하였을 때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생활비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분포에서는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보았더니 구직활동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분포가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sup>8)</sup>.

〈표 4-43〉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단위: 명, %)

	전 체		구해됨	구해보지 않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3,416	100.0	100.0	100.0
10만원 미만	728	21.3	16.2	<b>26.9</b>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741	21.7	22.4	21.0
<b>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b>	874	<b>25.6</b>	<b>28.1</b>	22.9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681	19.9	21.8	17.9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57	7.5	7.5	7.6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72	2.1	2.5	<b>1.6</b>
100만원 이상	63	1.8	1.6	2.1
<b>월평균 생활비(만원)</b>		<b>28</b>	<b>29</b>	<b>27</b>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7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월평균 261만원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월소득 분포는 비슷하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비해 고소득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8)  $\chi^2 = 66.5 > \chi^2(6, 0.05) = 12.59$ 이며,  $p\text{-value} = 0.000$ 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됨.

〈표 4-44〉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전 체		구해됨	구해보지 않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3,317</b>	<b>100.0</b>	<b>100.0</b>	<b>100.0</b>
100만원 미만	318	9.6	9.4	9.8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30	13.0	12.7	13.3
<b>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b>	<b>503</b>	<b>15.2</b>	<b>16.2</b>	<b>14.1</b>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445	13.4	13.3	13.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87	11.7	11.8	11.6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16	12.5	12.9	12.2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66	8.0	8.6	7.4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163	4.9	4.8	5.0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5	3.8	3.8	3.7
500만원 이상	264	8.0	6.5	9.5
<b>가족의 월평균 소득(만원)</b>	<b>264</b>		<b>261</b>	<b>267</b>

<표 4-45>에서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이 차이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보았더니, 유의확률이 0.12로 유의수준 0.05나 0.1에 의하여 구직활동에 따른 가족의 월소득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러므로 가족의존도 부분은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 판명되어 청년실업 및 구직자 모두 가족의 월평균소득과 관계없이 적극적 구직자로 판단하여 정책 대응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구직빈도와 가족월소득 간의 상관관계, 즉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구직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졸업예정자의 경우 구직빈도가 월 4회 이상인 경우 가족월소득이 272만원, 월 3~4회 265만원, 월 1~2회 265만원, 2~3월에 1회 이하 265만원으로 나타나, 구직빈도와 월가족소득수준 간의 관계는 유의도 0.071로 유의하지만 가설과는 반대로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5〉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에 대한  $\chi^2$  검정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4.1	9	0.121
Likelihood Ratio	14.1	9	0.120
N of Valid Cases	3317		

## 6. 고용안정센터

### 가.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 여부

고용안정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0% 정도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41.7%), 전문대학 졸업예정자(35.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14%),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10.5%)가 고용안정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52.9%)의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으나,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남성의 인지율(68.8%)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에 전체 응답자의 27.6% 정도가 방문해 보았다고 하였고,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29%), 전문대학 졸업예정자(28.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19.4%),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2.9%)가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56.4%)의 방문 비율이 남성(43.6%)보다 다소 높은데,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방문자는 주로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기존의 관념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대졸자에 대한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이 청년실업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4-46〉 대상학교별·성별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

(단위:명, %)

	전체		고용안정센터 인지			고용안정센터 방문			
	응답수	응답수	비율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3,478</b>	<b>1,040</b>	<b>29.9</b>	<b>47.1</b>	<b>52.9</b>	<b>287</b>	<b>27.6</b>	<b>43.6</b>	<b>56.4</b>
4년제 대학교	1,085	452	41.7	46.0	54.0	131	29.0	43.5	56.5
전문대학	1,273	447	35.1	46.5	53.5	127	28.4	41.7	58.3
실업계 고등학교	664	93	14.0	44.1	55.9	18	19.4	44.4	55.6
인문계 고등학교	456	48	10.5	<b>68.8</b>	31.3	11	22.9	<b>63.6</b>	36.4

## 나.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및 효과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로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의 이유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

〈표 4-47〉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284</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	131	46.1	<b>42.3</b>	<b>54.4</b>	22.2	<b>36.4</b>
자활 및 실업대책사업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52	18.3	27.7	9.6	16.7	9.1
직업훈련 안내 및 상담	44	15.5	13.8	15.2	22.2	27.3
실업급여 수급 관련	29	10.2	5.4	12.0	<b>27.8</b>	18.2
기타	17	6.0	5.4	6.4	11.1	0.0
고용안정사업 관련	11	3.9	5.4	2.4	0.0	9.1

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의 이유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업자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응답상 개념착오이거나 본인이 아닌 일반적인 방문자 응답이유로서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센터 내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이라는 데 51% 정도 응답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약 60%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은 다른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별로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비율이 다소 높는데, 이는 고용안정센터는 고등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표 4-48〉 고용안정센터 내의 자료정리현황에 대한 인상

(단위: 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279</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잘 정리되어 있음	49	17.6	9.4	20.3	<b>58.8</b>	18.2
<b>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b>	<b>143</b>	<b>51.3</b>	<b>53.1</b>	<b>52.0</b>	<b>29.4</b>	<b>54.5</b>
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77	27.6	<b>35.2</b>	23.6	5.9	18.2
전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10	3.6	2.3	4.1	5.9	9.1

전체 응답자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됨’이라고 57%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지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3.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만족지수가 2.5로 다른 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0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표 4-49〉 고용안정센터 방문 후 도움 정도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28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도움됨	25	8.9	6.9	10.7	17.6	0.0
<b>어느 정도 도움이 됨</b>	<b>160</b>	<b>57.1</b>	<b>59.2</b>	<b>58.2</b>	<b>47.1</b>	<b>36.4</b>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9	28.2	<b>30.0</b>	27.0	17.6	<b>36.4</b>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6	5.7	3.8	4.1	17.6	27.3
<b>만족지수</b>		<b>3.4</b>	<b>3.4</b>	<b>3.4</b>	<b>3.3</b>	<b>2.5</b>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방문자체가 귀찮아서’로 나타났다. 조사에 앞서 고용안정센터에 고졸이 일반적으로 많이 온다고 생각하여, ‘주위의 이목으로 부끄러워서’에 많은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넣었으나,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 그 문항에 1.7%로 가장 적게 응답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50〉 고용안정센터를 알면서도 가지 않은 이유

(단위:명, %)

	전 체		4년제 대학교	전문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665	100.0	100.0	100.0	100.0	100.0
<b>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b>	313	<b>47.1</b>	<b>46.2</b>	<b>48.9</b>	<b>38.1</b>	<b>55.9</b>
<b>방문자체가 귀찮아서</b>	157	<b>23.6</b>	23.3	22.9	<b>31.7</b>	17.6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들어서	95	14.3	14.2	15.0	15.9	5.9
쓸 만한 정보가 없을 듯해서	79	11.9	14.6	8.9	11.1	14.7
주위의 이목으로 부끄러워서	21	3.2	<b>1.7</b>	4.3	3.2	5.9

고용안정센터에는 일반적으로 고졸 이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졸 및 전문대졸 예정자의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주위의 이목으로 부끄러워서’에 대하여도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응답이 1.7%로 가장 적어서 고용안정센터에 4년제 대졸자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졸자에 대한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이 청년실업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가 방문하지 않은 큰 이유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3절 졸업예정자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재상태, 희망직업분야,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 그리고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학력별·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로 ‘30~100인 미만(22.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 적응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20% 정도가 ‘30~100인 미만’을 선택하고 있어서 기존의 희망 추이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될 경우, 중소기업생산직이라도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3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25.6%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55.5%가 수용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러



므로 청년실업을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므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될 경우, 비적성(72.7%), 하향(66.6%), 중소기업생산직, 비정규직 등 어떤 고용형태도 거부하는 응답자의 거부이유로는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64.3%)', '진학 및 유학(20.4%)'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의 51.9%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은 57%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좀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업체 선택기준에 대하여는 '진공과의 적합성(33.4%)', '직업의 안정성(29.3%)'을 들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연봉수준(33.2%)'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여섯째, 구직경로를 보면, '연고를 통해서(40.5%)', '인터넷의 구인, 구직 정보를 통해서(23.5%)' 순으로 구직정보를 얻고 있음에 반하여,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50.3%, 46.3%)'이라 응답하였고,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43.2%, 46.9%)'에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구인정보 집적에 대한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 차원의 투자가 중요하며, 특히 고졸 비진학자들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직업훈련의 강화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보도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덟째,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 30% 정도가 인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인지하는 응답자 중 28%가 방문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인지비율은 4년제 대학 41.7%, 전문대 35%로 나타났고, 방문비율은 4년제 대학 29%, 전문대 28.4%로 나타나 오히려 고졸 이하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안정센터 방문의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7%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안정센터 방문자가 고졸 이하 학력이라는 관념 및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안정서비스 역할의 효과와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설문결과는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42.3%)’,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14.6%)’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8.4%)’의 활용도는 아직도 낮게 나타났다.

열째,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에 47%가 응답하였다.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지와 방문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으나 위치를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홍보와 고용안정정보망에 대한 정보집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열한째,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5%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설학원에서(56%), 컴퓨터분야(30%), 어학분야(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에 조사된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실태조사 결과<sup>10)</sup>에 의하면,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1년내 취업 가능성이 50%로 나타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직업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직업훈련 자체가 학교 차원이나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10) 부산지역 대학졸업예정자 조사는 부산지역 소재 대학 14개 전체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고졸 이하자들이 많이 찾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사되어 설문 대상의 대표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열두째, 직업체험 및 취업경험은 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 체험(취업경험) 응답자 중 49%가 평균적으로 1회의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의 현장실습(34.9%)’도 높게 나타나지만,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49.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열셋째, 직업체험 업종은 ‘서비스 및 영업분야(42.8%)’, ‘사무분야(23.8%)’ 순으로 나타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생산기능분야(25.8%)’로 높게 나타났다.

열넷째, 직장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를 보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5점 척도 중 3.7을,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3.4를 나타내어 약간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열다섯째, 취업희망 업종에 대하여는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에 48%, ‘금융 및 보험업’에 14%의 응답률을 보여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조업’에는 4%만 희망하여 제조업이 기피업종으로 인지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열여섯째, 취업 희망지역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서울지역(54.7%)’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도 역시 ‘수도권·서울지역(42.2%)’,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34.6%)’으로 나타나 수도권·서울지역에 대한 선호가 아주 강함을 알 수 있다.

열일곱째, 희망연봉 수준은 ‘1,800만~2,000만원’에 19.2%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평균 연봉수준은 1,98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거하여 근속연수 1년 이하 자의 기업 규모별 학력별 연봉을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연봉수준은 2003년의 경우 고졸 1,251만원, 전문대졸 1,273만원, 4년제 대졸이상 1,637만원으로 계산되어 희망연봉수준과 300만~6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열여덟째,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로는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

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여 '눈높이 문제'임을 자인하고 있다. 졸업예정자 조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눈높이'가 현실보다 아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봉을 1,988만원, 취업지역을 수도권·서울지역에 고집하고, 제조업 취업 희망은 4%에 불과하다는 점은 눈높이 조정이 아직 졸업 이전이라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아홉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7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평균 '261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50만~200만원 미만'이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보았더니 유의확률이 0.12로 유의수준 0.05나 0.1에 의하여 구직활동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존도 부분은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청년실업 및 구직자 모두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관계없이 적극적 구직자로 판단하여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물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나 인지비율이 10.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 정책에 대해 인지한 응답자 중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5% 정도의 참여율이 나타났다. 참여 희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상학교별 우선순위는 달랐으나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대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희망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여 대상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고, 많은 대책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세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물한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의 참여 후의 효과는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단기대책에만 치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스물두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 전문대학, 실업계 및 인

76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진학을 준비’ 중이며, 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 5 장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개 요

#### 1. 조사의 개요

졸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35개 종합고용안정센터에 60부씩 2,100부, 파견업체 5개에 500부, 200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회 창업·채용박람회에 이틀간 직접 조사원 5명을 투입하여 400부를 배포하는 등 합계 3,000부를 보내어 개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11)</sup>.

대상자는 청년층으로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이고,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3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18일 동안이었다. 3,000부 중 1,960개가 회수되었고(회수율 65.3%), 그 중 유효한 자료는 1,796개이며, 설문장소에 따른 개수는 <표 5-1>과 같다.

---

11) 졸업자 조사를 경제활동인구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면 설문 대상자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므로, 졸업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고용안정센터와 파견업체 및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조사했음. 이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실태조사 방법으로 판단하여 수행함.

## 2. 조사 표본의 특성

### 가. 조사 표본의 학교 및 지역분포

실태조사 총 응답자는 1,796명이며, 고용안정센터의 비율(74.6%)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졸 이상(41.4%), 전문대졸(26.0%) 순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2.1%)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비를 보면 여성의 비율(63.0%)이 남성의 비율(37.0%)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설문장소에 따른 학력·성별의 비율을 보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예상과 달리 대졸 이상(36.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문대졸(27.9%), 실업계고졸(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63.2%)의 비율이 남성(3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파견업체조사에서는 대졸 이상(30.6%), 실업계고졸(29.3%), 전문대졸(27.4%)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인문계고졸(11.5%)이 다른 설문장소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67.5%)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채용박람회에서는 대졸 이상(69.6%)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비율(59.5%)

〈표 5-1〉 설문장소에 따른 학력별·성별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학 력 별					성 별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 졸		중졸 이하	남성	여성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1,796</b>	<b>100.0</b>	<b>41.4</b>	<b>26.0</b>	<b>23.6</b>	<b>6.9</b>	<b>2.1</b>	<b>37.0</b>	<b>63.0</b>
고용안정센터	1,340	74.6	36.4	27.9	26.2	6.8	2.7	36.8	63.2
파견업체	157	8.7	30.6	27.4	29.3	11.5	1.3	32.5	67.5
채용박람회	299	16.6	69.6	16.7	8.7	5.0	0.0	40.5	59.5

〈표 5-2〉 학력에 따른 성별 비율

(단위: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96	100.0	37.0	63.0
대졸 이상		744	41.4	37.6	62.4
전문대학		467	26.0	26.1	73.9
고졸	실업계	423	23.6	43.5	56.5
	인문계	124	6.9	43.5	56.5
중졸 이하		38	2.1	65.8	34.2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는 고졸이 많이 방문한다는 기존 관념과 다르게 대졸 및 전문대졸의 방문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학력자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고(20%), 다음으로 경기지역(14.8%), 강원지역(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설문장소 비율이 고용안정센터가 가장 높은데다(74.2%), 설문을 보낸 종합고용안정센터가 서울에 6개가 있고, 또한 채용박람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울산(0.2%)이 응답수 3개로 가장 적은 이유는 각 광역시에 다 있는 종합고용안정센터가 울산에는 없고,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sup>12)</sup>

12) <부록 1> 참조.



〈표 5-3〉 실태조사의 지역에 따른 학력별·성별 응답수

(단위:명, %)

	전 체		학력별					성 별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남성	여성
	실업계	인문계			응답수	비율			
전체	1,776	100.0	41.3	26.0	23.6	7.0	2.1	37.0	63.0
<b>서울</b>	<b>356</b>	<b>20.0</b>	<b>50.3</b>	<b>14.6</b>	<b>23.9</b>	<b>9.0</b>	<b>2.2</b>	<b>33.1</b>	<b>66.9</b>
경기	263	14.8	33.1	39.2	19.0	7.6	1.1	35.0	65.0
강원	165	9.3	34.5	21.2	30.3	9.7	4.2	36.4	63.6
부산	117	6.6	46.2	27.4	18.8	6.0	1.7	32.5	67.5
인천	112	6.3	25.0	28.6	33.9	10.7	1.8	32.1	67.9
경남	112	6.3	30.4	32.1	31.3	3.6	2.7	39.3	60.7
경북	109	6.1	44.0	26.6	22.0	7.3	0.0	38.5	61.5
대구	104	5.9	44.2	31.7	20.2	3.8	0.0	39.4	60.6
전북	79	4.4	<b>51.9</b>	16.5	22.8	3.8	5.1	40.5	59.5
충남	76	4.3	40.8	27.6	27.6	3.9	0.0	36.8	63.2
충북	66	3.7	39.4	28.8	25.8	4.5	1.5	42.4	57.6
전남	63	3.5	30.2	23.8	30.2	6.3	<b>9.5</b>	<b>52.4</b>	47.6
광주	57	3.2	<b>75.4</b>	<b>10.5</b>	<b>10.5</b>	<b>1.8</b>	1.8	47.4	52.6
대전	55	3.1	<b>50.9</b>	29.1	10.9	7.3	1.8	47.3	52.7
제주	39	2.2	25.6	<b>48.7</b>	17.9	7.7	0.0	25.6	<b>74.4</b>
<b>울산</b>	<b>3</b>	<b>0.2</b>	<b>100.0</b>	<b>0.0</b>	<b>0.0</b>	<b>0.0</b>	<b>0.0</b>	<b>66.7</b>	<b>33.3</b>

## 나. 학력별 전공

## 1) 대졸 이상

응답자의 전공계열 중 사회계(22.5%), 공학계의 비율(22.4%)이 매우 높고, 다음으로 인문학계(19.5%), 어문학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수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공학계에서는 남성의 비율(63.6%)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표 5-4〉 대졸 이상 전공계열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723	100.0	37.2	62.8
사회계	163	22.5	31.3	68.7
공학계	162	22.4	63.6	36.4
인문학계	141	19.5	30.5	69.5
어문학계	96	13.3	22.9	77.1
이학계	60	8.3	36.7	63.3
예술학계	34	4.7	17.6	82.4
기타	20	2.8	30.0	70.0
사범계	15	2.1	26.7	73.3
농림학계	12	1.7	33.3	66.7
가정학계	6	0.8	0.0	100.0
체육학계	5	0.7	80.0	20.0
수산해양학계	5	0.7	60.0	40.0
의약학계	4	0.6	25.0	75.0

## 2) 전문대졸

응답자의 전공계열 중 공학계의 비율(37.6%)이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25.1%)가 그 다음으로 높고, 수산 및 해양계(0.2%)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전공계열에서 여성의 응답수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공학계에서는 남성의 비율(44.2%)이 다른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5〉 전문대졸 전공계열

(단위: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458	100.0	26.2	73.8
공학계	172	37.6	44.2	55.8
인문사회계	115	25.1	15.7	84.3
기타	51	11.1	21.6	78.4
예술계	38	8.3	10.5	89.5
어학계	26	5.7	11.5	88.5
이학계	20	4.4	20.0	80.0
의약학계	16	3.5	6.3	93.8
사범계	10	2.2	20.0	80.0
농림학계	7	1.5	0.0	100.0
체육계	2	0.4	50.0	50.0
수산 및 해양계	1	0.2	0.0	100.0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sup>13)</sup>

응답자의 전공계열 중 상업(정보)계의 비율(43.3%)이 가장 높고, 공업계(25.2%)가 그 다음으로 높고, 예체능계(2.2%)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여성의 비율이 57.2%이고, 남성의 비율이 42.8%인 것으로 보아 다른 학력에 비해 남성의 응답수가 많게 나타났다. 상업(정보)계는 여성의 비율(83.1%)이, 공업계는 남성의 비율(75.7%)이, 기타는 남성의 비율(68.1%)이 높게 나타나 전공에 따라 성별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5-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409	100.0	42.8	57.2
상업(정보)계	177	43.3	16.9	83.1
공업계	103	25.2	75.7	24.3
기타	47	11.5	68.1	31.9
수산 및 해양계	37	9.0	45.9	54.1
농업계	36	8.8	36.1	63.9
예체능계	9	2.2	55.6	44.4

## 제2절 대상별 실태분석 결과

학력별 및 성별로 구분하여 구직현황, 희망직업, 직업훈련사항 및 경

13)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공이 없어 보고 하지 않음.

력사항과 정부 청년실업대책,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대해 실태분석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학력별로 나누어 실태 분석을 하였고, 성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성별을 포함한 실태 분석 내용을 보고한다.

### 1. 구직현황

#### 가. 구직활동여부 및 현재상태

응답자 대다수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92.2%)을 알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응답자 중 현재상태를 보면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직업을 구하는 상태(53.5%)’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대졸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60%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상태라고 응답했다. 대졸 이상은 ‘졸업 후 취업해 본 적이 없고 구직활동을 하는 응답자(37.8%)’와 ‘이직 준비중(23.4%)’이 다른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표 5-7〉 학력별·성별·현재상태별 구직활동 비율

(단위:명, %)

	전체	구해봄		현재상태			성별		
				졸업 후 무직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무직	이직 준비중	남성	여성	
									비율
<b>전 체</b>	<b>1,760</b>	<b>1,623</b>	<b>92.2</b>	<b>26.7</b>	<b>53.5</b>	<b>19.7</b>	<b>37.4</b>	<b>62.6</b>	
대졸 이상	729	685	94.0	37.8	38.8	23.4	38.4	61.6	
전문대학	460	429	93.3	13.5	68.1	18.4	26.3	73.7	
고 졸	실업계	413	370	89.6	23.8	59.7	16.5	43.2	56.8
	인문계	122	107	87.7	19.6	63.6	16.8	47.7	52.3
중졸 이하	36	32	88.9	25.0	68.8	6.3	62.5	37.5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응답자는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무직상태(68.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무직상태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의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이직을 준비하는 비율(6%)이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및 고졸 이하 학력에 대해 직장에서의 정착성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주일간의 생활을 보면, 응답자들은 ‘구직활동(31.6%)’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일하였음(25.6%)’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 일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관계없이 ‘구직활동’, ‘일하였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의 응답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8〉 학력별·구직활동여부별 지난 1주일간의 생활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77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구직활동</b>	<b>560</b>	<b>31.6</b>	<b>30.7</b>	<b>37.1</b>	<b>28.5</b>	<b>30.6</b>	<b>19.4</b>
<b>일하였음</b>	<b>453</b>	<b>25.6</b>	26.5	25.0	24.2	27.4	<b>25.0</b>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쉬었음	185	10.4	13.5	8.0	6.8	10.5	<b>22.2</b>
일시휴직	159	9.0	5.6	8.8	13.8	12.1	13.9
정규교육기관 통학	114	6.4	4.2	7.8	8.7	4.8	13.9
기타	79	4.5	8.3	1.3	1.9	2.4	2.8
가사	58	3.3	3.3	3.4	3.4	2.4	2.8
가사	46	2.6	2.7	3.2	2.2	1.6	0.0
진학준비	38	2.1	2.3	1.3	2.4	4.0	0.0
육아	28	1.6	0.5	2.2	2.9	1.6	0.0
군입대 대기	18	1.0	0.3	0.4	3.4	0.0	0.0
결혼준비	17	1.0	0.7	1.5	0.7	1.6	0.0
입시학원 통학	15	0.8	1.2	0.0	1.2	0.8	0.0
심신장애	1	0.1	0.1	0.0	0.0	0.0	0.0

## 나. 실업기간

졸업 후의 실업기간을 조사한 결과 ‘3~6개월(38.3%)’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는 2~3년 정도의 장기실업자도 11%를 차지하여 평균실업기간이 8개월로 길어짐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거의 모든 학력에서 ‘3~6개월’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중졸 이하에서만 ‘1~2개월(40.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년 이상의 장기실업상태의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실업기간을 보면 중졸 이하가 8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일수록 장기실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9〉 학력별·구직활동여부별 졸업 후 실업기간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실업계	인문계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2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개월	340	27.1	27.3	29.1	24.9	21.0	<b>40.7</b>
<b>3~6개월</b>	<b>480</b>	<b>38.3</b>	<b>31.8</b>	<b>40.0</b>	<b>44.4</b>	<b>53.1</b>	<b>29.6</b>
7~12개월	282	22.5	28.7	18.5	20.1	11.1	14.8
13~24개월	111	8.9	10.4	9.4	5.8	9.9	3.7
25~36개월	19	1.5	1.0	0.6	2.0	3.7	<b>11.1</b>
37~48개월	7	0.6	0.2	1.2	0.7	0.0	0.0
49개월 이상	14	1.1	0.6	1.2	2.0	1.2	0.0
평균실업기간(개월)		7.4	7.2	7.3	7.7	7.6	<b>8.0</b>

주: 실업기간에 대해 몇 개월로 답하게 함.

#### 다. 구직경로

구직경로를 조사해 본 결과, ‘연고를 통해(40.5%)’, ‘인터넷을 통해(23.5%)’ 순으로 나타난 졸업예정자와 비교해 볼 때, 졸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직경로는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서(39.9%)’, ‘연고를 이용한 구직(21.2%)’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을 보면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서(49.2%)’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고를 통해서(18.6%)’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를 보면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서(4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고를 통해서(18.9%)’가 다음으로 나타났고,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10.3%)’를 구직경로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살펴보면, ‘연고를 통해서(26%)’,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2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12%)’의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35.2%)’, ‘연고를 통해(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21.9%)’가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를 보면 ‘연고를 통해(4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고 중 ‘가족이나 친지’,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25%)’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조사를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한 경우가 74.6%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7%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고용안정센터를 많이 방문하고는 있으나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현실적 활용도는 아직 낮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0〉 학력별 주요 구직경로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6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고	친구나 선배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105	6.6	6.3	5.0	9.3	6.7	0.0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103	6.4	3.8	7.4	8.2	9.5	18.8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73	4.6	4.2	4.1	4.6	3.8	18.8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58	3.6	4.2	2.4	3.8	3.8	3.1
<b>연고를 통해</b>	<b>339</b>	<b>21.1</b>	<b>18.6</b>	<b>18.9</b>	<b>26.0</b>	<b>23.8</b>	<b>40.6</b>	
<b>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b>	<b>639</b>	<b>39.9</b>	<b>49.2</b>	<b>41.0</b>	<b>25.1</b>	<b>35.2</b>	9.4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237	14.8	12.4	14.1	16.9	21.9	25.0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112	7.0	5.3	10.3	6.8	6.7	3.1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104	6.5	4.4	5.8	12.0	3.8	6.3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63	3.9	1.8	4.1	6.8	4.8	12.5	
학교 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46	2.9	4.7	1.9	1.1	1.9	0.0	
인력 파견업체를 통하여	38	2.4	2.0	2.6	3.6	0.0	0.0	
직업훈련 과정의 참가를 통하여	14	0.9	1.0	0.7	0.5	1.9	0.0	
기타	7	0.4	0.3	0.5	0.5	0.0	3.1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4	0.2	0.3	0.0	0.5	0.0	0.0	

라.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결과를 보면, ‘사설온라인 채용정보업체(인크루트, 잡코리아 등)(53.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예정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도가 8.4%로 많이 낮았으나 졸업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도가 25.1%로 높

게 나타났다.<sup>14)</sup> 대졸 이상을 보면,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60.4%)’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21.4%)’으로 나타났고,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9.1%)’가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가 50% 정도로 나타났고,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은 2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졸 이하를 보면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37.1%)’, ‘해당사항 없음(34.3%)’ 순으로 나타났고,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20%)’가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졸자의 경우에도 예상보다 높은 고용안정센터 이용도를 보여 대졸 및 전문대졸은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시키고 있으므로 대졸 및 전문대졸 이상에 대한 구인정보 수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1〉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957	53.9	60.4	52.5	46.7	49.6	37.1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446	25.1	21.4	32.6	25.7	24.4	2.9
해당사항 없음	126	7.1	4.5	4.8	10.7	11.4	34.3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	98	5.5	9.1	3.1	3.3	2.4	0.0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93	5.2	2.7	4.2	9.5	5.7	20.0
기타	55	3.1	2.0	2.8	4.0	6.5	5.7

주: 졸업예정자의 경우 사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42.3%),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8.4%) 순으로 나타남.

14) 이는 설문대상의 74.6%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사한 것이라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 가능성이 있음.

### 마. 구직 빈도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빈도는 ‘월 4회 이상(44.7%)’이며, 월평균 10.8회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을 보면, ‘월 4회 이상(50.2%)’이 가장 높고, 월평균 13.7회로 전체 응답자의 구직정보 수집빈도의 월평균보다 3회 가량 많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을 ‘월 4회 이상’이 가장 높으며, 월평균 10.6회 정도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월평균 6.8회로 나타나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9.8회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직정보 수집빈도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조금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월평균 4.6회로 나타났다.<sup>15)</sup>

중졸 이하의 구직정보수집빈도를 전체 평균 10.8에 대해 T-test를 해본 결과, 전체와 중졸 이하의 평균 구직정보수집빈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학력자의 구직빈도가 낮은 것은 일자리 수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학력자들에 대한 취업기회(예: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2〉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빈도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5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월 4회 이상</b>	<b>711</b>	<b>44.7</b>	<b>50.2</b>	<b>45.1</b>	<b>36.1</b>	<b>42.2</b>	<b>28.1</b>
월 3~4회	362	22.8	18.2	23.2	27.5	33.3	28.1
월 1~2회	393	24.7	24.2	25.3	26.9	18.6	21.9
2~3개월에 1회 이하	124	7.8	7.4	6.4	9.4	5.9	21.9
<b>월평균(회)</b>		10.8	13.7	10.6	<b>6.8</b>	9.8	<b>4.6</b>

주: 설문문항 중 월 4회 이상일 경우 주 몇 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하였음.

15) 중졸 이하의 경우 구직경로가 ‘연고’와 ‘신문·잡지’를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인터넷이나 여타의 다른 방법에 비해 정보의 한계가 있어서 월평균 구직정보 수집횟수가 낮게 나타난다고 추측됨.

〈표 5-13〉 중졸 이하의 경우 전체 월평균과의 차이 검정

Test Value = 10.8						
중졸 이하 구직정보수집빈도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4.682	33	0.000	-6.165	-8.844	-3.486

#### 바. 이력서 제출 횟수

졸업 이후 이력서 제출 횟수는 1~5회가 56.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6~10회가 23.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13.1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은 졸업 후 이력서를 낸 평균횟수가 15.8회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이력서를 15.1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 후 약 8회 이력서를 제출하여 보았고, 중졸 이하는 4.3회로 나타났다.

〈표 5-14〉 이력서 제출 횟수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5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회	863	56.6	50.5	52.0	65.8	72.1	85.2
6~10회	357	23.4	20.7	29.4	24.6	16.2	11.1
11~20회	144	9.4	12.8	8.8	5.4	7.2	3.7
21~30회	62	4.1	6.9	2.9	1.7	0.9	0.0
31~50회	38	2.5	4.2	1.7	1.1	0.9	0.0
51~100회	40	2.6	3.8	2.7	0.6	2.7	0.0
101회 이상	20	1.3	1.1	2.5	0.8	0.0	0.0
평균(회)		13.1	15.8	15.1	7.9	8.4	4.3
최대값		800	800	601	313	100	15

### 사.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학력에 상관없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이 5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졸 및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는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에 많이 응답하였다.

〈표 5-15〉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7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906	51.5	56.1	48.9	46.0	54.5	43.2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	336	19.1	15.6	18.5	24.8	21.5	24.3
어려움 없음	269	15.3	12.3	19.6	15.9	14.0	18.9
기타	157	8.9	9.3	8.8	9.4	5.8	8.1
학교 취업정보실에 갔는데 정보가 없음	91	5.2	6.7	4.2	3.9	4.1	5.4

### 아.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로는 ‘자격증 공부(28.7%)’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어학공부(23.5%)’이며, ‘해외취업 준비중(0.6%)’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을 보면, 최근 기업에서 채용시 영어점수가 성적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학공부(33.9%)’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자격증 공부(23.8%)’, ‘채용

시험·면접시험 대비(18.9%)'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33.2%)과 실업계 고등학교(30.6%) 졸업자는 '자격증 공부'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학공부'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자격증 공부(30.9%)', '직업훈련수강(계획)(18.7%)' 순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는 '자격증 공부(43.2%)'가 다른 학력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업훈련수강(계획)(16.2%)', '별도의 자기개발계획 없음(16.2%)'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수강(계획)이 12.2%로 졸업예정자(5%)와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나, 실제 취업에 대한 현실 적응도와 직업훈련의 중요성 인식이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직업훈련수강(계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토익시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졸 이상은 63.7%가 시험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학력은 80% 정도가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점수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은 '600점 이상~730점 미만(19.1%)', '470점 이상~600점 미만(1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6〉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격증 공부	510	28.7	23.8	33.2	30.6	30.9	43.2
어학공부	417	23.5	33.9	17.0	15.6	16.3	8.1
채용시험·면접시험 대비	267	15.0	18.9	12.7	12.7	11.4	5.4
직업훈련수강(계획)	217	12.2	8.0	14.0	15.6	18.7	16.2
별도의 자기개발계획 없음	170	9.6	5.1	10.5	14.8	13.0	16.2
전공공부	114	6.4	6.4	8.3	5.5	3.3	5.4
기타	51	2.9	1.9	3.1	3.8	4.1	5.4
해외어학연수 준비중	19	1.1	1.1	0.9	1.0	2.4	0.0
해외취업 준비중	11	0.6	0.9	0.4	0.5	0.0	0.0

〈표 5-17〉 학력별 토익시험 여부 및 점수 분포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6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60점 이상	48	2.8	5.0	0.2	2.1	1.7	2.9
730점 이상~860점 미만	130	7.7	13.1	3.8	3.4	3.4	5.9
600점 이상~730점 미만	182	10.7	19.1	2.9	5.7	7.8	2.9
470점 이상~600점 미만	193	11.4	18.4	6.7	6.2	6.0	0.0
470점 미만	112	6.6	8.0	7.8	5.2	0.0	0.0
<b>토익시험 본 적 없음</b>	<b>1,033</b>	<b>60.8</b>	<b>36.3</b>	<b>78.5</b>	<b>77.5</b>	<b>81.0</b>	<b>88.2</b>

주: 서울지역 4년제 대졸 이상 평균 - 694점, 서울 이외 지역 4년제 대졸 이상 평균 - 623점.

#### 자. 실업기간 중 취업제의

실업기간 중에 전체응답자 중 54.5%가 취업제의를 받아 봤고, 취업제의 받은 평균횟수는 4.4회로 나타났다(표 5-18 참조). 학력별 취업제의 받은 비율을 보면, 대졸 이상(57.7%)과 전문대학 졸업자(59.4%)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횟수를 보면 중졸 이하가 7.5회로 가장 많이 제의를 받았고, 대졸 이상이 3.9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횟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취업제의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면,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29.6%)'와 '직업의 안정성 부족(18.7%)'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5-19 참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13.3%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적성'과 '회사 규모와 인지도'를 꼽았다.

취업제의를 받은 사람은 50% 이상이지만 임금수준이나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응답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현실적 적응력이 부족하고, 또한 실질적 중견기업이 부족하여 학력에 맞는 직업선택의 수급상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8〉 실업기간 중 취업제의

(단위: 명, %, 회)

		응답수	비율	취업 제의받은 평균횟수
<b>전 체</b>		<b>938</b>	<b>54.5</b>	<b>4.4</b>
대졸 이상		410	<b>57.7</b>	3.9
전문대학		265	<b>59.4</b>	4.5
고졸	실업계	189	46.4	4.5
	인문계	58	48.7	5.8
중졸 이하		16	43.2	<b>7.5</b>

주: 취업제의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몇 회를 받았는지 보고하게 하였음.

〈표 5-19〉 취업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상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9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b>	<b>268</b>	<b>29.6</b>	<b>27.6</b>	<b>29.2</b>	<b>34.9</b>	<b>32.7</b>	13.3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서	169	18.7	19.1	22.2	11.8	18.2	<b>33.3</b>
직무가 본인 전공과 맞지 않아서	153	16.9	17.6	17.1	14.5	18.2	<b>20.0</b>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어서	107	11.8	9.7	12.5	<b>16.1</b>	12.7	0.0
회사 발전전망이 없어서	89	9.8	11.7	7.4	10.8	3.6	13.3
회사규모 및 인지도가 낮아서	76	8.4	11.2	7.4	3.8	5.5	<b>20.0</b>
복지혜택이 좋지 않아서	43	4.8	3.1	4.3	8.1	9.1	0.0



차. 취업이 안되고 있는 이유

현재 취업이 안되는 이유로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40.3%)’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중졸 이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력별로 보면,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중졸 이하를 살펴보면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음으로 ‘취업정보 부족(27%)’이 높게 나타났고, ‘그동안 취업의사가 없어서(2.7%)’는 다른 학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5-20〉 취업이 안되는 이유

(단위: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상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694	40.3	38.7	45.9	35.6	45.0	40.5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	309	17.9	17.1	19.5	18.5	17.5	10.8
취업정보 부족	271	15.7	16.4	10.9	19.5	13.3	27.0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	215	12.5	14.2	11.1	11.4	12.5	8.1
그동안 취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160	9.3	9.0	8.8	11.1	8.3	2.7
기타	74	4.3	4.6	3.8	4.0	3.3	10.8

2. 희망 직업에 대하여

가. 취업희망업종

취업희망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29.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21%)', '제조업(16.5%)'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는 41%로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졸업자들은 16.5%가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졸업예정자와는 선호도에서 크게 차이나 제조업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중졸 이하를 제외한 학력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와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를 보면, '건설업(2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21.1%)'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21.8%)'이, 여성은 '금융 및 보험업(36.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1〉 학력별 취업희망업종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5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융 및 보험업	469	29.8	36.3	26.1	25.3	26.4	10.5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	331	21.0	19.1	21.6	22.3	26.4	21.1
제조업	260	16.5	16.2	17.9	16.8	13.6	13.2
운수·통신업	192	12.2	11.3	10.4	14.7	13.6	18.4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28	8.1	7.5	9.7	6.8	11.8	5.3
건설업	119	7.6	4.7	10.4	8.4	4.5	26.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1	3.9	4.4	3.0	3.8	3.6	5.3
농림어업·광업	14	0.9	0.6	0.7	1.9	0.0	0.0

〈표 5-22〉 성별 취업희망업종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575	100.0	100.0	100.0
금융 및 보험업	469	29.8	19.8	36.2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	331	21.0	15.9	24.3
제조업	260	16.5	21.8	13.2
운수·통신업	192	12.2	16.7	9.3
도소매업·음식숙박업	128	8.1	8.6	7.8
건설업	119	7.6	8.1	7.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1	3.9	7.6	1.5
농림어업·광업	14	0.9	1.5	0.5

## 나. 취업희망업체

취업희망업체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공기업(33.2%)’ 및 ‘사기업(22.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공기업’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기업’, ‘공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자들은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공기업(29.1%)’, ‘사기업(27.7%)’을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공기업(35.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학력별 취업희망업체

(단위: 명, %)

	전 체		대졸이상	전문대학	고졸		중졸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기업	589	33.2	35.4	33.2	30.5	32.0	25.0
사기업	402	22.7	26.0	20.6	19.3	20.5	27.8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296	16.7	14.2	18.2	18.4	16.4	30.6
공무원	287	16.2	16.9	15.0	16.2	20.5	2.8
기타	107	6.0	2.2	8.9	9.5	7.4	2.8
전문자영업자	91	5.1	5.3	4.1	6.0	3.3	11.1

〈표 5-24〉 성별 취업희망업체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72	100.0	100.0	100.0
공기업	589	33.2	29.1	35.7
사기업	402	22.7	27.7	19.7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296	16.7	18.6	15.6
공무원	287	16.2	14.2	17.4
기타	107	6.0	4.1	7.2
전문자영업자	91	5.1	6.3	4.5

다. 취업희망지역

취업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서울지역에 많은 기업과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서울지역(53.4%)’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34.3%)’으로 나타났다. 학력별에 따른 취업희망지역의 우선순위 및 비율이 그리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표 5-25 참조).

<표 5-26>에서 보듯이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경우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52.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서울지역(31.7%)’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는 수도권·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우도 ‘수도권·서울지역’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졸업자와 다름을 알 수 있다. 학력별에 따른 취업희망지역의 우선순위 및 비율이 그리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표 5-26 참조).

<표 5-25> 학력별 취업희망지역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서울지역	954	53.4	56.3	49.0	52.9	57.7	42.1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	613	34.3	30.6	40.2	34.8	30.9	39.5
해외	35	2.0	2.4	1.3	1.4	3.3	2.6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185	10.4	10.7	9.5	11.0	8.1	15.8

〈표 5-26〉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학력별 취업희망지역

(단위: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비율
전 체	1,0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서울지역	329	31.7	35.0	23.4	35.4	32.2	28.0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	541	52.2	48.5	61.9	49.0	50.8	44.0
해외	18	1.7	2.5	0.7	0.8	3.4	4.0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149	14.4	14.0	13.9	14.8	13.6	24.0

## 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 응답수 중 '30인 이상~100인 미만(32.3%)'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30인~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적응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졸 이상은 '30인 이상~100인 미만(30.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1,000인 이상(18.4%)'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학력에 비해 대기업 선호도가 높다. 전문대학,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기업을 선호하였다. 중졸 이하는 '30인 미만(35.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력에 비해 '500인 이상~1,000인 미만(2.7%)'이 낮게 나타나나 '1,000인 이상(10.8%)'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30인 이상~100인 미만(27.1%)', '1,000인 이상(17.7%)'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고, 여성은 '30인 이상~100인 미만(35.3%)', '30인 미만(20.2%)'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규모가 더 큰 곳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생각된다.

졸업예정자와 비교해 볼 때, 졸업예정자도 '30인 이상~100인 미만'에 22.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졸업자 또한 32.3%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의 집적성,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및 육성이 정책적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5-27〉 학력별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30인 미만</b>	<b>301</b>	<b>17.0</b>	8.4	22.7	24.4	16.3	<b>35.1</b>
<b>30인 이상~100인 미만</b>	<b>571</b>	<b>32.3</b>	<b>30.5</b>	<b>37.2</b>	<b>29.5</b>	<b>35.8</b>	24.3
100인 이상~300인 미만	282	15.9	16.3	14.9	16.2	17.9	10.8
300인 이상~500인 미만	249	14.1	15.9	11.0	14.0	13.8	16.2
500인 이상~1,000인 미만	146	8.2	10.4	6.1	6.5	11.4	<b>2.7</b>
1,000인 이상	221	12.5	<b>18.4</b>	8.0	9.4	4.9	10.8

〈표 5-28〉 성별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70	100.0	100.0	100.0
30인 미만	301	17.0	11.6	<b>20.2</b>
<b>30인 이상~100인 미만</b>	<b>571</b>	<b>32.3</b>	<b>27.1</b>	<b>35.3</b>
100인 이상~300인 미만	282	15.9	17.2	15.2
300인 이상~500인 미만	249	14.1	16.8	12.5
500인 이상~1,000인 미만	146	8.2	9.6	7.5
1,000인 이상	221	12.5	<b>17.7</b>	9.4

#### 마. 희망최소연봉 수준

희망최소연봉 수준에 대한 응답을 보면, '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21.7%)',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0%)'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희망최소연봉은 1,809만원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는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에 19.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평균최소희망연봉은 1,988만원으로 응답하여 졸업자가 졸업예정자에 비해 현실적응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은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3.3%)'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평균희망최소연봉은 1,96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졸이하는 '1,200만원 이상~1,500만원 이상'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희망연봉이 높으나, <표 5-29>를 보면 다른 학력에 비해 취업경험이 많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평균희망연봉을 낮게 측정하였다(전문대학 졸업자 취업경험 86.5%, <표 5-7> 참조).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22.1%)'에 많이 응답하였고, 평균희망최소연봉은 1,981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27%)'에 많이 응답하였고, 평균희망최소연봉은 1,708만원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희망최소연봉이 낮게 나타났다.

『임금구조기본통계』(2003년)상의 학력별 1년 이하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임금수준<sup>16)</sup>과 희망연봉수준을 비교한 격차율은 학력별로 20~4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희망과 실제의 연봉 격차율을 학력별로 보면, 대졸자는 20.2%, 전문대졸은 30.4%이고, 고졸은 39.6%로 나타났다.

---

16) <표 4-13> 참조.



〈표 5-29〉 학력별 희망최소연봉에 대한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7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만원 미만	19	1.1	0.4	0.7	2.7	0.8	2.6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	2.6	1.1	2.6	3.6	4.1	13.2
1,0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39	7.9	4.1	10.9	8.7	14.8	13.2
<b>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b>	<b>382</b>	<b>21.7</b>	14.2	<b>30.9</b>	<b>23.1</b>	<b>24.6</b>	<b>28.9</b>
1,5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309	17.5	16.3	20.4	19.8	7.4	15.8
<b>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b>	<b>352</b>	<b>20.0</b>	<b>23.2</b>	18.8	15.9	21.3	13.2
2,000만원 이상~2,300만원 미만	212	12.0	16.0	6.3	10.8	16.4	2.6
2,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47	8.3	11.2	4.8	8.2	5.7	5.3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6	6.0	9.9	3.5	3.6	2.5	0.0
3,000만원 이상	51	2.9	3.6	1.1	3.6	2.5	5.3
<b>희망최소연봉평균(만원)</b>		<b>1,809</b>	<b>1,968</b>	<b>1,660</b>	<b>1,747</b>	<b>1,703</b>	<b>1,542</b>

〈표 5-30〉 성별 희망최소연봉에 대한 응답수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62	100.0	100.0	100.0
800만원 미만	19	1.1	0.9	1.2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45	2.6	1.8	3.0
1,0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39	7.9	4.6	9.8
<b>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b>	<b>382</b>	<b>21.7</b>	12.7	<b>27.0</b>
1,5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309	17.5	15.3	18.8
<b>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b>	<b>352</b>	<b>20.0</b>	<b>22.1</b>	18.8
2,000만원 이상~2,300만원 미만	212	12.0	15.6	9.9
2,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47	8.3	12.3	6.0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06	6.0	9.3	4.1
3,000만원 이상	51	2.9	5.4	1.4
<b>희망최소연봉평균(만원)</b>		<b>1,809</b>	<b>1,981</b>	<b>1,708</b>

### 바. 업체 선택 기준

취업시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봉수준(32.8%)’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28.4%)’을 선택하였다. 대졸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연봉수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졸 이하는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32.4%)’에, 여성은 ‘연봉수준(35.2%)’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5-31〉 학력별 업체선택 기준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연봉수준</b>	<b>584</b>	<b>32.8</b>	<b>35.4</b>	<b>34.9</b>	27.4	<b>30.9</b>	21.1
<b>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b>	<b>506</b>	<b>28.4</b>	26.0	26.5	<b>33.2</b>	27.6	<b>47.4</b>
<b>회사의 발전전망</b>	<b>461</b>	<b>25.9</b>	25.6	25.9	24.8	32.5	21.1
회사규모 및 인지도	109	6.1	7.3	5.0	6.2	3.3	5.3
직업의 안정성	80	4.5	4.1	6.0	4.8	0.8	2.6
복지혜택	42	2.4	1.6	1.7	3.6	4.9	2.6

〈표 5-32〉 성별 업체선택 기준

(단위:명, %)

	전 체		남성	여성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82	100.0	100.0	100.0
<b>연봉수준</b>	<b>584</b>	<b>32.8</b>	28.6	<b>35.2</b>
<b>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b>	<b>506</b>	<b>28.4</b>	<b>32.4</b>	26.0
<b>회사의 발전전망</b>	<b>461</b>	<b>25.9</b>	24.8	26.5
회사규모 및 인지도	109	6.1	7.3	5.4
직업의 안정성	80	4.5	4.5	4.5
복지혜택	42	2.4	2.3	2.4

#### 사.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

취업이 본인 희망업종·규모·전공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비적성·하향·중소생산직·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78.5%)’,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69.3%)’와 ‘희망직종이 아닌 일자리(62.9%)’에 60% 이상 강한 긍정을 보였고,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51.9%)’에도 50% 이상의 긍정비율을 나타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일자리’에도 26.4%의 긍정비율을 나타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도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일자리’에 17.9%의 긍정을 표시하였다. 졸업예정자들의 응답보다 전체적으로 다소 긍정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졸업자들은 이러한 비적성·하향·중소생산직·비정규직 취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경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73.7%)’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대졸 이상은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전문대학 졸업자도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음'과 '군입대'가 다음 이유로 나타났다.

〈표 5-33〉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 희망의사에 대한 긍정비율

(단위: %)

	전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실업계	인문계	
희망직종이 아닌 일자리	62.9	63.1	61.4	65.6	57.3	67.6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69.3	62.3	74.4	73.5	73.2	84.2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	78.5	72.4	82.8	82.5	81.3	88.9
<b>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일자리</b>	<b>26.4</b>	<b>17.9</b>	<b>24.6</b>	<b>36.8</b>	<b>38.1</b>	<b>57.9</b>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51.9	49.7	54.0	52.6	55.4	50.0

〈표 5-34〉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취업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33		
<b>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b>	<b>98</b>	<b>73.7</b>	<b>77.9</b>	<b>66.7</b>	<b>69.2</b>	<b>66.7</b>
진학 및 유학	4	3.0	1.3	0.0	<b>11.5</b>	0.0
기타	10	7.5	6.5	8.3	7.7	<b>16.7</b>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음	7	5.3	3.9	<b>12.5</b>	3.8	0.0
결혼	1	0.8	1.3	0.0	0.0	0.0
군입대	5	3.8	1.3	<b>12.5</b>	3.8	0.0
자영업	8	6.0	7.8	0.0	3.8	<b>16.7</b>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진학 및 유학’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타’와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비적성·하향·비정규직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을 표시하였다.

### 3. 직업훈련 및 경력경험

#### 가. 직업교육 및 훈련경험

직업교육 및 훈련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57% 정도가 ‘없다’로 응답했다. 학력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 대졸 이상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재학/휴학중 받음’의 응답비율이 높고, 전문대학,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졸 이하는 ‘졸업/중퇴 후 받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5〉 직업교육 및 훈련사항에 대한 경험 여부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7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재학/휴학중 받았음	326	18.6	<b>22.2</b>	14.4	<b>18.6</b>	15.8	5.7
졸업/중퇴 후 받았음	330	18.8	17.3	<b>20.7</b>	15.4	<b>28.3</b>	<b>31.4</b>
재학/휴학 및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94	5.4	8.3	3.5	2.7	3.3	5.7
없음	<b>1,006</b>	<b>57.3</b>	<b>52.1</b>	<b>61.4</b>	<b>63.3</b>	<b>52.5</b>	<b>57.1</b>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응답자 중 훈련기관으로 ‘사설학원(4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24.9%)’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설학원’에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는 ‘민간직업전문학교(46.7%)’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학력에 비해 ‘사설학원’이 13.3%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은 ‘사설학원’의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은 ‘사설학원’뿐 아니라 ‘공공직업훈련기관’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5-36〉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관

(단위:명, %)

	전 체		학력별					성 별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남	여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설학원	351	48.3	55.7	50.3	37.8	33.3	13.3	37.8	54.3
공공직업훈련기관	181	24.9	19.2	26.0	32.9	35.1	26.7	30.0	22.0
민간직업전문학교	82	11.3	9.9	10.1	9.1	19.3	46.7	14.6	9.3
비영리민간단체	43	5.9	5.0	5.9	7.0	7.0	13.3	6.4	5.7
사업체 훈련기관	40	5.5	5.5	5.3	7.0	3.5	0.0	6.7	4.8
기타	30	4.1	4.7	2.4	6.3	1.8	0.0	4.5	3.9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로는 대부분 ‘컴퓨터 분야(44.6%)’, ‘어학분야(15.8%)’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컴퓨터 분야’, ‘어학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컴퓨터 분야’, ‘서비스분야’ 순으로 나타났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컴

퓨터분야,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경영 및 사무분야'와 '서비스분야'도 10% 정도 비율이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운전분야', '기계분야' 순으로 나타났고, '어학분야'도 14% 정도 비율로 나타났다.

〈표 5-37〉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은 분야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7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컴퓨터분야	322	44.6	44.2	48.8	46.0	40.4	7.1
어학분야	114	15.8	24.4	10.6	6.6	1.8	14.3
기타	61	8.4	9.0	6.5	8.8	12.3	0.0
경영 및 사무분야	58	8.0	8.7	6.5	8.0	10.5	0.0
서비스분야	42	5.8	2.9	6.5	10.9	10.5	0.0
기계분야	28	3.9	1.7	5.3	5.1	5.3	21.4
예능분야	28	3.9	4.4	4.7	3.6	0.0	0.0
전기·전자분야	27	3.7	2.6	4.7	3.6	7.0	7.1
보건·의료분야	19	2.6	1.5	4.1	5.1	0.0	0.0
운전분야	18	2.5	0.6	1.8	1.5	8.8	42.9
금속 및 금속분야	5	0.7	0.0	0.6	0.7	3.5	7.1

#### 나. 직업체험 및 취업경험

직업체험 및 취업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50.9%가 '직장체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대졸 이상의 학력 응답자가 다른 학력 응답자에 비해 직업체험이 '4번 이상'이 10.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38〉 직업체험(취업 포함)

(단위:명, %)

	전 체		대졸이상	전문대	고졸		중졸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실업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없음</b>	<b>841</b>	<b>50.9</b>	<b>49.9</b>	<b>45.8</b>	<b>55.0</b>	<b>60.7</b>	<b>62.5</b>
한 번	382	23.1	22.6	25.4	24.7	12.5	21.9
두 번	185	11.2	12.3	14.4	6.0	10.7	6.3
세 번	104	6.3	5.0	8.0	6.8	8.0	0.0
네 번 이상	140	8.5	<b>10.3</b>	6.4	7.6	8.0	9.4
<b>직업체험 평균</b>		<b>1.0</b>	<b>1.0</b>	<b>1.0</b>	<b>0.9</b>	<b>0.9</b>	<b>0.7</b>

직업체험을 한 응답자에게 직업체험을 한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33.4%)’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대졸 이상을 보면,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과 ‘학교의 현장실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학교의 현장실습’의 비율이 26.2%로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이머로 취업’이 5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과 ‘정



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보면, 졸업예정자(10.2%)와 비교할 때 졸업자(16.1%)가 더 높게 나타났고, 졸업예정자와 학력별로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5-39〉 직업체험을 한 곳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7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	261	33.4	35.5	29.6	29.7	47.6	50.0
아르바이트 및 임시 일용직	221	28.3	29.0	27.9	29.1	23.8	20.0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126	16.1	16.9	11.6	20.9	16.7	20.0
학교의 현장실습	140	17.9	13.3	26.2	17.7	11.9	10.0
기업인턴	33	4.2	5.3	4.7	2.5	0.0	0.0

직업체험을 한 응답자의 직업체험 참여분야를 살펴보면, '사무분야(40.2%)'에 대한 참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영업분야(32.4%)'가 많았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은 '사무분야'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영업분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서비스 및 영업분야'가 가장 높고, '사무분야'도 높게 나타났다.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무분야'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 및 영업분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생산기능분야'가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순노무분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서비스 및 영업분야'가 가장 높고, 여성은 '사무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40〉 학력별·성별 직장체험 참여 분야

(단위:명, %)

	전 체		학력별					성별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남	여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전 체	7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무분야	314	40.2	42.3	37.8	41.6	37.2	10.0	22.5	50.7
서비스 및 영업분야	253	32.4	27.5	40.4	32.3	32.6	10.0	32.8	32.1
연구개발 및 기술분야	73	9.3	12.1	9.6	5.6	2.3	0.0	12.6	7.4
생산기능분야	64	8.2	6.5	7.0	9.9	11.6	50.0	17.1	2.9
관리분야	39	5.0	6.5	3.5	2.5	9.3	10.0	5.8	4.5
단순노무분야	39	5.0	5.0	1.7	8.1	7.0	20.0	9.2	2.5

직업체험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전공과의 부합성에 대한 질문에 ‘다소 부합되는 편(3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소 무관한 편(21.2%)’이 차지하였다. 대졸 이상은 전공과의 부합성에 대해 ‘다소 부합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혀 무관함’도 22.8%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다소 부합되는 편’에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다소 무관함’이라 응답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소 부합되는 편’이 28.4%로 다소 높고, ‘그저 그렇다’, ‘다소 무관한 편’, ‘전혀 무관함’이 각각 20% 정도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소 부합되는 편’이 4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특별한 전공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졸 이하는 ‘다소 부합되는 편’, ‘그저 그렇다’가 33.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5-41〉 직업체험의 전공과의 부합성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78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잘 부합됨	107	13.7	15.4	14.3	11.1	9.3	0.0
<b>다소 부합되는 편</b>	<b>259</b>	<b>33.1</b>	<b>30.2</b>	<b>37.7</b>	<b>28.4</b>	<b>48.8</b>	<b>33.3</b>
그저 그렇다	104	13.3	9.2	13.9	19.1	16.3	<b>33.3</b>
<b>다소 무관한 편</b>	<b>166</b>	<b>21.2</b>	22.5	21.6	19.8	14.0	22.2
전혀 무관함	147	18.8	<b>22.8</b>	12.6	21.6	11.6	11.1

직장체험이 직업선택 및 취업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5점까지 선택하게 하였고, 5점은 ‘매우 그렇다’이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의 점수를 평균을 내어보았다. ‘직장생활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에 전체 평균이 3.6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편이라

〈표 5-42〉 직장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5점 척도)

	전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실업계	인문계	
<b>전 체</b>	<b>3.2</b>	<b>3.2</b>	<b>3.2</b>	<b>3.2</b>	<b>3.1</b>	<b>2.7</b>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b>3.6</b>	3.6	3.6	3.6	3.2	<b>2.7</b>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3	3.4	3.4	3.0	3.0	3.0
향후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2	3.2	3.3	3.2	3.0	2.8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b>2.9</b>	2.9	3.0	2.9	2.6	<b>2.2</b>
임시나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	3.1	3.2	2.8	3.1	3.5	3.0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2.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직업체험이 앞으로의 직장생활이나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 다. 첫 일자리(직장)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첫 일자리 업종을 질문한 결과,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46.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조업(21.1%)’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인 경우 ‘제조업’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제조업’이 31.9%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3〉 첫 일자리(직장) 업종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6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305	46.6	50.6	46.9	40.4	46.2	27.3
제조업	138	21.1	14.2	21.3	31.9	17.9	45.5
도소매업·음식숙박업	68	10.4	10.7	11.8	6.4	15.4	9.1
금융 및 보험업	49	7.5	11.1	4.7	6.4	5.1	0.0
운수·통신업	40	6.1	6.7	5.2	5.7	7.7	9.1
건설업	33	5.0	4.0	6.6	5.7	0.0	9.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	1.8	2.0	1.9	1.4	2.6	0.0
농림어업·광업	10	1.5	0.8	1.4	2.1	5.1	0.0

첫 일자리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54.2%)’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20.9%)’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고용형태의 비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중졸 이하의 학력 응답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에 비중이 다른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44〉 첫 일자리(직장) 고용형태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65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	138	20.9	24.0	14.7	22.9	30.0	10.0
	계약기간 1년 초과 근로자	76	11.5	12.0	11.8	10.0	10.0	20.0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357	54.2	50.4	62.6	50.7	50.0	40.0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	80	12.1	12.8	9.5	14.3	10.0	30.0
비근임로급자	자영업자	4	0.6	0.4	0.5	1.4	0.0	0.0
	고용주	1	0.2	0.0	0.5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3	0.5	0.4	0.5	0.7	0.0	0.0

첫 일자리(직장)에서 일의 형태는 ‘사무종사자(39.8%)’, ‘서비스종사자(22.2%)’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학력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단순 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5〉 첫 일자리(직장) 일의 형태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6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무종사자	260	39.8	44.6	39.6	33.6	38.5	18.2
서비스종사자	145	22.2	22.7	20.3	22.9	28.2	18.2
전문가	70	10.7	10.8	13.2	8.6	7.7	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61	9.3	9.6	9.9	8.6	5.1	18.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6	5.5	2.8	7.5	7.9	5.1	0.0
단순 노무종사자	30	4.6	2.0	2.8	10.0	5.1	27.3
판매종사자	27	4.1	5.6	2.8	3.6	5.1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	2.5	1.2	2.4	4.3	2.6	9.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6	0.9	0.4	1.4	0.7	2.6	0.0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	0.3	0.4	0.0	0.0	0.0	9.1

〈표 5-46〉 첫 일자리(직장) 월급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68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만원 미만	60	8.8	7.9	6.5	13.1	9.8	18.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63	53.4	45.9	56.2	59.3	63.4	63.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96	28.8	30.1	33.2	23.4	22.0	9.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0	5.9	11.3	2.8	2.1	2.4	0.0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0	1.5	2.3	0.9	0.7	0.0	9.1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	1.2	1.9	0.0	1.4	2.4	0.0
300만원 이상	3	0.4	0.8	0.5	0.0	0.0	0.0
평균월급(만원)		98	108	95	89	91	88

첫 일자리(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3.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평균월급은 98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라 응답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월급이 다소 많았다(표 5-46 참조). 한편, 첫 일자리(직장)의 취업기간이 평균 15.2개월로 나타났다(표 5-47 참조).

〈표 5-47〉 첫 일자리(직장) 취업기간

(단위: 개월)

	전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이하
				실업계	인문계	
<b>첫 일자리(직장) 평균 취업기간</b>	<b>15.2</b>	13.9	16.3	16.8	12.0	11.3

〈표 5-48〉 첫 일자리(직장)를 그만둔 주된 사유

(단위: 명, %)

	전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체	6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근로여건 불만족으로</b>	<b>156</b>	<b>25.0</b>	<b>27.2</b>	<b>25.4</b>	<b>22.2</b>	<b>25.0</b>	9.1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74	11.9	9.9	12.4	13.3	13.9	18.2
<b>진학 및 복학의 사유로</b>	<b>74</b>	<b>11.9</b>	15.1	10.0	11.1	8.3	0.0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	56	9.0	6.0	10.0	11.9	8.3	18.2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	45	7.2	8.2	7.7	5.9	2.8	9.1
기타	42	6.7	6.9	6.7	8.1	0.0	9.1
계약기간이 끝나서	41	6.6	6.0	4.8	10.4	5.6	9.1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30	4.8	4.7	3.8	4.4	11.1	9.1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28	4.5	4.3	5.3	3.7	5.6	0.0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28	4.5	5.2	4.8	1.5	8.3	9.1
회사내 인간관계 때문에	25	4.0	3.0	5.3	3.0	8.3	0.0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	15	2.4	1.7	2.4	3.7	2.8	0.0
창업 또는 가족사업에 참여하려고	9	1.4	1.7	1.4	0.7	0.0	9.1

첫 일자리(직장)를 그만둔 주된 이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으로(25%)’ 이 가장 높게 나왔고,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와 ‘진학 및 복학의 사유로’가 11.9%로 다음 순이었다. 중졸 이하를 제외한 다른 학력별로는 그만둔 사유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경우 그만둔 사유로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와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 최근 일자리

〈표 5-49〉 최근 일자리(직장)의 구직경로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6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고	친구나 선배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86	13.1	14.6	12.2	13.7	10.0	0.0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63	9.6	6.7	9.4	12.9	15.0	<b>22.2</b>
	학교(학원)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59	9.0	8.3	12.2	5.8	7.5	11.1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39	6.0	6.3	5.6	5.0	10.0	0.0
<b>연고를 통해</b>		<b>247</b>	<b>37.8</b>	<b>36.0</b>	<b>39.4</b>	<b>37.4</b>	<b>42.5</b>	<b>33.3</b>
<b>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b>		<b>130</b>	<b>19.9</b>	22.1	24.4	12.9	10.0	0.0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75	11.5	8.3	11.7	18.0	10.0	0.0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44	6.7	11.1	3.8	3.6	5.0	11.1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43	6.6	7.5	4.2	7.9	10.0	0.0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33	5.0	6.7	2.8	4.3	2.5	<b>33.3</b>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19	2.9	2.4	3.3	2.9	5.0	0.0
인력파견업체를 통해서		19	2.9	1.6	4.2	3.6	2.5	0.0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19	2.9	0.8	1.4	5.8	10.0	<b>22.2</b>
학교 내의 직업소개기관을 통하여		16	2.4	2.4	2.8	2.2	2.5	0.0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7	1.1	1.2	0.9	1.4	0.0	0.0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2	0.3	0.0	0.9	0.0	0.0	0.0



최근 일자리의 구직경로를 보면 ‘연고를 통해(37.8%)’,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19.9%)’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인 경우 ‘연고를 통해’,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가 33.3%로 나타났으며,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가 22.2%로 다른 학력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연고를 통해’,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조사한 현재 구직경로에서는 ‘연고’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 수집을 한다고 나타났으나, 실제 최근 일자리의 구직경로는 ‘연고’를 통해 많이 구했다고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경험한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여부에 ‘그런대로 일치(36%)’와 ‘매우 불일치(35.2%)’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 살펴보면 ‘그런대로 일치’와 ‘매우 불일치’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0〉 최근 일자리의 전공과의 일치여부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6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불일치	233	35.2	34.9	34.1	38.2	31.6	40.0
약간 불일치	119	18.0	17.3	20.1	13.9	26.3	20.0
그런대로 일치	238	36.0	36.9	31.8	42.4	31.6	30.0
매우 일치	71	10.7	11.0	14.0	5.6	10.5	10.0

#### 4. 정부 청년실업대책

##### 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그 이유로는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39.9%)'이 가장 많이 차지하여 눈높이가 높음을 응답자들이 자인하였고,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34.4%)'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고,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을 그 다음 이유로 응답하였다. 대졸 이상을 제외한 응답자를 보면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표 5-51〉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비율	전문 대학 비율	고졸		중졸 이하 비율
	응답수	비율			실업계 비율	인문계 비율	
전 체	1,7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	708	39.9	34.3	44.4	43.0	44.4	44.7
일자리 부족	611	34.4	37.3	33.8	32.0	29.0	28.9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	282	15.9	17.2	15.6	14.1	14.5	18.4
일자리 정보 부족	130	7.3	8.1	5.0	8.7	7.3	5.3
기타	45	2.5	3.1	1.3	2.2	4.8	2.6

#### 나. 청년실업대책

다음으로는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여 인지, 참여여부 및 만족도, 참여희망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약 7~8%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청년실업대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에 대해서도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9.3%로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2% 정도 참여하였다. 5점 척도로 5점은 ‘매우 만족’, 1점은 ‘매우 불만족’으로 평균을 내어 참여만족도를 계산한 결과, 참여만족도는 평균 3.5점 정도이나 응답수가 많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희망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참여희망에 대해 세심히 살펴 많은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52〉 청년실업대책 인지·참여·희망에 대한 비율

(단위: %)

	방문		참여		참여 만족도		희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점수	응답수	비율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0	0.0	167	9.3	165	3.9	99	5.5
고학력 미취업자 전문교육	0	0.0	43	2.4	41	3.2	0	0.0
문화체험을 통한 고용창출	34	1.9	23	1.3	22	3.2	0	0.0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0	0.0	28	1.6	27	3.2	0	0.0
무역 전문인력 교육	0	0.0	22	1.2	22	3.5	0	0.0
벤처인력 인큐베이터사업	0	0.0	21	1.2	21	3.5	48	2.7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	123	6.8	47	2.6	43	3.7	67	3.7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141	7.9	37	2.1	34	3.5	0	0.0
IT인력 해외취업연수	0	0.0	23	1.3	22	3.6	0	0.0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지원	0	0.0	17	0.9	16	3.8	0	0.0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	136	7.6	36	2.0	34	3.5	104	5.8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143	8.0	48	2.7	43	3.7	94	5.2
비진학 청소년 훈련	0	0.0	16	0.9	15	3.3	40	2.2
청소년 미취업자 등 직업훈련	0	0.0	64	3.6	52	3.6	73	4.1

주: ‘인지’보다 ‘참여’의 응답자가 많은 이유는 ‘인지’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인 것으로 보임.

#### 다. 체험 후의 효과

정부실업대책 체험 후의 효과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 1,796명 중에 278명이 체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취업과 실무에 모두 도움이 됨(3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른 학력 응답자들에 비해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안 됨’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실무에만 도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중졸 이하는 ‘취업에만 도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5-53〉 정부 청년실업대책 참여 후의 효과

(단위: 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2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에만 도움	48	17.3	16.2	17.9	17.2	14.3	<b>66.7</b>
실무에만 도움	<b>70</b>	<b>25.2</b>	23.5	23.9	27.6	<b>35.7</b>	33.3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b>108</b>	<b>38.8</b>	<b>36.0</b>	<b>43.3</b>	<b>43.1</b>	<b>35.7</b>	0.0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 안됨	52	18.7	<b>24.3</b>	14.9	12.1	14.3	0.0

#### 라.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33.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기대책에만 치중(20.7%)’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과 전문대학 졸업자를 보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단기대책에만 치중'에 응답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홍보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받아도 성과가 없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졸 이하는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과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같은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낮은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54〉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2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429	33.9	35.6	37.3	28.3	32.9	23.1
단기대책에만 치중	262	20.7	25.3	22.0	12.7	16.5	7.7
홍보부족	166	13.1	11.4	11.7	17.7	14.1	15.4
일부업종(IT분야)에 집중됨	145	11.5	11.2	13.3	10.2	8.2	19.2
받아도 성과가 없음	118	9.3	9.1	5.7	11.3	18.8	3.8
까다로운 자격조건	116	9.2	5.8	8.0	16.3	8.2	23.1
기타	28	2.2	1.6	2.0	3.5	1.2	7.7

## 5.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 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전체 응답자 1,796명 중 '취업의사가 없다'에 응답한 응답자는 150명이었다.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를 차지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

〈표 5-55〉 취업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

	전 체		대학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1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	33	22.0	33.3	27.8	7.0	0.0	0.0
진학을 준비중	30	20.0	13.3	13.9	30.2	30.0	100.0
자격시험 준비중	18	12.0	11.7	13.9	11.6	10.0	0.0
취직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17	11.3	11.7	16.7	9.3	0.0	0.0
예전에 구직활동을 했으나, 잘되지 않아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11	7.3	5.0	5.6	9.3	20.0	0.0
기타	10	6.7	11.7	0.0	4.7	10.0	0.0
군입대 대기	9	6.0	1.7	0.0	18.6	0.0	0.0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8	5.3	1.7	11.1	2.3	20.0	0.0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5	3.3	1.7	0.0	7.0	10.0	0.0
창업을 준비중	4	2.7	3.3	5.6	0.0	0.0	0.0
결혼준비중	4	2.7	3.3	5.6	0.0	0.0	0.0
신용불량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1	0.7	1.7	0.0	0.0	0.0	0.0

(22%), '진학을 준비중(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졸 이상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졸 이하는 '진학을 준비중'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나.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구직활동여부가 월평균 생활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더니, 졸업자 전체 월평균 생활비는 41만원으로 나타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38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1만원으로 나타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는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보았더니 구직활동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분포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5-56〉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월평균 생활비

(단위: 명, %)

	전 체		구해봄	구해보지 않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42	100.0	100.0	100.0
10만원 미만	107	6.1	6.2	5.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72	15.6	15.6	16.3
<b>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b>	<b>429</b>	<b>24.6</b>	<b>24.3</b>	28.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407	23.4	22.9	<b>28.9</b>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89	16.6	17.2	9.6
7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135	7.7	8.0	4.4
100만원 이상	103	5.9	5.8	6.7
월평균 생활비(만원)		41	41	38

전체 응답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보조받음(29.2%)’, ‘저금해 놓은 돈(28.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저금해 놓은 돈’, ‘부모님께 보조받음’ 순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하였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부모님께 보조받음’ 순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57〉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명, %)

	전 체		구해봄	구해보지 않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717	100.0	100.0	100.0
부모님께 보조받음	501	29.2	29.2	29.4
저금해 놓은 돈	488	28.4	29.3	18.4
아르바이트	425	24.8	24.1	32.4
기타	303	17.6	17.5	19.9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267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265만원’으로 나타나, 가족의 소득이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의존도에 따른 구직활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7)</sup>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200만원 이상~2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본 결과, 유의확률이 0.286으로 일반적인 유의수준 0.05 나 0.1에 의하여 구직활동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17) 이병희(2004)의 청년실업의 원인인 가족의존도 부분의 내용과 다름.



수 있다<sup>18)</sup>(표 5-59 참조). 따라서 졸업예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의존도 부분은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청년실업 및 구직자 모두 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관계없이 적극적 구직자로 판단하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58〉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평균

(단위: 명, %)

	전 체		구해보	구해보지 않음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87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146	8.7	8.9	5.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14	12.7	12.6	13.5
<b>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b>	<b>260</b>	<b>15.4</b>	<b>15.3</b>	<b>16.5</b>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35	13.9	14.0	12.8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86	11.0	10.6	15.8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220	13.0	12.7	<b>16.5</b>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1	7.2	7.5	3.0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102	6.0	6.0	6.8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2	4.3	4.3	3.8
500만원 이상	131	7.8	7.9	6.0
<b>가족의 월평균 소득(만원)</b>		<b>267</b>	<b>267</b>	<b>265</b>

18) 구직빈도와 가족월소득 간의 상관관계, 즉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구직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 졸업자의 경우 구직빈도가 월 4회 이상인 경우 가족월소득이 267만원, 월 3~4회 270만원, 월 1~2회 261만원, 2~3개월에 1회 이하 279만원으로 나타나, 구직빈도와 월가족소득수준 간의 관계는 유의도 0.052로 유의하지만 가설과는 반대로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59〉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에 대한  $\chi^2$  검정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0.9	9	0.286
Likelihood Ratio	11.7	9	0.232
N of Valid Cases	1,687		

## 6. 고용안정센터

### 가.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여부

고용안정센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방문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77.3% 정도 고용안정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74.6%가 고용안정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77.3%가 고용안정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로 볼 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인지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

고용안정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 71.3%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보았다고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방문 비율이 65.8%로 가장 낮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고졸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대졸 이상의 방문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 방문자는 고졸 이하 학력소지자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관념이 잘못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졸자에 대한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이 청년실업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파악된다.

〈표 5-60〉 학력별·성별 고용안정센터 인지 및 방문

(단위:명, %)

	전체	고용안정센터 인지				고용안정센터 방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응답수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응답수	비율	비율	비율	
<b>전 체</b>	<b>1,365</b>	<b>1,055</b>	<b>77.3</b>	<b>35.5</b>	<b>64.5</b>	<b>752</b>	<b>71.3</b>	<b>32.7</b>	<b>67.3</b>	
대졸 이상	608	450	74.0	36.7	63.3	296	65.8	31.8	68.2	
전문대학	337	284	84.3	26.1	73.9	217	76.4	26.7	73.3	
고졸	실업계	304	242	79.6	41.7	58.3	180	74.4	37.2	62.8
	인문계	89	57	64.0	35.1	64.9	42	73.7	38.1	61.9
중졸 이하	27	22	81.5	68.2	31.8	17	77.3	64.7	35.3	

#### 나.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및 효과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로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48.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관련(28.8%)’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과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업급여 수급 관련’이 다음으로 높았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도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이 가장 높고, ‘실업급여 수급 관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는 ‘직업훈련 안내 및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안정사업 관련’이 10.5%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 때문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있지만, 학력별로 방문 이유가 다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대상에 따라 적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적당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61〉 고용안정센터 방문 이유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실업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7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	379	48.2	52.8	46.9	46.0	40.4	31.6
실업급여 수급 관련	226	28.8	22.7	38.8	28.3	27.7	15.8
직업훈련 안내 및 상담	82	10.4	8.7	8.0	11.8	14.9	42.1
자활 및 실업대책사업	39	5.0	6.8	2.7	4.8	6.4	0.0
기타	38	4.8	6.1	2.7	5.3	6.4	0.0
고용안정사업 관련	22	2.8	2.9	0.9	3.7	4.3	10.5

고용안정센터 내의 자료가 방문자를 위해 잘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센터 내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48.7%)'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

〈표 5-62〉 고용안정센터 내의 자료정리 정도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하
	응답수	비율			비율	실업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잘 정리되어 있음	225	28.6	20.5	32.9	36.2	27.1	38.9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	383	48.7	51.3	46.7	46.3	52.1	44.4
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166	21.1	26.0	19.6	15.4	20.8	16.7
전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13	1.7	2.3	0.9	2.1	0.0	0.0

다. 학력별로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대졸 이상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잘 정리됨’에 대한 비율이 약간 낮았다.

고용안정센터 방문 후의 효과를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됨(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다른 학력에 비해 ‘도움이 됨’에 대한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졸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방문한다고 생각하여 그들 위주로 정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5-63〉 고용안정센터 방문 후의 효과

(단위:명, %)

	전 체		대졸 이상	전문 대학	고졸		중졸 이상
	응답수	비율			실업계	인문계	
전 체	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도움됨	138	17.5	12.6	20.0	22.5	14.6	29.4
<b>어느 정도 도움이 됨</b>	<b>496</b>	<b>63.0</b>	<b>63.2</b>	<b>63.1</b>	<b>62.6</b>	<b>68.8</b>	<b>47.1</b>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33	16.9	21.3	14.7	12.3	14.6	23.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0	2.5	2.9	2.2	2.7	2.1	0.0
<b>만족지수</b>		<b>3.8</b>	<b>3.6</b>	<b>3.8</b>	<b>3.9</b>	<b>3.8</b>	<b>3.8</b>

### 제3절 졸업자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센터, 파견업체, 채용박람회 등의 도움을 받아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재상태, 희망직업분야, 직업훈

런사항 및 경력사항, 그리고 정부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학력별·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로 '30~100인 미만(32.3%)'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30인 미만(17%)'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적응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졸 이상도 30% 정도가 '30~100인 미만'을 선택하고 있어서 기존의 희망추이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졸업예정자의 경우 '30~100인 미만'이 23% 정도였는데 비해 졸업자의 경우 32%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적응 현상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될 경우, '중소기업생산직이라도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26.4%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에도 17.9%가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자리(78.5%)',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69.3%)'와 '희망직종이 아닌 일자리(62.9%)'에 60% 이상 강한 긍정을 보였고,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51.9%가 수용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졸업예정자들의 응답보다 전체적으로 긍정 비율이 다소 낮는데, 졸업자들은 이러한 비적성(72.7%)·하향(66.6%)·중소생산직(37.2%)·비정규직(55.5%)에 대한 취업 경험이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많아서 현실적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아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므로 중소기업 구인정보의 집적성,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이 청년실업해소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될 경우, 비적성, 하향, 중소기업생산직, 비정규직 등 어떤 고용형태라도 거부하는 응답자의 거부이유에 대하여는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73.7%)'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넷째, 응답자의 92.2%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

업경험은 있으나 현재 직업을 구하는 상태'가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소지자들은 60% 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상태라 응답하여, 직장에서의 정착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졸업 후 평균 실업기간은 7.4개월로 나타났으나, 중졸 이하의 경우 8개월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졸 이하의 경우 실업기간이 '1~2개월'에 40.7%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2년 이상의 장기 실업상태의 비율이 11.1%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이력서 제출 횟수는 평균적으로 13.1회이나 중졸 이하는 4.3회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저학력자의 구직빈도가 낮은 것은 일자리 수와 정보의 부족이 주원인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학력자들에 대한 취업기회(예: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업체 선택기준에 대하여는 '연봉수준(32.8%)',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28.4%)'을 들고 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전공과의 적합성(33.4%)', '직업의 안정성(29.3%)'으로 업체를 선택한다고 하여 졸업자와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예정자들에 비해 취업 및 현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구직경로를 보면,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서(39.9%)', '연고를 통해(21.1%)' 순으로 구직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직업을 구한 방법을 살펴보면, '연고를 통해서(38.7%)', '인터넷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서(19.9%)'로 나타나 실제 직업을 구한 경로는 '연고를 통해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조사가 74.6%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7%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안정센터를 많이 방문하고는 있으나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을 구직경로로 이용하는 현실적 활용도는 아직 낮다고 판단된다. 중졸 이하의 경우 최근 구직경로를 보면, '연고를 통해',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정보를 통해'가 각각 33.3%로 나타났으며,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가

22%로 나타나 다른 학력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홉째,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대한 질문결과를 보면,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53.9%)',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25.1%)'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도가 8.4%로 활용도가 낮았는데, 졸업자의 경우 25.1%로 예상보다 높은 이용도가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의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도가 21.4%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대졸 및 전문대졸이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불식시키고 있으므로, 대졸 및 전문대졸 이상에 대한 구인정보 수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열째,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음'이라고 학력에 상관없이 50% 이상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이 19% 정도 나타났다.

열한째, 고용안정센터에 77.3%가 방문을 하였고, 특히 대졸 이상 65.8%, 전문대졸 76.4%로 고졸 이하만 방문한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높게 나오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의 방문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안정센터 방문자는 고졸 이하 학력자라는 관념 및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안정서비스 역할의 효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졸자에 대한 구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이 청년실업을 해소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고 판단된다.

열두째, 고용안정센터 방문이유는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48.2%)'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 중졸 이하의 고용안정센터 방문 목적은 '직업훈련 안내 및 상담'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은 약 13% 정도 '직업훈련'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므로 이에 따른 적당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열셋째,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57.3%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



설학원(55.7%)’에서 ‘컴퓨터 분야(44.6%)’, ‘어학분야(15.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열넷째, 직업체험 및 취업경험은 50.9%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직업체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1회의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 고용형태는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3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문대졸은 ‘학교의 현장실습’도 26.2%로 높게 나타나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20.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열다섯째, 직업체험에 종사한 분야는 ‘사무분야(40.2%)’, ‘서비스 및 영업분야(32.4%)’ 순으로 나타나지만, 중졸 이하의 경우 ‘생산기능분야(50%)’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열여섯째, 직업체험의 직업선택 및 취업에의 효과를 보면,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에 5점 척도 중 3.6점을 나타내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공과의 부합성은 33.1%가 ‘다소 부합되는 편’이라 응답하였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 ‘전혀 무관함’도 22.8% 정도 응답하였다.

열일곱째, 첫 일자리 업종은 ‘기타(부동산,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46.6%)’, ‘제조업(21.1%)’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고 응답하였다. 일의 형태는 ‘사무종사자(39.8%)’, ‘서비스 종사자(22.2%)’이며, 첫 직장 평균 취업기간은 15.2개월이며, 월급은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53.4%)’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평균월급은 98만원이라 응답하였다.

열여덟째,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의 전망이 없어서’와 ‘진학 및 복학의 사유’가 각각 11.9%로 나타났다.

열아홉째, 실업기간 중 전체 응답자의 54.5%가 취업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취업제의를 받은 평균 횟수는 4.4회로 나타났다. 학력

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57.7%, 전문대졸이 59.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업제의를 받았으나 ‘임금수준(29.6%)’, ‘직업의 안정성의 부족(18.7%)’ 때문에 거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근로조건에 대한 현실적 적응력이 부족하고, 또한 실질적 중견기업이 부족하여 학력에 맞는 직업선택의 수급상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물째, 취업희망 업종에 대하여는 ‘금융 및 보험업(29.8%)’,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21%)’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에서는 ‘제조업’에 4%만 희망하여 제조업이 기피업종으로 인지되었으나 졸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에도 16.5% 정도가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제조업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스물한째, 취업희망지역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수도권·서울지역(53.4%)’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서울지역에 사는 응답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신의 최종학교 지역 및 인근지역(52.2%)’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나타나, 졸업예정자의 ‘수도권·서울지역’ 집중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스물두째, 희망최소연봉수준은 ‘1,200만~1,500만원 미만’에 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평균희망최소연봉은 1,809만원으로 나타났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1,800만~2,000만원 미만’에 1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평균 1,988만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졸업자는 더 현실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희망연봉이 높으나, 취업경험이 다른 학력에 비해 많은 전문대 졸업자는 평균희망최소연봉을 낮게 측정하였다(전문대 졸업자 취업경험 86.5%, <표 5-7> 참조).

스물셋째,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로는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여 ‘눈높이 문제’를 자인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졸업자들은 여전히 ‘눈높이 문제’가 남아 있으나, 졸업예정자에 비해 졸업자들은 좀더 현실적으로 취업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취업지역에 대해서도 졸업예정자와 달리 ‘수도권·서울지역’을 강하게 고집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희망이

16.5%인 것으로 보아 제조업 수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물넷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5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월평균 '267만원'이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여부에 따른 가족 월소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정을 해본 결과, 유의확률이 0.286으로 유의수준 0.05나 0.1에 의하여 구직활동에 따른 가족 월소득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존도 부분은 구직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청년실업 및 구직자 모두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적극적 구직자로 판단하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물다섯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또한,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에 5% 정도 응답하였고, 14개 항목 중 7개에는 참여희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스물여섯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참여 후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8% 정도로 나타났고, '취업과 실무 모두에 도움이 안됨'도 18.7% 정도 있었다.

스물일곱째,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기대책에만 치중'이 20.7%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참여희망을 세심히 살펴, 현실에 알맞은 정책을 선별하여 전략적·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물여덟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 대졸 이상이나 전문대졸은 '공무원시험 등 각종 취업시험 준비중'이라 응답하였고, 고졸 및 중졸 이하는 '진학을 준비중'이라 응답하였다.

## 제 6 장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분석

### 제1절 선진국예산 비교분석

#### 1. 실업대책 예산 전체 비교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예산의 현황을 선진국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OECD 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실업예산/GDP 비율을 보면, 선진 5개국의 평균이 2002년에 1.72%를 보여 우리나라의 0.41%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표 6-1 참조).

실업률을 표준화한 실업예산/GDP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실업률표준화 지수가 우리나라는 12.81로서, 5개국 평균인 20.86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으며, 유럽 국가인 독일, 프랑스에 비해 1/3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 2.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 비교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을 각국의 GDP 대비를 통해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0.02%로서 5개국 평균인 0.13%에 비해 1/6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 중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의 비중

을 보면, 우리나라는 7.7%로서 5개국 평균 15.9%에 비하여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업대책 예산 중 적극적 예산<sup>19)</sup>이 전체의 65%이고, 적극적 예산 중 청년층 대책 비율이 7.7%로서 청년층에 대한 대책 예산 비중이 극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3 참조).

〈표 6-1〉 선진국의 실업예산/GDP 비율(2002년)

(단위: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평균 <sup>2)</sup>
1. 취업알선	0.05	0.17	0.23	0.18	0.04	0.18	0.16
2. 직업훈련	0.07	0.02	0.32	0.23	0.03	0.04	0.13
3. 청년층대책	0.02	0.13	0.1	0.4	0.02	0.01	0.13
실업·장애	0.01	0.03	0.09	0.25	0.02		0.10
직업훈련		0.1	0.02	0.15			0.09
4. 고용보조금 <sup>1)</sup>	0.11	0.3	0.22	0.35	0.01	0.06	0.19
5. 장애인고용	0.02	0.02	0.3	0.09	0.03	0.01	0.09
6. 실업급여	0.14	0.37	2.1	1.63	0.57	0.47	1.03
7. 조기퇴직			0.03	0.17			0.10
전 체	0.41	0.75	3.31	3.06	0.71	0.76	1.72
적극(1~5)	0.27	0.37	1.18	1.25	0.14	0.28	0.64
소극(6~7)	0.14	0.37	2.13	1.81	0.57	0.48	1.07
GDP(경상가격) <sup>3)</sup>	684,263	1,044	4,128	10,025	10,487	498,102	
실업률							
전체	3.2	5.1	8.7	8.9	6.1	5.6	6.9
청년(15~24)	8.1	11	9.8	20.2	12	10	12.6

주: 1) 공공근로 예산 포함.

2)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

3) 단위: 유럽 10억유로, 미국 10억달러, 일본 10억엔, 한국 10억원.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4.

19)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이란 전체 실업대책 예산 중 실업급여 등 실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비용성격의 소극적 비용을 제외한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welfare to work'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실업예산/GDP 비율의 추이를 보면, 전체예산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율은 전체 실업대책 예산 감소율과 같이 하고 있어 청년층 실업대책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표 6-4 참조).

〈표 6-2〉 실업률을 표준화한 실업예산/GDP 비율(2002년)

(단위: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평균*
실업률표준화지수	12.81	14.71	38.05	34.38	11.64	13.57	20.86
적극	8.44	7.25	13.56	14.04	2.30	5.00	8.43
소극	4.38	7.25	24.48	20.34	9.34	8.57	12.39
총계	0.41	0.75	3.31	3.06	0.71	0.76	0.494
적극(1~5)	0.27	0.37	1.18	1.25	0.14	0.28	0.644
소극(6~7)	0.14	0.37	2.13	1.81	0.57	0.48	1.072
실업률(전체)	3.2	5.1	8.7	8.9	6.1	5.6	6.27
GDP(경상가격)	684,263	1,044	4,128	10,025	10,487	498,102	

주: 실업률표준화지수란 실업예산/GDP의 % 비율을 실업률로 표준화한 지수임. 구체적으로는(실업예산/GDP)×100÷(실업률÷100) = (실업예산/GDP)×100÷(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4.

〈표 6-3〉 적극적 실업대책 예산 비교(2002년)

(단위: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평균 <sup>1)</sup>
1. 취업알선	19.2	26.6	19.5	14.4	30.8	62.1	30.7
2. 직업훈련	26.9	3.1	27.1	18.4	23.1	13.8	17.1
3. 청년층대책	7.7	20.3	8.5	32.0	15.4	3.4	15.9
실업·장애	3.8	4.7	7.6	20.0	15.4	0.0	10.8
직업훈련	-	15.6	1.7	12.0	0.0	0.0	9.8
4. 고용보조금	42.3	46.9	18.6	28.0	7.7	20.7	24.4
5. 장애인고용	7.7	3.1	25.4	7.2	23.1	3.4	12.5

주: 1)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4.

〈표 6-4〉 한국의 실업예산/GDP 비율 추이

(단위: %)

	1999	2000	2001	2002
1. 취업알선	0.04	0.04	0.05	0.05
2. 직업훈련	0.11	0.09	0.08	0.07
3. 청년층대책	0.04	0.03	0.02	0.02
실업·장애	0.01	0.01	0.01	0.01
직업훈련	0.03	0.02	0.01	
4. 고용보조금	0.51	0.31	0.14	0.11
5. 장애인고용	0.01	0.01	0.01	0.02
6. 실업급여	0.19	0.09	0.15	0.14
7. 조기퇴직				
전 체	0.89	0.58	0.46	0.41
적극(1~5)	0.29	0.49	0.31	0.27
소극(6~7)	0.51	0.09	0.15	0.14
GDP(경상가격)	529,500	578,665	622,123	684,263
(단위: 10억원)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4.

## 제2절 청년층 예산 분석 및 시사점

청년층 예산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청년실업 예산으로 분류된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4.10.5 집계기준)를 살펴보았다.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뉴패러다임센터 지원, 산학연 협력체 제 활성화 지원 등 직접적인 청년실업 예산이라 보기에는 거리가 먼, 국민 전체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예산이 청년실업대책 예산이라는 항목 아래 집계되고 있었다. 즉, 집계 분류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년 실업 예산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류상의 시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 청년실업 대책 예산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청년실업대책의 중분류 항목을 보면, 직장체험(연수 인턴) 활성화, 단기일자리 제공, 해외취업 인턴 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 청년취업 관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신성장 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나누기, 교육개혁을 통한 구조적 실업대책의 8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청년실업 항목을 기존의 청년실업대책 항목과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 중요성이 지적되어온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다. 첫째, 대학학력의 공급과다이고, 둘째,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더딘 것이고, 셋째,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문제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구조적 실업대책, 청년취업 관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정인수, 2004; 기획예산처, 2002)이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합동발표(2003. 11)한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보다 중소기업 지원, 교육개혁을 통한 구조적 실업대책<sup>20)</sup> 등은 진일보한 예산항목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 항목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새로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항목에 예산 배분이 많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외에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있다. 교육개혁을 통한 구조적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 실제 청년실업 예산인가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그 자체를 예산으로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04년 110억원이 배정되어 1,000%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160억원으로 45%의 증가를 보였다.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분야의 경우에도 2003년의 221억원에서 2004년 328억원, 2005년 1,519억원으로 각각 48%, 362%의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적인원

20) 교육개혁 부문은 대부분 산학련 협력체제 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 배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대학학력이 나이 또래의 85%를 배출함에도 실제 수요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30%도 되지 않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은 아님.



및 계획인원도 2004년 2,228명에서 2005년 3만 3,604명으로 1,408%의 파격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청년실업 예산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예산 중 직업훈련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적 직업훈련 비중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 예산의 항목 중 직업훈련 부문의 OECD 5개국 평균이 GDP의 0.09로 나타났고, 청년실업대책이 GDP의 0.10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청년실업 예산 중 청년층 직업훈련 강화부문 예산은 1,935

〈표 6-5〉 청년실업대책 예산(2004.10.5 집계기준)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 <sup>1)</sup>	2003예산 (추경포함)		2004예산 (합계)		2005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증가율(%)			
	국비	인원	국비	인원	국비	인원	(2003예산/ 2004합계)		(2005예산안/ 2004본예산+추경)	
							예산	인원	예산	인원
① 직장체험(연수·인턴) 활성화	919	51,000	1,551	80,455	1,117	82,260	68.8	57.8	-27.9	22
② 단기 일자리 제공	869	9,798	1,245	12,843	1,042	9,358	43.3	31.1	-16.3	-27.1
③ 해외취업·인턴 활성화	159	1,798	470	5,398	452	4,903	196.4	200.2	-3.9	-9.2
④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1,605	51,725	2,034	60,037	1,935	58,737	26.7	16.1%	-4.8	-2.2
⑤ 청년취업관련 인프라확충	121	0	299	-	257	0	147.9	-	-13.8	-
⑥ 중소기업 유휴일자리충원	221	1,964	328	2,228	1,519	33,604	48.8	13.4%	362.8	1408.3
⑦ 신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나누기	0	0	20	-	20	0	-	-	0.0%	-
⑧ 교육개혁을 통한 구조적 실업대책	10	0	110	100	160	460	1000.0	-	45.5	360.0
진 체 (공공부문 일자리 제외) <sup>1)</sup>	3,903	116,285	6,057	161,061	6,504	189,322	55.2	38.5	7.4	17.5
○ 예 산	2,396	76,026	3,883	114,763	3,228	113,858	62.1	51.0	-16.9	-0.8
○ 기 금	1,508	40,259	2,174	46,298	3,275	75,464	44.2	15.0	50.7	63.0

주: 1) 공공부문 일자리(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연수)는 연말에 집계되므로, 본 통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

억원으로서 전체 청년층 예산의 29%에 불과하였다(표 6-1 참조). 따라서 직업훈련 부문에 대한 예산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졸 이하 실업자 수나 실업률이 높고, 이들 고졸 이하 청년층의 직업훈련 부족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취업과 실업을 왔다갔다 하는 비정착적 미취업이 많다는 지적(정인수, 2004)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실한 예산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 제 7 장 대상별 정책과제

### 제1절 정책대상의 범위와 구분

대상별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책대상의 범위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구직을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므로, 적어도 1장의 청년실업현황에서 살펴본 중위<sup>21)</sup>의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까지(2004년 10월 현재 66만명)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월평균 '265만원'이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월평균 '267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hi^2$  검정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의 가족의존도와 구직활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청년층을 취업애로 계층으로 정책대상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구분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고졸자, 그리고 인문계 고졸자 및 고중퇴를 포함한 중졸 이하자로 4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

---

21) 제2장의 <표 2-4>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조.

이 학력 및 전공의 차이를 고려한 이상적인 구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년일반에 대한 정책과제와 인문계 고졸 및 중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2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sup>22)</sup>.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남녀별 차이의 경우 희망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남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책대상으로 성별 구분은 별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비적성·하향·중소기업생산직·비정규직 취업 수용여부에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은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에 각각 80%, 65%의 응답을 표시하였다. 반면, 실업계 및 인문계 고교 출신은 40%대의 응답을 나타냈다.

졸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대학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 전공, 직업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경우, 실업계는 전공과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인문계 및 중졸 이하는 전공이나 직업훈련,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력 및 전공과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졸 이하자는 이력서 제출 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히 낮고,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이유도 직업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안되는 이유로 취업정보부족에 다른 학력과 달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정부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많이 응답하여 대상범위에 들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어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과제를 대상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할 부분은 많지 않고,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 장에서의 정책과제 기술의 방법은 공통적 정책과제 위주로 제시하되, 대상별 공통 정책과제를

22) 논리 근거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함.

하나의 절로 묶고 특별히 강조해야 할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절에서 따로이 기술하는 것이 실용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제2절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방향

정책방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운용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제2장의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구조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학력별 수급불일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문제, 중견기업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문제, 고용안정인프라 부족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성장동력 확충, 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전자·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기반과 경쟁력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현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될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sup>23)</sup> 및 기간산업의 성장기반과 경쟁력 강화가 실업대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력별 수급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자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제도의 변화, 즉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여 대학졸업자의 질과 수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거론될 수 있으나 경제·산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장기적 검토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는 생략하겠다<sup>24)</sup>.

23)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창출 내용은 <부록 3> 참조.

24) 대학교육을 미국의 community college 형식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상

셋째,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급 학교별 교과과정에서 사회와 노동수요의 연계, 직장체험의 확대, 직업 및 진로지도의 강화, 각급 수준의 학교와 지역별 산업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중견기업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경제·산업정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중 중요한 부분인 생산기능 인력의 육성을 지역별·업종별로 개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은 고용안정센터 인력의 확충, 고용안정센터의 운영 개선과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워크넷·고용보험전산망·직업훈련전산망 등을 연계한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고용안정센터와 지역고용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청년층 실업대책에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과제로 상론하고자 한다.

### 제3절 정책 과제(대상별 공통대책)

우선, 대상별 공통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반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

당수를 주로 지역 주민 재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대학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될 때 현재 80% 가까운 대학진학률을 미국 수준(50%)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재교육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재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 대학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와 별칙(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졸업생 취업률이 일정선 이하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축소 등) 강화, 재교육으로 획득한 학위에 대한 동등 자격 보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임.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및 인력개발, 직업체험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활화 대책, 지역 차원의 청년층 대책강화, 정부 청년층 실업대책의 현실화와 홍보, 청년층 눈높이 조절을 위한 청년층 취업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언론 홍보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한다.

## 1.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간산업 및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전자, 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간산업에 IT를 접목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유통,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평균 8%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고용증가의 특징은 지식집약, 기술집약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낮은 지식, 하위기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고학력·디지털·감성세대인 청년층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IT·BT 외에 문화콘텐츠산업 등 신세대의 창의력과 감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층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이 직업세계로 나가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에 특화되고 적합한 창업 가능 업종 및 기업 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청 내에 '청년층창업지원센터(가칭)'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층의 해외연수 및 해외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와 IT 경기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층의 해외연수 및 해외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업종도 IT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역도 미국·인도에서 중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담당기관을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과 파트타임 근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에서의 자료입력 정리, 사회복지·아동지도·고용안정서비스 등에서의 공공지원인력 제공 등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주 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의 활성화를 위한 적합 직종 개발, 법제도 정비 및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지원(2004년부터 5년간 86천명)을 강화하고, 유한 킴벌리의 4조 2교대 모델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뉴패러다임 모델을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안정센터 업무의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최하위인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직원수를 2004년 3월 현재의 2.17배(2,393명 → 5,188명)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가 최소한 일본 수준에 도달하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7-1〉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인력의 비교

	일본 (1997)	독일 (2001)	영국 (1997)	미국 (1997)	한국 (2004.3)
직원수(명)	15,324	85,840	35,992	70,682	2,393
경제활동인구(천명)	67,650	40,121	29,470	143,006	22,906
직원1인당 경제활동인구(명)	4,415	467	819	2,023	9,572

자료: ILO,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r Market*, 2001.



〈표 7-2〉 선진국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예산/GDP 비율(2002년)

(단위: %)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5개국평균
취업알선	0.05	0.17	0.23	0.18	0.04	0.18	0.16
GDP(경상가격) (화폐단위는 주 참조)	684,263	1,044	4,128	10,025	10,487	498,102	

주: 1) 한국을 제외한 5개국 평균.

2) 단위 : 유럽 10억유로, 미국 10억달러, 일본 10억엔, 한국 10억원.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집적을 위해 예산배정을 확대해야 한다. 대졸 및 전문대 학력을 가진 청년층이 고용안정센터 워크넷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지역권역별 워크넷DB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로 '30~100인 미만(22.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현실 적응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20% 정도가 '30~100인 미만'을 선택하고 있어서 기존의 희망 추이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될 경우, 중소기업생산직이라도 취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25%가 수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55%가 수용하겠다고 응답을 보여 청년실업을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므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자료의 집적 및 데이터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고용안정센터 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에 48%가 응답하였다. 고용안정센터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4년제 및 전문대 졸업예정자의 경우가 오히려 고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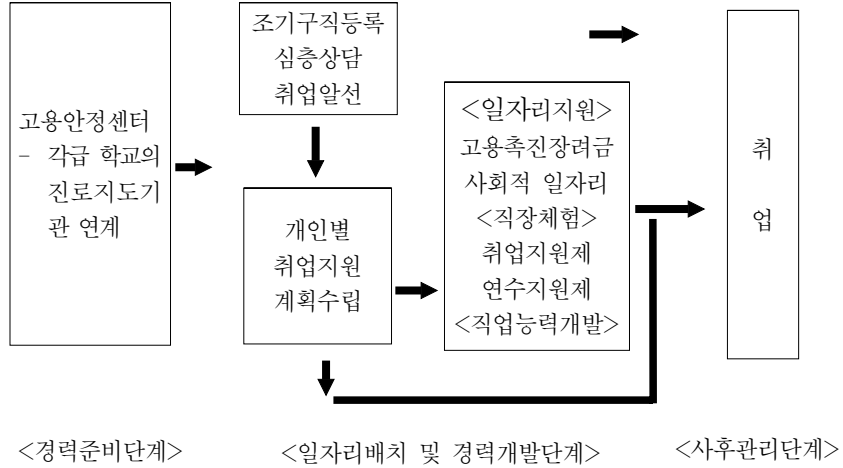
하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인지-4년제 대학 41.7%, 전문대 35.1%; 방문-4년제 대학 29%, 전문대 28.4%). 고용안정센터 방문의 효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7%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안정센터 방문자가 고졸 이하 학력이라는 관념 및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안정서비스 역할의 효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홍보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인턴제·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만들어 청년층의 자격·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3개월)는 경력준비단계로서 고용안정센터와 각급 학교의 진로지도기관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조기구직등록 유도, 직업상담·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각급 학교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등에 주력하고, 졸업 무렵에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사를 일정기간 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전담창구를 지정하거나 또는 전담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2단계는 취업알선, 모듈형 직업훈련, 정부지원 인턴제, 청소년 적합 공공근로사업 등 청소년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각 사업에 훈련을 결합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등을 활용해 취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단계의 성과를 기초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여 취업시키고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직장에 정착하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청년층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대상의 특성 및 능력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sup>25)</sup>. 졸업자의 경우, 고졸 이하 졸업자에게는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인력부족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제공

25) 이병희 외(2004: 32)에서 참조.

(그림 7-1) 청년 종합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체계도



등이 적합한 직원서비스이다. 대학 졸업자에게는 정보통신·문화관광·디자인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해외 취업·연수, 취업지원(인턴)제, 지식기반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고교·대학 재학생에게는 진로지도의 강화를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체험(연수 지원)을 통해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실업계 고교 및 인문계 직업반에는 현장실습을, 대학 재학생은 연수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희망이 노동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고용보험 DB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직업별·규모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현황을 발표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게 유도하여 종합적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지원부서를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취업지원실을 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 워크넷

의 연결 및 직업상담사,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경력자 등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구직정보 수집시 어려운 점을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50.3%, 46.3%)’이라 대답하였고,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지 모름(43.2%, 46.9%)’에 응답하였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취업지원실의 설립을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부산지역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보도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47%가 취업촉진을 위한 행사 중 취업박람회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정인수 외, 2004). 채용박람회를 연 4회 정도 개최하여 대졸예정자의 소박한 취업정보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의 채용박람회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3. 청년층 직업능력 개발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대졸자라도 하향취업자에게 생산기능직으로 입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 부천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지역은 기계 및 전기제조업, 광학 등 성장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정밀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생산기능직 부족이라고(15%) 나타났다. 기능인력 부족으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직은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 지역별·업종별로 중소기업의 특별 육성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이 지역협의체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과 청소년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훈련 직종과 중소기업 인력

부족 직종을 개설하고 맞춤형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훈련 과정을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기계설계 제작 등 청소년 관심직종과 기계정비, 용접, 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고교 2학년에서 중퇴한 자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업장에 1년간 취업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과 중도탈락 청소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2003년 말에 조사된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업훈련과정 이수 후 1년내 취업 가능성이 50%로 나타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직업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직업훈련 자체가 학교 차원이나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결과,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75%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설학원에서(56%), 컴퓨터분야(30%), 어학분야(2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기본 소양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및 인력개발<sup>26)</sup>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복지시스템 구축 및 인력 개발을 위해서 다

26)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 완화 정책도 중요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의 격차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장벽들(진입 및 이동장벽, 하청구조를 통한 잉여수취,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 등)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업조직적 정책도 중요함.

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및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센터에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하고, 정부에서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홍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클린(Clean)사업 등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 기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동부의 산재예방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피인식 개선에 좋고, 또한 중소기업의 호응이 좋아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당 평균 500만원 지원을 계획한 것이었으나 업체당 평균지원금이 1.1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기피 요인 제거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동복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각 회원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조직을 구축하고, 이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부, 산자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탁아소의 설치나 임대주택단지의 조성 등 개별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자녀 학비지원 외에 3D 직종의 경우 신규취업자도 복지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저하와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보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또한, 중소기업 노사로 하여금 노동부 노사협력기금을 종자돈(seed-money)으로 사용하여 소지역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및 청년 장기실업자의 활용과 “중소기업 취업적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성 및 청년 장기실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직업훈련실시 후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제조업체에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고령자, 여성 등이 취업 가능한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

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직업훈련이 중요하다. 또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중소기업 관련 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조하는 공공근로 형태의 근무제도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해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원 연수에 노동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실업자 흡수를 도모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독일의 마이스터(Maiste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 직업훈련에 교육훈련비와 항공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5. 직업체험 등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이행 원활화 대책

직업체험 등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이행 원활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알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함께 고려한 진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동수요측에게도 학교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취업률 정보의 공개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시장수요에 맞추어 커리큘럼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직장체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력채용확대에 대응하여 대학 재학중 직장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연수지원제를 확대한다. 재학중 기업연수 및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4학기제로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겨울방학 기간을 현재보다 줄이는 학기 제도로 개편하여 연간 4학기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직장체험에 대한 학점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산학협력 및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최근 전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같이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협력하여 편성 운영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문식 교육의 경우, 기업이 학교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손비인정 및 세금감면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지역 차원의 청년층 대책강화

지역 차원의 청년층 대책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에서 청년층 지식기반(IT), 기계장비 등 업종의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산업과 기계장비 등 기간업종에서 훈련생들에게 산업인력공단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재 4년제 대졸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지식기반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6개월 과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500만원의 비용 중 정부지원이 380만원을 커버하므로 지역 차원에서 직업훈련과정 소개와 함께 훈련생들로 하여금 산업인력공단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위한 NGO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애틀(Seattle)의 경우, 국가지원 펀드(United States Fund)를 지원받은 NGO가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청년층 직업)의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항만 및 공항의 건설공사나 서비스 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 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구직토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중퇴 청년실업자를 취직시키고 동시에 항만·공항의 단순 및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 청년실업자를 위한 구인·구직 연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별 구직자 풀 구성,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학생의 단기 직



장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취업준비자들이 노동시장과 직장에 대한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상담, 훈련과정 등에 대한 업무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학교, 학생회, 고용안정센터, 기업 간의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실업통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지역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의 권역별 실업자 특성 파악과 지역밀착형 실업대책을 위하여 시 단위 및 구 단위의 지역단위 실업통계 구축 및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7. 정부의 청년층 실업대책의 현실화와 홍보

정부의 청년층 실업대책을 현실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인지비율이 10.9%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지한 응답자 중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5% 정도의 참여율이 나타났다. 대상학교별 우선순위는 달랐으나 ‘대학생 국내외 연수 및 인턴십 지원’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참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대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희망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여 대상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고, 많은 대책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세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8. 청년층 눈높이 조절을 위한 청년층 취업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언론홍보

청년층 눈높이 조절을 위하여 청년층 취업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언론홍보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 ‘눈높이’가 현실보다 아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비록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봉을 1,988만원, 취업지역으로 수도권·서울지역을 고집하고, 제조업 취업 희망이 4%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직 졸업 이전이라 눈높이 조정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결과, 졸업예정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1,980만원으로 나타나고 학력별 차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거하여 근속연수 1년 이하 자들의 기업규모별·학력별 연봉을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연봉 수준은 2003년의 경우, 고졸 1,251만원, 전문대졸, 1,273만원, 4년제 대졸 이상 1,637만원으로 계산되어 격차율이 대졸자 20.2%, 전문대졸 30.4%, 고졸 39.6%로 연봉격차는 300만~6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4절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청년 취업애로 계층 대책

중졸 이하자는 이력서 제출 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히 낮고,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이유도 직업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취업이 안되는 이유로 취업정보부족에 다른 학력과 달리 높은 응답을 보였다. 앞에서 제시한 대상별 공통과제와 별개로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와 중졸 이하자는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부족이 다른 학력과 달리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진로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연결이라는 패키지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생산기능직으로 입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 부천시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역은 기계 및 전기제조업, 광학 등 성장 제조업이 주류인데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정밀기계 조작을 할

수 있는 생산기능적 부족이라고(15%) 나타났다. 기능인력 부족으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직은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 지역별·업종별로 중소기업의 특별 육성지원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이 지역협의체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인력 부족과 청소년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고졸 이하 대상)하는 방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취업 고졸 비진학청년층에 특화된 직업훈련시스템을 개발한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훈련직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직종을 개설하고 맞춤훈련을 강화하고,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기계설계 제작 등 청소년 관심직종 및 기계정비, 용접, 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을 훈련과정에 포함시킨다. 훈련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고교 2학년에서 중퇴한 자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업장에 1년간 취업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해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과 이들 중도탈락 청소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문계 고졸 및 고교 중퇴 이하 청년실업자를 위한 구인·구직 연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센터 워크넷에 비진학 인문계 고졸 및 고교 중퇴 이하자를 위한 구인·구직 부분(section)을 독립시킨다. 직업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인턴제·직업훈련·취업알선’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만들어 청년층의 자격·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화된 청년층 종합 취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구인정보 집적에 대한 예산배정을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별·업종별 NGO 역할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애틀(Seattle)의 경우,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직업)의 활성화를 NGO가 국가지원 펀드(United States Fund)를 지원받아 청년층 구인·

구직을 연결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의 건설공사나 서비스 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 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 구직토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중퇴 청년 실업자를 취직시키고 동시에 항만 및 공항의 단순 및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였다.

다섯째, 중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들고, 그것 때문에 대상범위에 들지 못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중졸 이하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 청년실업대책 중 인턴제, 직장체험 등의 자격기준을 중졸 이하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졸 이하 대상 청년실업대책의 종류를 확대하도록 한다.

여섯째, 동행면접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동행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노동부(2004), 『고용안정사업 현황 및 대책』, 국무회의 보고자료.
- \_\_\_\_\_ (2004), 『청년실업 원인 및 대책(안)』.
- \_\_\_\_\_ (2003), 『산업재해 현황분석』.
- \_\_\_\_\_ (2003), 『임금구조기본통계』.
- \_\_\_\_\_ (2003), 『기업체 노동비용』.
- \_\_\_\_\_ (2004. 10), 『매월노동통계조사』.
- \_\_\_\_\_ (2003),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200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2004),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4), 『□□청년 실업의 원인 및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4), 『청년 실업의 원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부처 합동(2003),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 정인수(2004),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부산대 노동문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 정인수 외(2004), 『□□부산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부산광역시.
- 정인수·윤진호(2003),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연구』, 부천상공회의소·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주최 제10차 부천지역 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 발표논문.
- 정인수·남궁은성(2002),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기획예산처 용역과제.
- 정인수(1999),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_\_\_\_\_(2004),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2002),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조사자료』, 2005.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2004), 『청년실업대책 성과 평가』.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



## 〈부록 1〉

〈부표 1〉 전국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고등학교 수

(단위: 개)

	4년제대학교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전체
<b>전체</b>	<b>211</b>	<b>158</b>	<b>755</b>	<b>1,254</b>	2,378
경기	30	34	128	185	377
서울	43	12	79	204	338
경북	19	18	82	115	234
경남	9	11	66	102	188
전남	12	11	66	83	172
부산	14	11	46	84	155
전북	10	11	67	62	150
강원	11	9	49	63	132
충남	19	7	36	70	132
인천	5	5	31	59	100
충북	11	5	32	46	94
대구	5	7	22	56	90
광주	9	7	14	45	75
대전	10	5	14	38	67
<b>울산</b>	<b>1</b>	<b>2</b>	<b>11</b>	<b>25</b>	<b>39</b>
제주	3	3	12	17	35



〈부록 2〉

〈부표 2〉 지역별·대상별 회수 학교의 분포

(단위: 개)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b>전체</b>	<b>75</b>	<b>65</b>	<b>56</b>	<b>67</b>	<b>263</b>
경기	9	13	8	13	43
서울	15	3	9	9	36
경북	6	10	5	9	30
강원	5	5	5	5	20
부산	6	4	3	5	18
충남	7	4	4	0	15
전북	4	4	3	3	14
전남	3	3	4	4	14
경남	1	3	5	5	14
충북	6	2	0	5	13
대전	4	3	2	1	10
대구	3	4	1	2	10
인천	1	2	3	3	9
광주	3	2	2	2	9
제주	2	2	1	0	5
<b>울산</b>	<b>0</b>	<b>1</b>	<b>1</b>	<b>1</b>	<b>3</b>

## 〈부록 3〉

## 1. 지식기반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

- 지식기반 산업에서만 취업자 성장추이가 강하게 나타남.
  - 1975~2000년 기간동안 상위지식산업의 취업자는 580%를 넘는 성장률을 보여, 중위지식산업 취업자의 성장이 260%인 것에 비하여 2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하위지식산업의 취업자가 같은 기간에 13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위지식산업에서 3.5배나 빠른 고용성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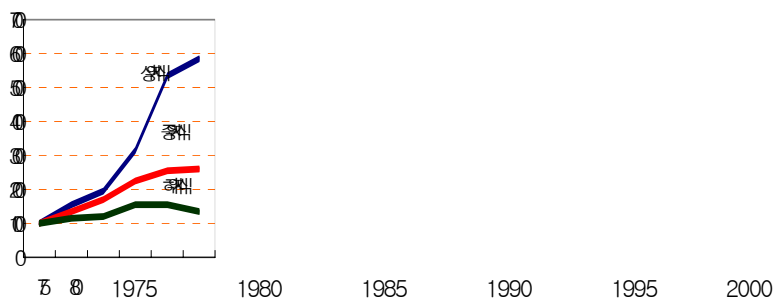
〈부표 3-1〉 지식산업군별 취업자 성장추이(1975=10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상위지식산업	100.0	152.0	197.4	311.8	532.4	584.7
중위지식산업	100.0	136.4	167.0	224.0	257.0	261.5
하위지식산업	100.0	113.1	121.5	152.8	155.2	134.3

주: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박명수·정인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변화와 정책과제□□, 2004.

〔부도 3-1〕 지식산업군별 취업자 성장추이(1975=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변화 분석』, 2004. 2, 33쪽 [그림 2-2]

〈부표 3-2〉 지식집약산업군별 한국의 산업분류

상위지식산업	정밀기기,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사업서비스업
중위지식산업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제품,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 및 보관, 부동산,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하위지식산업	광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음식숙박업

〈부록 4〉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졸업예정자)

1. 대 상 자 : 졸업예정자
2. 조사기간 : 2004.10.13 ~ 2004.10.22
3. 조사방법 : 개인면접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노동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무작위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에 의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응답하신 분께 '간단한 선물'로 사례합니다.

2004년 10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Tel : (02)782-0141(交 306), Fax : (02)784-7684

150-1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518호

문의응답 담당자 : 김기민 · 박현걸 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실)

※ 해당 항목의 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
- 3) 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 4) 전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7-4. 고용안정센터에 가보고 나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 1) 매우 도움됨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됨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7-5. 고용안정센터에 안 가보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 1) 쓸만한 정보가 없을 듯해서
- 2)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들어서
- 3) 주위의 이목으로 부끄러워서
- 4) 방문자체가 귀찮아서
- 5) 고용안정센터 위치를 몰라서

**제 2 부 희망직업분야**

8. (취업희망업종)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업종을 희망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	---------------------

- 1) 농림어업
- 2) 광업·제조업
- 3) 건설업
- 4) 도소매업·음식숙박업
-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6) 운수·통신업
- 7) 금융 및 보험업





- 4) 1,2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 5) 1,500만원 이상~1,800만원 미만
- 6) 1,8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 7) 2,000만원 이상~2,300만원 미만
- 8) 2,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 9)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10) 3,000만원 이상

13. (업체 선택기준) 귀하께서 업체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	-------------------

- 1) 연봉수준
- 2) 직무의 본인 적성 및 전공과의 적합성
- 3) 회사규모 및 인지도
- 4) 직업의 안정성
- 5) 회사 발전전망
- 6) 복지혜택

14. 희망직종이 아니라도 취업제의를 받는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5. 귀하는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라도 취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6. 귀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6-1. 귀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생산직일지라도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78 청년층의 실업상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1) 예

2) 아니오

17. 정규직 취업이 쉽지 않을 경우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서의 취업도 원함니까?

1) 예

2) 아니오

18. 만약 항목 14번부터 17번까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1)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

2) 군입대

3) 진학 및 유학

4) 자영업

5) 결혼

6)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어서

7) 기 타 (                      )

### 제 3 부 직업훈련사항 및 경력사항

19.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22번으로)

2) 재학/휴학 중 받았음

3) 졸업/중퇴 후 받았음

4) 재학/휴학 중 및 졸업/중퇴 후 모두 받았음

20.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곳이었습니까?

1) 공공직업훈련기관

2) 민간직업전문학교

3) 비영리 민간단체(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 NGO)

- 4) 사업체 훈련기관 또는 사업체 부설 연수원
- 5) 사설학원
- 6) 기타

21. 어떠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으셨습니까?

- 1) 컴퓨터 분야(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정보통신 운용)
- 2) 어학 분야
- 3) 서비스 분야(이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음식조리 등)
- 4) 경영 및 사무분야(재무·경영, 생산사무, 사무지원 등)
- 5) 기계 분야(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 6) 보건·의료 분야(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기공 등)
- 7) 예능계(음악, 미술, 디자인 등)
- 8) 전기·전자 분야(기계 또는 기기 설비·제어·조립, 전기공사, 통신설비운영 등)
- 9) 금속 및 비금속 분야(금속가공, 용접, 도자기·유리·시멘트 제조 등)
- 10) 운전 분야(선박, 항공, 철도,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 등)
- 11) 기타( )

22. 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에 모두 몇 번 직장체험(취업포함)을 하였습니까?

- 1) 없음 (⇒ Part 4로)
- 2) 한 번
- 3) 두 번
- 4) 세 번
- 5) 네 번 이상

23. 재학/휴학 중의 직업체험(취업포함)은 다음 중 주로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 1) 정부 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 2)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

- 3)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건설공사 노무직, 중국집 배달, 서빙, 과외 등)
- 4) 학교의 현장 실습
- 5) 기업 인턴

23-1. 귀하는 직업체험에서 참여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 1) 관리분야                       2) 연구개발 및 기술 분야
- 3) 사무분야                       4) 서비스 및 영업분야
- 5) 생산기능분야                 6) 단순노무분야

23-2. 귀하의 직업체험이 귀하의 전공에는 얼마나 부합되는 편입니까?

- 1) 매우 잘 부합됨                 2) 다소 부합되는 편
- 3) 그저 그렇다                   4) 다소 무관한 편
- 5) 전혀 무관함

23-3. 귀하는 직업체험을 하신 후 다음 사항에 대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직장생활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향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재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 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임시나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세는? 만(        ) 세

3. 귀하의 학력은? (해당란에 √를 하시오.)

학력	고등학교졸업(예정)	전문대학졸업(예정)	대학졸업(예정)	대학원졸업(예정)
재학				
휴학				

4. 최종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해당란에 √를 하시오.)

1.서울		5.대전		9.강원		13.전남	
2.인천		6.광주		10.충북		14.경북	
3.부산		7.울산		11.충남		15.경남	
4.대구		8.경기		12.전북		16.제주	

5. 귀하의 최종학교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여 □에 √를 해주세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1) 인문계 <input type="checkbox"/> 2) 공업계 <input type="checkbox"/> 3) 농업계 <input type="checkbox"/> 4) 수산 및 해양계 <input type="checkbox"/> 5) 상업(정보)계 <input type="checkbox"/> 6) 예체능계 <input type="checkbox"/> 7) 기 타 (        )	<input type="checkbox"/> 1) 인문사회계 <input type="checkbox"/> 2) 공업계 <input type="checkbox"/> 3) 농림학계 <input type="checkbox"/> 4) 수산 및 해양계 <input type="checkbox"/> 5) 예술계 <input type="checkbox"/> 6) 체육계 <input type="checkbox"/> 7) 의약학계 <input type="checkbox"/> 8) 이학계 <input type="checkbox"/> 9) 사범계 <input type="checkbox"/> 10) 어학계 <input type="checkbox"/> 11) 기 타 (        )	<input type="checkbox"/> 1) 어문학계 <input type="checkbox"/> 2) 예술학계 <input type="checkbox"/> 3) 인문학계 <input type="checkbox"/> 4) 사회계 <input type="checkbox"/> 5) 이학계 <input type="checkbox"/> 6) 체육학계 <input type="checkbox"/> 7) 공학계 <input type="checkbox"/> 8) 가정학계 <input type="checkbox"/> 9) 의약학계 <input type="checkbox"/> 10) 농림학계 <input type="checkbox"/> 11) 수산해양학계 <input type="checkbox"/> 12) 사범계 <input type="checkbox"/> 13) 기 타 (        )



6.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1) 10만원 미만
- 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4)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5)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6)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7) 100만원 이상

7.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1) 아르바이트
- 2) 저금해 놓은 돈
- 3) 부모님께 보조받음
- 4) 기타( )

8.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4)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7)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8)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 9)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10) 500만원 이상

9. 귀하의 토익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860점 이상
- 2) 730점 이상~860점 미만
- 3) 600점 이상~730점 미만
- 4) 470점 이상~600점 미만
- 5) 470점 미만

6) 토익시험 본적 없음

10. 귀하께서는 신용불량의 위험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록 5〉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졸업자/중퇴자/고용안정센터)

1. 대 상 자 : 청년층(15~29세)
2. 조사기간 : 2004.10.13~2004.10.22
3. 조사방법 : 개인면접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노동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무작위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통계법에 의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응답하신 분께 '간단한 선물'로 사례합니다.

2004년 10월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Tel : (02)782-0141(交 306), Fax : (02)784-7684

150-1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518호

문의응답 담당자 : 김기민 · 박현걸 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실)

※ 해당 항목의 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부 현재상태

1. 귀하는 다음의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 1)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해 본 적이 없음
- 2)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한 적이 있으나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
- 3) 현재 취업 중이지만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노력 중임
- 4) 당분간 취업의사 없음

2.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1) 일하였음
- 2) 일시휴직
- 3) 구직활동
- 4) 육아
- 5) 가사
- 6) 정규교육기관 통학
- 7)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8) 입시학원 통학
- 9) 진학준비
- 10) 심신장애
- 11) 군입대대기
- 12) 결혼준비
- 13) 쉬었음
- 14) 기 타 (                    )

3. 졸업 후 얼마동안 실업상태에 있었습니까? (        개월)

4. 현재 직장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중요도 순으로 3개를 고르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1)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2)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3)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4) 친구나 선배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5)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 인력 파견업체를 통하여
- 7)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8)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 취업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 9)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0) 베틀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 11)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예, 잡코리아)
- 12)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 13)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 14) 기타( )

4-1. 위 설문 항목 4번의 구직을 위한 정보 수집 노력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월 4회 이상 (→ 주   회)
- 2) 월 3~4회
- 3) 월 1~2회
- 4) 2~3개월에 1회 이하

5. 졸업 후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        곳)

6.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는 무엇입니까?

- 1) 사설 온라인 채용정보업체(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 2)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 3) 신문사 취업관련 채용사이트
- 4)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





※ 11번, 11-1번, 11-5번은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분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 고용안정센터를 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 Part 2로)

11-1. 고용안정센터에 가보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11-5번으로)

11-2. 고용안정센터에 가보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가보셨습니까?

- 1) 취업알선·정보·직업상담  
 2) 실업급여 수급 관련  
 3) 자활 및 실업대책사업(직장체험프로그램) 등  
 4) 직업훈련 안내 및 상담  
 5) 고용안정사업 관련  
 6) 기 타 ( )

11-3. 고용안정센터 내에 귀하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 1) 잘 정리되어 있음  
 2)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음  
 3) 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4) 전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음

11-4. 고용안정센터에 가보고 나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 1) 매우 도움됨  
 2) 어느 정도 도움이 됨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94 청년층의 실업상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 3) 회사규모 및 인지도
- 4) 직업의 안정성
- 5) 회사 발전전망
- 6) 복지혜택

18. 희망직종이 아니라도 취업제의를 받는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19. 귀하는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라도 취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20. 귀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20-1. 귀하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생산직일지라도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21. 정규직 취업이 쉽지 않을 경우 파견근무·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으로서의 취업도 원합니까?

- 1) 예
- 2) 아니오

22. 만약 위의 설문 항목 18번부터 21번까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 1) 계속 원하는 직종의 취업을 준비
- 2) 군입대
- 3) 진학 및 유학
- 4) 자영업
- 5) 결혼
- 6) 취업이 되지 않아 당분간 취업의사가 없어서



사, 통신설비운영 등)

- 9) 금속 및 비금속 분야(금속가공, 용접, 도자기·유리·시멘트 제조 등)
- 10) 운전 분야(선박, 항공, 철도,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 등)
- 11) 기타( )

26. 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에 1주일 이상 지속된 직장체험(취업포함)은 모두 몇 번 있었습니까?

- 1) 없음 (⇒ 재학/휴학자는 Part 4로, 졸업/중퇴자는 28번으로)
- 2) 한 번
- 3) 두 번
- 4) 세 번
- 5) 네 번 이상

27. 재학/휴학 중의 직업체험(취업포함)은 다음 중 주로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 1) 정부 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 2) 민간업체, 공공기업 등 직장에 임시·일용·파트타임으로 취업
- 3) 아르바이트 및 임시일용직(건설공사 노무직, 중국집 배달, 서빙, 과외 등)
- 4) 학교의 현장 실습
- 5) 기업 인턴

27-1. 귀하의 직업체험에서 참여했던 분야는 무엇입니까?

- 1) 관리분야                       2) 연구개발 및 기술 분야
- 3) 사무분야                         4) 서비스 및 영업 분야
- 5) 생산기능분야                 6) 단순노무분야

27-2. 귀하의 직업체험이 귀하의 전공에는 얼마나 부합되는 편입니까?

- 1) 매우 잘 부합됨                 2) 다소 부합되는 편
- 3) 그저 그렇다                     4) 다소 무관한 편

5) 전혀 무관함

27-3. 귀하는 직업체험을 하신 후 다음 사항에 대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직장생활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향후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향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재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실력 및 직업능력개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임시나마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졸업 또는 종퇴 이후에 지난주 일자리(직장)를 포함하여 1주일 이상 지속된 취업은 몇 번입니까?

- 1) 없음 (⇒ Part 4로)
  - 2) 한 번
  - 3) 두 번
  - 4) 세 번
  - 5) 네 번 이상
- } ⇒ 29번으로

29. 첫 일자리(직장)에 취업할 당시 고용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임금근로자
  - 1) 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
  - 2) 계약기간 1년 초과 근로자

- 3)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 4)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일자리

■ 비임금근로자

- 6) 자영업자 (본인이 사업주이며 본인 이외의 임금근로자 채용이 없는 경우)
- 7) 고용주 (본인이 사업주이며 본인 이외의 임금근로자 채용이 있는 경우)
- 8) 무급가족종사자

30. 첫 일자리에서의 월급수준은?

-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4)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5)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6)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7) 300만원 이상

31. 첫 일자리(직장)의 취업과 이직 시기는 각각 언제였습니까?

- 첫 일자리(직장) 취업 시기     년   월
- 첫 일자리(직장) 이직 시기     년   월 (단, 첫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응답하지 않아도 됨)

32. 첫 일자리(직장)를 그만둔 주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근로여건(근로시간, 보수, 승진,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 2)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 3)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 4)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상사, 동료와의 불화)
- 5)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계속 등)





35.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직장)를 얻게 된 주된 방법이나 경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 1)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 2) 회사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 3) 본인의 직접적인 문의/면담을 통하여
- 4)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 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 친구나 선배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7)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8)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서
- 9) 공공/사설 직업소개기관(예,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여
- 10) 학교내의 직업소개기관(예, 취업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 11) 신문, 잡지 등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
- 12)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
- 13) 인터넷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해(예, 잡코리아)
- 14) 직업훈련 과정에 참가
- 15)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통하여

36.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직장)와 본인의 최종학교 전공의 일치여부는?

- 1) 매우 불일치
- 2) 약간 불일치
- 3) 그런대로 일치
- 4) 매우 일치





♣ 통계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2. 귀하의 연세는? 만( ) 세

3. 귀하의 학력은? (해당란에 √를 하시오.)

학력	고졸 및 그 이하	전문대학 졸업(예정)	대학졸업(예정)	대학원졸업(예정)
중퇴				
휴학				
졸업				

4. 최종학교를 언제 졸업/중퇴/휴학하였습니까?

1) 졸업        년   월

2) 중퇴        년   월

3) 휴학        년   월

5. 최종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해당란에 √를 하시오.)

1.서울		5.대전		9.강원		13.전남	
2.인천		6.광주		10.충북		14.경북	
3.부산		7.울산		11.충남		15.경남	
4.대구		8.경기		12.전북		16.제주	

6. 귀하의 최종학교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여 에 를 해주세요.

고등학교 및 그 이하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1) 인문계 <input type="checkbox"/> 2) 공업계 <input type="checkbox"/> 3) 농업계 <input type="checkbox"/> 4) 수산 및 해양계 <input type="checkbox"/> 5) 상업(정보)계 <input type="checkbox"/> 6) 예체능계 <input type="checkbox"/> 7) 기 타 (            )	<input type="checkbox"/> 1) 인문사회계 <input type="checkbox"/> 2) 공학계 <input type="checkbox"/> 3) 농림학계 <input type="checkbox"/> 4) 수산 및 해양계 <input type="checkbox"/> 5) 예술계 <input type="checkbox"/> 6) 체육계 <input type="checkbox"/> 7) 의약학계 <input type="checkbox"/> 8) 이학계 <input type="checkbox"/> 9) 사범계 <input type="checkbox"/> 10) 어학계 <input type="checkbox"/> 11) 기 타 (            )	<input type="checkbox"/> 1) 어문학계 <input type="checkbox"/> 2) 예술학계 <input type="checkbox"/> 3) 인문학계 <input type="checkbox"/> 4) 사회계 <input type="checkbox"/> 5) 이학계 <input type="checkbox"/> 6) 체육학계 <input type="checkbox"/> 7) 공학계 <input type="checkbox"/> 8) 가정학계 <input type="checkbox"/> 9) 의약학계 <input type="checkbox"/> 10) 농림학계 <input type="checkbox"/> 11) 수산해양학계 <input type="checkbox"/> 12) 사범계 <input type="checkbox"/> 13) 기 타 (            )

7.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1) 10만원 미만
- 2)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3)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4)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5)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6)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7) 100만원 이상

8.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1) 아르바이트                       2) 저금해 놓은 돈
- 3) 부모님께 보조받음               4) 기타(                      )

9. 귀하를 포함한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3)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4)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 7)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8)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 9)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 귀하의 토익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860점 이상
- 2) 730점 이상~860점 미만
- 3) 600점 이상~730점 미만
- 4) 470점 이상~600점 미만
- 5) 470점 미만
- 6) 토익시험 본적 없음

11. 귀하께서는 신용불량의 위험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마지막으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